3대째, 오로지 전통 수제 작설차만을 고집하는 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야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사업체 •
• 우리 차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정성
빅맨평생통장
■ 이자가 조르면 조른금리로 내립니다 확정금리로!
■ 교육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 제공
국민은행

명예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11월 15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진리란 세상에 오고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잡아함경〉

법회 안내

용천사 (02)872-6367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소년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중앙포교회관 (02)523-024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9시30분
중고생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 오후4시
합창단법회 매주 토 오후2시
방생법회 매주 첫째 화 오전8시

대각사 (02)765-6972
합창단법회 매주 월 오후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학생법회 매주 일 오후1시
청년법회 매주 화 오후7시30분

수진사 (0346)591-7710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1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1시

마하연 포교원(032)513-5328
초하루법회 1~3일(음) 오전10시
일요가족법회 일 오전10시30분
청년부법회 매주 수 오후7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예천 포교원 (0584)654-6788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1시
청년법회 매주 수 오후8시
중·고생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인천 무량사(032)575-3882
가족법회 매월 셋째 일 오후5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5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억불숭유' 뒤집을 부장품 발견

파주 4백50년 미이라…조선불교 획기적 연구자료

조선 전기는 억불숭유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부장품이 발굴됐다.

지난 6일 경주 정씨 종친회가 경기 파주군 선산에서 조선 중종 때 정5품 벼슬 '찬의(贊議)'를 지낸 정온(鄭溫)의 묘소 이장작업을 하던 중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불상과 다라니가 찍힌 옷가지 30여점이 발견되어 불교계와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유품은 4백50년전 매장될 당시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단저고리와 치마, 용도를 알수 없는 옷가지 4점에 목판본으로 추정되는 불상, 다라니등의 만다라가 찍혀 있다. 특히 비단저고리의 앞가슴 양쪽에 각각 불상과 비천상이 붉은 색으로 선명히 인쇄되어 있고 아래부분에는 등근 원형속에 '옴 마니 반메 훔' 진언이 범어로 새겨져 있다. 치마에는 다라니 경판 4폭이 찍혀 있으며 무명 천에도 부적형식의 다양한 만다라가 찍혀 있다.

또한 목관 내부도 목판본 불상, 다라니가 찍힌 화선지로 사방을 장식하고 있어 학계는 불교 미술사와 의식사, 경판의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보고있다.

경주 정씨 종친회로 부터 유품을 기증받아 보존처리를 하고 있는 단국대 박물관 박성실 연구실장은 "출토복식가운데 다라니 경판이 찍힌 것은 처음으로 이번에 발굴된 옷은 수의가 아닌 생활복이어서 당시 불교생활상과 복식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박실장은 "옷에 경전이 쓰여있는 것은 상원사에 보관중인 세조어의(보물 제793호)가 유일하다"며 "정온의 옷가지는 보물급 이상의 귀중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민묘 연구가 김우림(고려대 박물관)씨도 "관의 내부에 불상과 다라니 경판이 찍힌 예는 학계에 보고조차 되어있지 않다"며 "글씨가 아닌 목판본인 것은 조선 전기까지 수의와 관에 다라니를 찍는 장례문화가 성행했던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불교미술사가 이기선씨는 옷과 관에 다라니를 새기는것에 대해 "다라니는 시신과 음택에 나쁜것이 끼지 않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것으로 관 자체가 곧 반야용선을 의미한다"고 소개했다. 이기선씨는 "정온의 옷과 관에 새겨진 경판은 현재에는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양식으로 고려시대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파주에서 발굴된 다라니 수의는 단국대 박물관이 보존처리를 마치고 내년 5월경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조선 중종때 묘소에서 불상·다라니가 찍혀진 옷가지가 발견되어 학계 불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원담스님은 부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자고 설법했다.

"부처님 가르침 실천합시다"

수덕사 원담스님 친견 법회 150여불자 동참

"모든 법이 부처입니다.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은 부처요, 모르면 중생인 것입니다."

지난 4일 오후1시 현대불교신문 창간 1주년을 맞아 기획한 '조계종 4대총림 방장스님 친견법회'를 위해 전국에서 수덕사를 찾은 1백50여 불자들에게 원담스님(덕숭총림 방장)은 이렇게 법어를 내렸다.

원담스님은 "부처님은 항상 수많은 중생들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되어 어두운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다"면서 "많은 중생들은 친절하게 이끌어주시는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은혜를 알고 가르침을 실천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했다.

이날 동참자들은 "오늘 큰스님의 법문은 답답했던 마음의 한구석을 뚫어주어 시원했다"며 법회가 끝난 후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대웅전 앞뜰에 모여 원담스님과 함께 기념촬영도 했다.

▲ 3차 11월 18일(토) 조계총림 송광사 승찬 방장스님
▲ 4차 11월 25일(토) 해인총림 해인사 혜암 방장스님

선학원 독자노선 움직임

9일 전국 분원장회의서 대다수 찬성

선학원은 지난 8~9일 양일간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분원장 회의를 개최, 분리 독립 논의등 재단 현안에 관한 심도 깊은 토의를 가졌다.

9일 오전 비공개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1백30여 분원장들의 참석 대다수가 "조계종의 법인관리법이나 징계방침에 승복하지 않고 선학원이 독자노선을 걸어야 한다"는데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회의 결과는/ 조계종 119회 정기중앙종회에서 법인관리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선학원 상무이사 법진스님은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으나 조계종의 일방적 관장하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경주=이윤호 기자〉

본사 사령

황성록
舍 전락정보기술팀장
〈11월 1일자〉
차차석 조사자료부장
의원면직
委囑 객원 논설위원
〈11월 4일자〉

알림 창간 1돌 독자사은 '전국 전통사찰지도' 배포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주년을 기념해 독자사은 뜻으로 제작한 '전국 전통사찰안내도'를 본지 53호와 함께 구독자에게 배포합니다.

전국 전통사찰 안내도는 국내 8백52개 전통사찰을 총망라해 한눈에 찾기 쉽게 지도로 담았습니다.

올 칼라로 된 사찰지도는 뒷면에는 수록된 사찰 전체를 가나다 順으로 사찰명과 주소를 일일이 기입, 색인하였으며, 뒷면에는 서울 조계사와 인사동을 중심으로한 불교문화지도를 실어 다양한 신행·문화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크기:4×6 2절
축척:1/80만 축소〉

■ 보급 : 일반인에게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유가 판매합니다.
문의 : (02)737-0695
■ 국립지리원의 원도사용 승인 및 교정작업의 지연으로 예정보다 1개월 가량 발송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부록 전국 전통사찰안내도 발간

목어

50세가 넘은듯한 한 수녀가 현대불교신문사를 찾아왔다. 그분은 '현대불교' 애독자다. 외출이 금지된 봉쇄수녀원의 그 수녀는 속가의 친척이 세상을 하직했기 때문에 서울에 왔다. 그런데 왜 '현대불교'를 방문했을까.

점심식사를 같이하면서 그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저는 '현대불교'를 창간호부터 애독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너무 좋아 계속 구독하고 싶은데 저는 봉쇄수녀원에 있으므로 돈이 없습니다. 그 사연을 편지로 전했더니 '현대불교'에서 기증 약속을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입게 돼 감사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못 만나고…

저는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은 제가 '다른 반찬'을 먹고 있는줄 다 압니다. 만나야 할 하나님은 못 만나고, 불교에 자꾸만 마음이 갑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자매들이 말은 안해도 불교책 1~2권은 갖고있을 겁니다. 불교를 통해 제 종교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가슴이 설레입니다. 책을 통해 만났고, 시자스님을 통해 편지와 전화로 제 마음을 전한 대행스님을 뵙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녀의 말씀은 교훈이었다. 불교의 우월성을 내세우기에 앞서 부끄러웠다. 우리 불자들은 다른 종교를 과연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 알려고 하는가.

최근 10원짜리 동전이 노씨 비자금 구설수에 오르면서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동전의 불상·탑 도안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도안 변경요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국보급 불교 문화재가 어디 불교만의 성보인가. 종교를 초월하여 이나라 이민족의 문화 유산이며 긍지임을 모를리 없거늘, 그저 어이없을 뿐이다. 지극히 배타적인 기독교인들에게 그 수녀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삼성화재만이 드릴 수 있는 新서비스 – ①

"이거, 어쩌나?"
몸은 홍콩인데, 짐은 런던!
그런데, 영어는 Thank you가 고작이니…

취익 –
3시간의 비행끝에 홍콩에 도착한 김 대리 –
입국 수속도 마쳤고 이제 짐만 찾으면
휴가가 시작되려는 순간,
앗!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람? 기다려도 기다려도
짐은 나오질 않고
계단이 속이 푹 막히고 머리도 핑 도는 게 급체할은데,
이 낯선 공항에서 손가락을 딸 수도 없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짐은 어떻게 찾고
병원은 어떻게 가나요? 누구 도와 줄 사람 없나요?…"



삼성화재 우리말 도움서비스 –
이제,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께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해외여행보험 가입자께만 제공해 오던
삼성화재 '우리말 도움서비스' –
6월 1일부터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께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세계적인 긴급서비스 전문회사인 AEA社와 제휴하여 의료안내, 여행안내 서비스에서 사고처리 안내까지 –
고객 여러분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료안내 서비스 – 전문의 안내, 의료시설안내, 의료인과의 전화 의료상담안내, 치료알선, 국내가족과의 긴급연락
여행안내 서비스 – 여권 재발급 안내, 분실물 회수알선, 출입국비자안내
사고처리안내 서비스 – 보상을 위한 현지 구비서류안내, 보상절차 안내

삼성화재 '우리말 도움서비스' –
고객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좋은 보험회사
삼성화재만의 新서비스입니다.

■ 우리말 도움서비스 이용법
개인연금보험,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발급되는 카드의 전화번호를 돌리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전화 : 758-7334~6

마음에 안심을 생활에 큰 힘을
SAMSUNG 삼성화재

사 설

'한벌 누더기' 가르침 되새기자

—성철스님 2주기를 맞아

심기가 불안하고 뉴스가 두렵다. 이세상이 어쩌면 이렇게 대형 사고와 악덕비리가 판을 치게 되었을까. 하늘을 탓해야 할까. 조상을 탓해야 할까. 아니다. 아무나 할수 있다는 정치 탓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떡거릴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만인의 윗자리에 있던 최고 통치자도 그럴진대 어떤 지도자인들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내 남없이 정치가나 정치지망생은 진실로 참회해야 한다.

청렴과 검소로 살다가신 성철스님이 더욱 그리워진다. 때마침 12일이 스님 2주기다. 스님의 우레와 같은 강직한 사자후가 한번 울렸으면 한다.

성철스님은 불교계 최고지존의 자리에 계실 때보다 입적하시며 더욱 밝은 빛을 비추셨다. 불교신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마음에 광명을 주셨다. 시골 할아버지 같은 모습에 남기신 것은 꿰매고 꿰매어 실밥만 남은 헌 누더기와 검정 고무신 그리고 몇년을 말려가며 쓰시던 이쑤시개…. 우리는 스님의 뒷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처세를 살펴보고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스님께서 가신 뒤 조계종은 한반도 1600년 불교역사상 최대 규모라고들 말하는 변혁을 일으켰다. 아직도 그때의 함성을 들은 시민들은 조계종의 모습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지인사에 뒷거래가 있고 돈문제로 구속되는 소리가 들리니 개혁의 의지는 차치하고라도 해악의 습과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인가.

진정 개혁 종단의 종회라면 차제에 철저히 규명하여 청정승가의 위상구현에 더욱 힘기울여야 할 것이며 썩은 관행을 도려내어 사회를 계도하는 수행자로서 떳떳하게 참된 면모를 드러내야 할 것이다.

이번 성철스님의 2주기를 맞아 문도회가 중심이 돼 스님께서 평소 펴시던 삶의 자세를 정리하여 "첫째 자기를 바로 봅시다. 둘째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셋째 남 모르게 남을 도웁시다"라는 슬로건을 내어걸고 7일 7야에 걸쳐 8만4천배의 참회기도를 했다.

또 '성철스님 불교학술상 및 논문상'을 제정하여 불교학 및 선학 발전의 계기로 삼고 스님 생존시에 시작했던 역경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려운 선서의 일반화, 대중화에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는 스님 가신 후 잊혀져 갈 뻔했던 스님의 교화사상을 실현한다 생각하니 참으로 수희동참해야 할 일이다.

빈 손으로 오셨다가 빈 손으로 가시면서도 엄숙함 뒤에 남겨진 따스한 마음과 인간적인 면모를 거울삼아 물욕의 비리에 얼룩진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말끔히 비우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우리는 각기 자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노 전대통령처럼 만인의 가슴에 증오심을 일으키게 하지나 않는지, 아니 어떤 한 중생, 한 물건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한벌의 누더기, 검정고무신과 이쑤시개도 던지고 간 성철스님의 모습을 내 마음에 담아 생각해 보자. 얼마나 멋진 한 생이었던가.

남이 잘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조용히 남을 도울 수 있다. 그렇게하면 반야경의 무소유를 실천하여 반야바라밀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통치자도 정치인도 행정가와 기업가도 그리고 종교가들조차도 무일푼의 시민과 더불어 사는 한 표 가진 국민일 따름이다. 특권의식, 욕심을 버리고 한 마음 훨훨 털어 놓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자세로 태평가를 한 곡조 불러 본다면 온 국민의 마음은 시원하게 서로 열릴 것이며 사회는 굳이 윤리와 도덕을 거론치 않아도 편안하게 될 것이다.

열 린 마 당

조계종 법인관리법

선학원 문제로 제정이 서둘러진 조계종 법인관리법이 이번 정기종회에 상정 통과될 전망이다. (11월 9일 현재)

점점 늘어나는 각종 법인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종법이 필요하다는 종단측과 자칫 규제만 받는 비민주적인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일부 법인측의 논란이 가중돼 왔다. 더구나 조계종과 관련된 모든 법인을 통제할 수도 있다는 권한부여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있어 왔다.

법인관리법안의 내용이 무엇이며, 제정취지와 각계의 목소리를 듣는다. 〈편집자 주〉

일 면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각종 법인이 계속 생기는데 비해 종단에서는 이를 관리할 구체적 근거자료가 없어 법인관리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법인관리법은 단순히 법인들에 대한 관리 통제만이 아니다. 종단에서 장려해야 할 법인도 많으므로 공조체제로서 종단과 법인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법인의 여러 사업에 있어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다.

삼보정재 유실막고 지원·협조체제 마련

재단법인 선학원의 경우 뿌리는 조계종과 같이 하고 있고 선학원 소속 사찰중에도 조계종 명의를 쓰고 있는 곳이 많으나 실상 조계종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계종 승려가 관여하고 있거나 조계종의 재산이 출연돼 형성된 법인임에도 시일이 지나면 종단에 대한 의무를 이행않거나 종단과는 상관없이 운영, 관리되는 곳이 늘어가고 있다. 그냥 두다가는 조계종은 헛껍데기 종단이 돼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져 왔다.

법인관리법의 제정으로써 삼보정재의 유실을 막고 전 종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국불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성 운 〈삼천사 주지〉



종단에서 법인관리법을 제정하는 것은 삼보정재의 유실을 막고 법인을 설립한 승려들의 탈 종단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듣고 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 공사찰 주지를 역임한 사람이 삼보정재를 축재해서 법인을 설립한 일은 한 건도 없다고 본다. (축재해서 다른 곳으로 낭비한 예는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몇개 안되는 법인은 공사찰 재정과는 무관하게 각자의 반연에 의해 설립해서 어렵게 각종 복지나 포교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종단 법적통제권 없어 유명무실 우려

그렇기 때문에 삼보정재 유실을 막기 위해 법인관리법을 만든다는 말은 설득력·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또한 법인관리법을 만든다고 해도 종단에 법인을 관리하고 통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당 이사회에서 권리행사를 할 뿐이다.)

그런데도 법인관리법으로 기존의 법인들을 묶으려는 것은 자칫 법인관리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도 있을 것이다.

진실로 삼보정재의 유출을 막으려면 먼저 독실이식 재정관리를 탈피하고 (재정을 양명하게 운영하는 사찰은 아마 한두 개일 것이다) 사찰재정의 수입지출을 양명하게 제도화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법안 개요

법인관리법(안)의 적용범위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이나 사찰 및 승려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학교법인 영리법인 기타 특수법인이다.

법인의 명칭에는 조계종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정관목적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종지와 종통을 받든다'는 의미의 문구를 명시하고 이사는 조계종 소속 승려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정관 변경시에도 사전에 법인관리위와 협의해야 한다. 불교중앙교원 선학원 대각회 동국학원 승가학원 사회복지재단 등은 정관변경시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인은 매년 3월이내 재산현황과 재산 변동사항을 소관 중앙종무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법인 산하 사암은 분담금을 내야 한다.

불교중앙교원 선학원 대각회는 총무원 총무부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방송법인은 문화사회부가, 학교법인은 교육원에서 관리를 담당한다. 11~15인의 법인관리위원회를 두며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은 당연직이며 나머지 위원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

법인관리위는 법인 운영현황파악 및 문제점의 보완 지시, 사업추진법인의 종단등록 요건 변경여부 파악등의 권한을 갖는다. 또 관할 법인의 이사와 감사 등 임원후보를 선정해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중앙교원 임원 후보 선학원 및 대각회 재직임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임원 후보를 복수로 추천한다.

이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종립학교관리법은 폐지된다.

적용범위 학교·공익·특수법인 포함

등록법인 해마다 재산현황등 보고

현대만평

박구원



이젠 방생작업만…

시 론

盧씨 外道행차의 '뒤끝'

어느 통계에 의하면 독일 나치스의 만행을 꼬집은 소설 연극 영화 등이 세계 각국에서 이미 천여편이나 나왔는데 앞으로도 그만큼 더 나올 것이라 한다.

그건 평화를 유린한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그 죄값이 얼마나 준엄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는 한 사례이다.

혹자는 말한다. 신문이 왜 추악한 일만 들추는가? 대답은 간명하다. 세상이 온통 추악하니까 하고….

하지만 요즘의 신문들은 노태우비자금 사건으로 범벅이다. 사건이 워낙 초특급이라는 것, 거기다가 자꾸만 새 사실이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노태우씨 관련기사로 범벅이 된 신문지 끄트머리에 이봉창의사의 동상제막 소식이 보인다. 수류탄을 일본 천황 앞에 던지고 나면 어김없이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매양 의연했던 피끓은 젊은이 이봉창! 돈을 무작정 긁어 모으면 천세만세 행복하리라 믿었던 노태우씨!

스스로 불자(佛子)를 자처했던 노태우씨는 이제 오욕으로 분해된 진흙밭이요 우리의 기상 이봉창 의사는 거기서 피어오른 연꽃(蓮草)이라고 비유한다면 지나친 수식일까!



김 봉 호
〈해남신문 대표이사〉

지난 주 어느 방송국의 심야토론에서 주소를 대구라고 밝힌 시청자가 "전직 대통령이며 대 국민 사과도 했으니만큼 이제 용서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에 이런 도덕군자가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를 일이지만 그건 굳이 전대통령 전대통령하며 이른바 전관예우를 해야 한다는 측과 함께 연민의 정이라 하겠다.

잘못을 몽땅 털어 놓아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용서를 받으려거든 당초에 그 잘못된 대목을 몽땅 털어놓아야 한다. 이미 폭로된 일부분만 내밀어 놓고 이것 뿐이요 한다면 용서는 커녕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

노태우씨는 처음부터 오산을 했다. 최고 통치권자이며, 상전의 영이라면 죽음도 두려워 않으리라는 충복을 지천으로 거느리고 있는 터에 내가 하는 일을 뉘 알리요 하는….

원로 소설가 ㅈ씨의 외도행차(外道行次)는 완벽했다. 짙은 안경에 모자를 눌러쓰고 그를 따르는 문학소녀와 함께 변두리 여관에 투숙하였다. 숙박부에는 가명을 썼다. 뉘 알소냐! 그러나 더욱 조심한답시고 새벽에 여관을 나서는데 신발을 찾느라 애를 먹었다. 그때 여관주인의 대갈일성이 귓전을 때렸다. "얘들아 ㅈ선생님 나가신다. 신발 챙겨드려라" 라는.

아뿔싸, 만사유재였다. ㅈ씨의 촌극과 노태우씨의 다큐멘타리는 너무도 흡사하다 하겠다.

'부패 공화국' 이제 그만

노태우씨가 검찰청에 출두하는 날의 소요는 사건의 크기 만큼이나 요란하였다. 우리 국민은 그 광경을 시종 지켜보았다. 혹은 연민의 정으로 혹은 타산지석으로 혹은 역사의 교훈으로 혹은 호기심으로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허망하였다. 어쨌거나 한때 우리의 대통령이었던 체통으로 하여, 군자다운 곧곧함이나 선비다운 기상이나 하다못해 장군다운 만용이라도 기대했던 한가닥의 바람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비실비실 흐물흐물하는 작태라니… 시중잡배와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노태우씨는 대도(大盜)의 자격마저 지니지 못했다. 큰도둑은 정보에 밝아야 하는 것이거늘, 스위스의 은행에 돈을 맡기면 언제까지나 그 비밀이 보장된다는 건 옛말이라는 것, 스위스의 은행들이 검은 돈을 은닉하여 치부하는 행위는, 악(惡)을 조장하는 비도덕적이라는 국제적 비판에 밀려서 요즘은 예금주의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그 내역을 밝히게 되어있다는 것을 노태우씨와 그 측근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노태우씨는 자꾸만 실수를 거듭하는 것 같다. 이웃 집에서 굽는 고기가 쇠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를 대번에 알아차리는 세상에, 70년대에나 유행했던 수법으로 어디에 땅, 어디에 빌딩 하고 사모은 아둔함과 그걸 감추려고 발버둥치는 파렴치까지 저지르고 있다.

천붕우출이라 했다. 노태우씨가 방향을 바로잡아 호리도 남김없이 털어버리면 자신도 살고 그 가족과 측근도 살고 혼란한 나라도 수습된다는 이치를 어서 깨달았으면 좋겠다.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뽑혀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게되고,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목에서 국민들은 '부패 공화국'으로 치부되는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모르고 있다. 물론 이번 노태우비자금 사건은 우리사회의 묵은 의식과 관행을 탈바꿈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의식의 선진화와 법과 제도의 개선 등 사회개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한국불교학 전문강좌 및 불교원전연구·어학교육 안내

가산회향회

—후원가족 입회 안내—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이념과 사업에 동참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본원 후원회인 "伽山廻向會"의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 래—

■평등회향회원:월 1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정기적으로 회향하실 분
■지혜회향회원:「가산상」의 '연구상'이나 '학술상' 등으로 자유로이 회향하실 분
■자유회향회원:연 50만원 이상을 분할 또는 일시불로 회향하실 분

이상의 후원회비는
三輪淸淨의 정신과 그 회비운영의 개방으로
佛性人間과 그法性自然이 함께 하는
佛國土具顯에 회향됩니다.

▣ 회원이 되시면 ……
- 본원의 주 목적사업인 불교대사전(10권 예정) 구입시 특전을 드리며,
- 본원의 강좌와 각종 교화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각종 정간물과 교화매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본 사업의 모니터가 되시어 본원 발전을 위한 열린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 회비는 ……
- 본원으로 직접 방문 납입하시거나
- 지로(7606753) 또는 온라인 구좌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대중들의 수행처 伽山蘭若은 ……

*불교의 궁극적 이념인 인간의 본래불성과 자연의 근본법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뜻을 연 대중들의 정진수행처입니다.

*본 법인은 사회의 난아화를 추구하는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난야(Āraṇyaka)란 빌도 있게 정진하는 수행처를 이름합니다. 탐욕과 무지의 몽환을 떨쳐버리고 진여의 자유세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주체적 역할을 담당할 난야가족을 三學·三施정신에 의거해 동참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精進蘭若 / 戒學 불교사상교육 / 平等의 나눔(財布施)
♣ 禪定蘭若 / 定學 禪 實 修 / 自由의 나눔(無畏施)
♣ 智慧蘭若 / 慧學 불교전문교육 / 智慧의 나눔(法布施)

한국불교학의 진흥을 목적으로 **교육, 학술, 출판, 교화, 불교대사전 편찬**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불교학의 균형 있는 발전과 불교학 연구자의 저변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96년도 1기 연구회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국불교학 전문강좌 및 불교원전연구 과정

구 분	코드	강좌명	교 재	강 사	강의시간
한국불교학 전문강좌	K-01	한국불교 금석학강좌	역대고승비문(고려시대편) —이지관—	강주 : 지관 스님 (본원 원장)	격 주 목 19:30~21:00
'96 불교원전연구회 제1기	H-11	한 문 불전연구과정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 —청량 찬—	강주 : 지관 스님 (본원 원장)	격 주 금 19:30~21:00
	S-11	범어 원전연구과정	Abhidharmakośa(俱舍論) —世 親—	이 종 철 (서울대 강사, 본원 연구위원)	격 주 월 19:30~21:00
	T-11	티벳어 원전연구과정	Bsgom-pahi rim-pa(修習次第) —Kamalasila—	허 일 범 (진각대학교수, 본원 연구위원)	격 주 화 19:30~21:00
	P-11	팔리어 원전연구과정	불교원전언어연구의 팔리어본 —최봉수—	최 봉 수 (경전번역연구소장, 본원 연구위원)	격 주 수 19:30~21:00

불교어학연수과정

구 분	코드	강좌명	교 재	강 사	강의시간
'96 제1기 불교어학연수 '96. 1. ~ '96. 2.	H-01	불 교 한문강독	선원제 전집도서(禪源諸 詮集都序) —宗密 著—	김 영 욱 (고려대 강사, 본원 연구위원)	매 주 목 13:00~15:00
	S-01	범 어 어학연습	Leam Sanskrit in Thirty Days	이 종 철 (서울대 강사, 본원 연구위원)	매 주 월 13:00~15:00
	T-01	티벳어 어학연습	티벳어의 기초와 실천 —허일범 저—	허 일 범 (진각대학교수, 본원 연구위원)	매 주 화 13:00~15:00
	P-01	팔리어 어학연습	불교원전언어연구 —최봉수 역—	최 봉 수 (동국대 강사, 본원 연구위원)	매 주 수 13:00~15:00

▣제출서류 : 입회원서 1부(본원소재)와 사진 2매 ▣접수처 :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접수일 :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이지관

도서출판 가산문고가 내는 책들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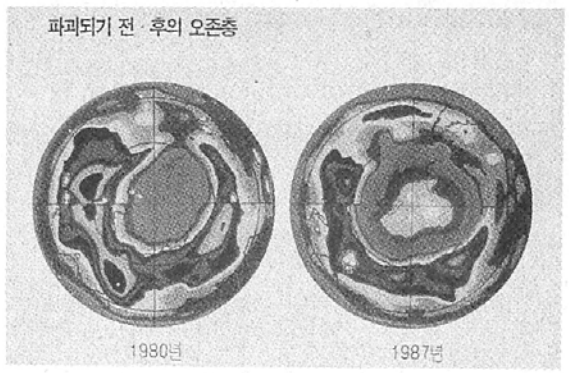
「伽山學報」 창간호
「伽山學報」 제 2호
「伽山學報」 제 3호
「伽山學報」 제 4호(신간) *
—가산불교문화연구원—
「韓國佛敎文化思想史」 (상·하)
—논총간행위원회 편—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신라편)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고려편 1)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고려편 2)(신간) *
「韓國佛敎所依經典硏究」
—이지관—
「南北傳六部律藏 比較硏究」
—이지관—
「伽倻山 海印寺誌」
—이지관 편—
「信行日鑑」
—이지관—
「信行龜鑑」
—이지관—
「增補 四集私記」(신간) *
—이지관—
「要經序說」(개정판) *
—이지관—
(우편주문 가능)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2-10 (우당기념관 2층)
기획연구실 765-9602 학술출판부 765-9603
사전편찬부 745-1663 FAX 765-5673

지구 더워지며 생태계 균형 잃어

◇남극상공의 사진. 1987년의 오른쪽 사진에서 가운데 흰 부분은 오존층이 파괴돼 구멍이 뚫린 것이다.

부처님의 지구 사랑 — 전 재 성 ㉜



피부암 · 백내장 늘고 농작물 · 어획량 격감
프레온가스 사용량 95년까지 50% 감축협정

부처님은 깟싸빠(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깟싸빠여, 바람의 요소가 올바른 법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법을 소멸시키는 자들은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프레온가스가 발견되고 사용되면서 인류는 그 가스의 열에 대한 안정성, 불연성, 금속에 대한 반부식성, 뛰어난 용해성, 전기 절연성, 저독성 등의 수많은 장점 때문에 20세기에 생산된 최고의 화학물질로 칭송해왔다. 이러한 특징은 반도체등의 정밀부품의 세정, 냉장고의 냉매, 플라스틱의 발포제, 분사제등의 다양한 분야에 인간의 편리를 위해 공헌하고 있다. 수요별로는 세제용이 47%, 발포제나 단열재가 24%, 냉매용이 18%, 에어러졸 등의 분사제용이 9% 등이다.

오존층 파괴

그러나 금세기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화학물질로 칭송되어 온 프레온가스가 오존층파괴의 주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프레온가스는 대류권내에서도 안정성이 뛰어나서 분해되지 않지만 대류권내에서 50~100년간 체류하다가 점차 상승해서 성층권하부의 오존층에 도달하게 된다.

오존층은 태양에서의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 지구상의 생명체를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오존층에 프레온가스가 도달하면 태양의 강력한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면서 염소원자를 분리하여 방출시킨다. 이 염소원자가 오존과 결합하여 오존을 소멸시킨다. 그런데 한 개의 염소원자가 오존분자와 만나면 산소원자를 하나 빼앗아 일산화염소가 되어 오존분자를 파괴하고, 일산화염소는 다시 산소원자를 만나면 산소원자를 빼앗겨 염소원자가 되는 방식으로 염소원자 1개도 10만개의 오존분자를 파괴시킨다.

현재 전세계의 프레온가스 생산 및 사용량을 보면, 국제적으로 89년 7월 규제가 된 양임에도 매년 약 1백10만톤 이상이고 서방선진국가가 77.5%를 차지한다. 1945년에서 1988년 까지의 지구 대기권의 프레온가스 체류량은 약 1500~2000만톤이나 된다. 이것이 모두 성층권에 도달할 경우 오존층의 가속적 파괴는 불보듯 뻔한 것이다.

오존층이 감소하면 성층권의 온도는 내려가고 대기권의 대순환에 영향을 주어 이상기후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오존층의 파괴는 대류권에 자외선을 유입시켜 산소분자와 반응하여 대류권내의 오존층을 발생시켜 무서운 온실효과를 유발시키는데도 기여한다.

오존층파괴의 보다 직접적인 피해는 인간에게 피부암발생의 증가율을 촉진시키고, 백내장 발생비율도 오존층 1% 파괴에 2만내지 5만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상의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농작물의 생산량감소, 해양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플랑크톤, 어류 등의 격감을 초래하기도 한다.

실제로 교래 서식지로 유명한 남미 고위도지방 인근해역에서는 오존층 파괴의 영향으로 프랑크톤이 줄고, 그것을 먹고 사는 새우가 줄어들어, 새우를 먹이로 하는 고래가 살 수 없게 되자 고래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87년도에 체결된 몬트리올협정은 이러한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프레온가스를 95년까지 50% 감축하고 97년까지 15%까지 감축하기로 했는데,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을 성실히 준수해서 오존층 파괴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불교대 교수〉

'95 신 행 캠 페 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금주의 주제 — 사찰 예절

불보살에 대한 믿음 · 예경 표시
초심자에 참배법 자세히 안내토록

초심자들은 대부분 "절에 가면 행동이 조심스러워 어떨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사찰이 갖는 분위기가 매우 정적이기 때문에 처음 절을 찾은 사람들은 은근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법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탑 앞에서의 몸가짐은 어떠해야 하는지등 사찰내에서의 일거수 일투족이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는 생각은 포교의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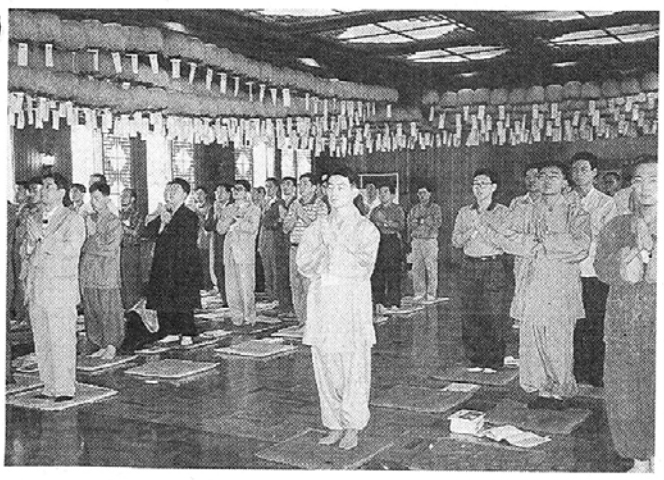
사찰은 조형물과 건물이 다양하고 각각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찾은 곳에 따라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더이상 심어줘서는 안된다. 다시말해 사찰은 누구나 편하게 찾아가 마음 놓고 기도하고 참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물론 건물과 탑이나 불상마다 특징이 있고 그에따른 올바른 예절과 법식이 있다. 문제는 그러한 예절과 법식을 거북하지 않게 몸에 익히는 것이다. 오랫동안 사찰을 다닌 불자들은 전각의 주불에 따라 기도법과 참배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사찰예절도 몸에 익숙해져 있다. 그런만큼 사찰을 처음 찾은 사람들에게도 상세하게 안내를 해야 한다.

초발심으로 절을 찾아온 사람에게 어색한 이미지를 주어서는 안될 일이다. 기존의 불자들이 사찰예절을 모범적으로 지켜 초심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사찰측에서 사무원이나 스님들이 상세하게 사찰예절을 안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사찰예절을 지켜야 한다. 사찰에서의 흐트러진 몸가짐은 가지런하지 못한 불심의 표현이다. '신심이 장하다'는 말과 '행동이 가지런하다'는 말이 같은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찰예절 지키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절도 있는 삶을 유지해 나가는 첫 걸음이다. 또한 제불보살님에 대한 믿음과 존경의 표현이 사찰예절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다양하게 출간된 사찰의 기본예절 관련 서적들을 통해 정확한 사찰예절을 익히는데서 참불자의 신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을 참배하고 예를 올리는 것은 비단 부처님만을 향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향한 참회나 수련으로 바른 삶을 살기위한 원력을 세우는 발원이기도 하다.

신행수첩

진면목을 어디서 찾을까
대구구도회 21일 관음정근

대개 대상을 향해 예로써 올리는 절은 9배가 한계다. 살아계신 분께는 1배, 돌아가신 분께는 2배, 스승에게는 3배, 국왕에게는 북향4배 그리고 옛날 중국 왕에게는 9배를 올린 것이 바로 그것.

108배, 540배등 9배가 넘어서면 절은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것이 된다. 즉 참회나 하심(下心)수련 혹은 원력기도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

대구 구도회에서는 10월 한달간 매일 540배 관음정근을 한데 이어 지난 6일부터 2차로 21일간 구도회 법당에서 관음정근을 하고 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법회는 부모미생전 진면목(父母未生前 眞面目)이 언제 어디서나 현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053) 654-8533

마애삼존불 미소를 따라
광주불교교육원 유적 답사

서산, 해미, 당진을 연결하는 교통요지인 서산군 운산면에서 남으로 6㎞쯤 들어가면 국보 84호로 지정된 마애삼존불이 있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넓은 사지에 귀한 지정문화재를 다섯점이나 보존하고 있는 보원사지가 나온다.

광주불교교육원이 오는 26일 서산마애불등 이 지방 불교유적지를 찾아 유적답사를 떠난다.

지방인들에게는 고란사로 더 잘 알려진 이 서산 마애삼존불은 이심전심으로 불법을 깨닫게 하는 염화시중의 신비한 미소가 불법의 깊이를 느끼게 한다.

또 보원사지에는 오층석탑, 석조, 당간지주 등이 있다. 특히 오층석탑은 보물 제104호로 통일신라시대의 조각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구름 위에 꿇어앉아 각기 지물(持物)을 잡고 있는 양쪽 손이나 얼굴의 표정, 몸을 덮고 있는 의문(衣文)이나 공중에 날리는 옷자락의 표현 등은 유려하기 이를데 없다.

중국불상 양식과 유사한 태안 마애불의 이색적인 삼존형태와 백제불상가운데 가장 오래됐다는 우리나라 최초의 백제 사방불인 예산 화전리 사면석불도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교통이 다소 불편한 것이 흠이나 찬란한 불교유적의 가치를 아는 이에게는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062) 228-9098

"아기부처님 건강해야죠"
본동복지관 소아 무료진료

갑자기 몰아닥친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고 건강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때가 바로 요즈음이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환절기를 맞아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아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오는 20일 실시될 이번 진료는 중대부속 용산병원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와 의학상담, 약조제 등을 해줄 예정이다.

(02) 817-8052

이웃사랑 나누는 바자회
관음포교원 17~19일

코끝을 스치는 찬바람이 어깨를 움츠리게 하는 계절이다.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겐 겨울을 재촉하는 이 찬기운이 더욱 사무치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관음문화포교원이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 일일찻집 및 바자회를 마련, 동체대비의 사랑을 나눔 기회를 제공한다.

관음포교원 개원 7주년 기념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본원에서 열린다. 일명스님(관음포교원장) 보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승찬스님(송광사 방장)의 법문도 들을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작은 사랑 큰 기쁨을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02) 863-9649

스님패션쇼 자비 넘쳐요
부산btn '불교의상 발표회'

스님이 무대위에서 직접 모델로 나선다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가사 장삼을 휘날리며 무대위를 리듬에 맞춰 사뿐히 걷는 스님들의 모습은 다분히 파격적이다.

불교텔레비전 부산지사는 12월14일 오후2시 부산KBS 공개홀에서 '스님모델'을 처음으로 볼 수 있는 '불교의상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다. 당일 행사에는 승복뿐 아니라 각 신행단체장들이 모델로 나서는 신도복 발표회도 겸해서 펼쳐진다.

이번 불교의상 발표회는 맹인, 뇌성마비, 간질환자 등이 모여사는 경남 거제 치자마을을 돕기 위하여 개최되기에 그 뜻 또한 여법하다.

따스한 승복을 걸친 스님과 세련된 신도복을 입은 신도들의 고운 발걸음이 겨울을 재촉하는 스산한 늦가을 비로 한껏 움츠러 있을 불우이웃들에게 잦아들기를….

(051) 645-5114

北수재민동포돕기 하루찻집
불교인권위 19일 녹수청산서…시낭송도

지난 여름에는 우리 민족 모두가 뜻하지 않은 수재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다.

기쁜 일로 남과 북이 뜻을 같이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항상 좋지 않은 사건이나 사안으로 인해 뜻을 같이하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한다.

불교인권위가 아직도 재난의 상처가 가시지 않았을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해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다원 녹수청산에서 일일찻집을 마련했다.

이번 일일찻집에는 청화, 지원, 해일, 진관등 승려시인들의 시낭송 시간도 마련돼 있으며, 수해를 당한 동포들을 돕는 것은 물론 이런 하나하나의 노력들이 쌓여 평화통일로 한발짝씩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많은 불자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해 '한핏줄, 하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통일의 염원을 전해보자. (02)734-6401

한일 과거청산 범국민운동에 우리 2천만 불자들이 앞장서 힘을 모아 줍시다

우리 겨레가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의 굴욕적인 삶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은 지도 어언 반세기가 지났지만,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분단의 시련과 우리 역사 속에 남아 있는 식민통치의 묵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웃 일본과 진정한 선린우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세계평화 유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묻혀진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꼭 해결해야 할 과거사를 실제적으로 청산하는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정립해야만 21세기의 밝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항시 민족의 운명과 함께 해온 2천만 불자들의 원력과 7천만 겨레가 힘을 모아 우리 민족의 기상을 다시 한번 선양합시다.

「한일과거청산」의 대작 불사는 비운에 가신 원혼들의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시대적 열망이며, 평화로운 불국토를 이룩하려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이십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과거 청산」 범국민운동 사업을 우리 세대에서 꼭 해결하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 주어야 합니다. 이 국민운동 사업이 해결되지 않는 한 비극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사회 각계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출범하여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범국민운동 사업을 우리 2천만 불자들이 앞장서 ▲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 민족사를 복원하고 ▲ 강제동원의 진상규명 ▲ 2차 세계대전 한민족 희생자의 유골을 수습 위령하는 등 한일간의 정리되지 않은 역사를 하루 빨리 청산, 미완의 광복을 평화통일로 승화시켜 선린과 우의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갑시다.



불자 여러분의 지극하신 정성과 원력으로 「한일 과거청산 범국민운동」이 진정한 민족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실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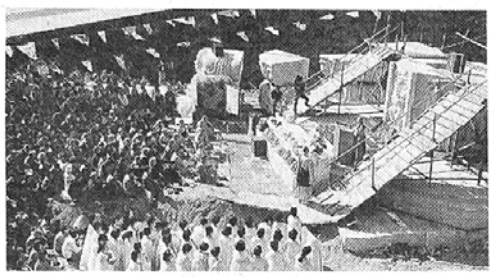
-은행 온라인 계좌번호 : 신한은행 **324-01-095800**
(예금주 : 윤문길)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503**호
전화 : (02) **725-2828 / 4866**
팩스 : (02) **725-3232**

지금까지 한일 과거청산 범국민운동본부에 정성어린 성금을 보내 주신 불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 과거청산 범국민운동본부

상 임 의 장 : 서돈각(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
집행위원장 : 김시현(대한불교 조계종 문화사회부장)



봉은사 미륵대불 복장성불 봉안식

서울 봉은사(주지 무상)는 지난 5일 미륵대불 하대 복장 성불 봉안식을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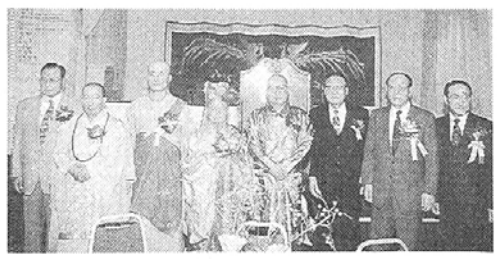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봉안식에서 불자들은 은제불상, 경전, 경관등을 미륵대불 하대에 봉안했다.

봉은사 미륵대불은 96년 1월 성도재일에 점안식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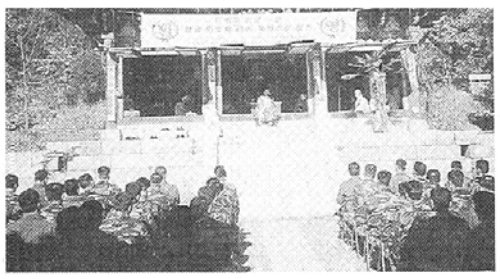
법륜종 2대 총무원장 혜우스님 취임식

법륜종은 지난 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2대 총무원장 혜우스님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태고종 전 종정 덕암스님, 태고종 전 총무원장 운제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본원종 총무원장 대화스님, 대만 만불사 상상스님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재범률 제로화운동 결의대법회

제2회 전국교정시설 교무과장 연수법회 및 재범률 제로화운동 결의대법회가 6~7일 이틀간 앰버서더호텔과 풍전호텔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대회장인 김명윤씨를 비롯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회장 혜철스님과 전국 교정시설 교무과장과 불교담당 스님과 신도 5백여명이 참석했다.



흥국사 티베트라마 캉규 림포체 초청법회

서울 구파발 흥국사(주지 홍선)는 지난 5일 티베트 환성 고승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한국을 방문한 티베트 고승 캉규 림포체의 법문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지역 군장병, 은석국민학교 학부형등 5백여명이 동참했다.

교차로

"승가기본교육 이수" 담화문



원산스님(조계종 교육원장)은 지난 1일 '승가기본교육 이수를 촉구하며' 제하의 담화문을 통해 "비구(니)계를 받으려는 사람은 종단지정 기본 교육기관을 이수해야만 하고 사미(니)는 반드시 만의 가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종단의 모든 스님들은 승려법 제26조에 의거해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교육법 제108조에 의거해 법계심사와 인사에 있어 불이익을 당한다"고 밝혔다.

부산 거사림회서 법문



증범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과교수)은 지난 14일 통도사 부산 포교원에서 열린 부산불교 거사림회 정기월례법회에 참석, 법문했다.

금강사 7불·53존불 점안



자우스님(금강사 주지)은 오는 21일 새로 건립한 제불보전에 인도에서 이운해 온 과거7불과 53존 불상을 봉안한다. 이날 점안식과 함께 1백일 특별예참 기도입재를 한다.

9층탑 진신사리 봉안법회



춘광스님(천태종 삼광사 주지)은 오는 20일 오전11시 삼광사에서 8각9층53불 대보탑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이운, 봉안 대법회를 개최한다.

불교 114개통 기념 하루찻집

정덕스님(자비의 전화 회장)은 오는 12월 2일 불교 114개통 및 5주년 자료집 발간기념 자비의전화 하루찻집을 녹수청산에서 연다.



'하늘의 빗장…' 출판 법회



동하스님(월간 불교세계 편집위원)은 오는 20일 오후 7시 부산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하늘의 빗장을 열고' 출판기념법회를 갖는다.

서예전시회서 지도강사



병오스님(독일 베를린보문사 주지)은 오는 30일까지 독일 피어 폴 케르큰데 박물관에서 열리고있는 서예전시회에 지도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베를린 한인회 문화부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국내 유명 서예가의 초대작과 현지 백림 서예회원들의 작품으로 마련됐다.

한·일 학술문화포럼 참석



송석구총장(동국대)은 오는 18일 일본 경도시국제교류회관에서 개최되는 한·일 학술문화포럼에 참석 축사한다.

주한 멕시코대사와 환담



곽정출의원(민자당 불교신도회 회장)은 지난 7일 세실리오 가자르 주한 멕시코대사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국제 범죄의…' 세미나



이황우회장(한국공안행정학회, 동국대 교수)은 지난 11일 동국관 L 306강의실에서 '국제 범죄의 실태와 대응'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신토불이 건강' 펴내



김윤세씨(인산죽염대표)는 민간요법 경험을 모은 〈김윤세의 신토불이 건강〉을 펴냈다. 한국일보에 연재한 글을 토대로 펴낸 이 책에서 김씨는 현대인의 질병은 공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해독법을 제시하고 있다. 오는 21일 오후 7시 한국일보사 대강당에서 출간기념 건강 강연회를 갖는다.

장유선원 개원



김용채씨(부산 황실예식장 대표)는 지난달 27일 경남 김해에 장유선원을 개원했다. 일주문 선방, 종각, 고시학당, 전시관 등을 건립 김해지역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가꿀 계획.

특별구족계 준비하는 성우스님



"지난 81년부터 단일계단이 시작됐는데 그 이전에 사미계를 수계받은 스님들중에는 오랜 기도 정진이나 해외 유학·포교·토굴정진 등의 이유로 구족계 수계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꽤 됩니다. 구족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종무상 여러가지로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에게 구족계 수계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지요."

종단화합 위해 최초 시행

대상스님 5백여명…"적극동참 했으면"

종단화합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특별구족계에 기회를 놓친 스님들이 많이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는 성우스님(조계종 계단위원회 간사)은 그 대상을 5백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종헌상 비구계를 받지 않은 스님은 예비승이라 하여 참종권이 없고 주지직에도 나아갈 수 없다.

성우스님은, 스님들중에는 은사는 사미인데 상좌는 비구인, 웃지못할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고, 비구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포살에도 참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서 보기에 난처한 경우가 많았다고 소개한다. 이번 기회에 그러한 불편함을 씻을 수 있게 됨을 기뻐하며 해당 스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재삼 강조했다.

〈숙〉

게시판

▲보문사 합창단 일본 공연=보문사 합창단이 일본 화원대학 초청으로 오는 22일 일본 현도빌관에서 '청산은 나를 보고'등을 공연한다. (02)953-0243

▲불교방송 옥아회 자선바자회=불교방송 옥아회는 불우청소년 장학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오는 27일 불교방송 6층에서 연다. (02)705-5242

▲간사 모집=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공동대표 설조·안동일)은 기구확대에 따라 사무국에서 일할 간사를 모집한다. (02)765-5448

▲포교대상 후보자 공모=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은 제7회 포교대상 후보자를 30일까지 공모한다. 추천대상은 포교 각 분야에 업적을 쌓은 스님 및 불자로 교구본사주지 또는 신행단체장 추천을 받아 접수. 시상은 12월 24일. (02)720-7060~4

▲체육대회=대한불교회는 오는 20일 오전9시 수원 원천유원지에서 회원들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키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0417)552-6983

▲소쩍새마을 자원봉사=불교간병인협회(회장 정진스님)는 오는 24일 소쩍새마을로 자원봉사를 간다. (02)725-4490

▲자비의 손길 한마당=명륜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현각스님)은 오는 23일 원주 치악예술회관서 '공옥진의 춤과이야기로 꾸며지는 손길한마당'을 갖는다. (0371)762-8131~2



"팜 스프링에 한국불교 토대 마련"

美 금강선원서 3년결사 들어간 청화스님

곡성 태안사 조실 청화스님(73)이 미국 팜 스프링 금강선원에서 3년 정진 결사에 들어갔다.

스님은 묵언으로 하루 한끼 식사와 장좌불와의 정진을 하고 있으며 내방객도 만나지 않는다. 스님의 건강상태는 매우 좋지만 약간 야위었다는 것이 현지의 소식이다. 92년 10월 카멜 삼보사 금강선원을 개원하며 미국 포교에 나선 스님은 11개 사찰선원을 순회 지도하는등 현지 교포들에게 정신적 스승으로 인식되고 있다.

3년 정진에 들어간 스님은 팜 스프링 일대를 한국불교의 수행과 학문연구의 토대로 가꾸고자 하는 발원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화 스님은 현지의 금강선원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 종교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원력을 피력했다.

탐 방

지혜의 등불가족

이웃돕기·봉사활동 '이타행'

동문들 주축으로 출발…각종 불교행사 인력 지원

'일손 모자라는 불교행사, 지혜의 횃불이 필요한 곳 있으면 우리를 불러주세요'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내건 '지혜의 등불 가족 모임'이 지난달 28일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그동안 함께 하기 어려웠던 회원들을 만나 가족같은 사랑을 나누고, 앞으로 궐처갈 불우한 이웃에 대한 지원 계획을 의논하기 위한 자리였다.

지혜의 등불은 당당한 인간관계로 가족적 분위기를 조성해 이 세상 어두운 곳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등불로 밝혀 보겠다는 원을 세우면서 1993년 2월 목탁소리를 울렸다.

이 모임은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어머니합창단을 이끈 정영자(불명·문수행) 보살의 불교대학 도반, 중·고등학교 동창 등 가까운 친구 60여명으로 시작해 이제는 3배가 넘는 1백80여명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지혜의 등불은 가족이 함께 도반이 되어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무료양로원 불우 청소년가장을 도와주는 등 이웃의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등 불역할을 소리없이 해 왔다. 뿐만 아니라 만등만화 행사, 원성스님 전시회, 승가대 김포학사 기공식 등 불교행사가 있고 일손이 모자라는 곳이 있으면 빠짐없이 동참을 한다.



◇지혜의 등불은 지난달 28일 63빌딩에서 가족모임을 갖고, 지혜의 횃불을 밝혔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행사장 안내, 음식준비, 행사진행을 도맡아 하는 등의 자원봉사활동도 이 모임의 빠뜨릴 수 없는 신행활동이다. 또한 회원들의 경조사에서 보여주는 이타행은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매주 금요일 전통다원 녹수청산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가족상호간의 불심과 우의를 다져나가는 지혜의 등불 회원들은 봉사활동과 더불어 회원배가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세상을 "나눠주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것이 회원들의 한결같은 바람인 까닭이다.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지혜의 등불은 회원들 뿐 아니라 보다 많은 불자들이 동참할 때 더욱 크고 밝게 빛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회장 정영자 보살은 배움과 나눔을 함께 할 이웃을 항상 기다린다고.

도필선 기자

'96학년도 원광대학교 교학대학원(야간) 전기 신입생 모집요강

1. **모집과정 :**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원불교학과 : 원불교학전공
   나. 동양종교학과 : 종교학전공, 불교학전공
3. **모집인원 :** ○○명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1995. 11. 9(목) ~ 11. 17(금) 17:00 : 본교 경리과
   나. 원서접수 : 1995. 11. 14(화) ~ 11. 17(금) 17:00 : 교학대학원 교학과
6. **전형일시 :** 1995. 11. 30(목) 14:00
7.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본대학원 소정서식) …… 1매
   나. 대학(교)졸업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각 1통
   ('65년도 이전 졸업자는 졸업증서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
8. **장학특전 :** 본교 동문, 종교 성직자, 국영기관의 공무원, 국공사립 교직원, 산업체 근무자로서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는 등록금의 20%를 감면하는 장학 혜택을 부여함

연구과정(야간)

1. **모집분야 :** 원불교학, 종교학, 불교학
2. **지원자격 :** 대학졸업 정도의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원서교부 및 접수 :** 석사과정과 동일함
4. **제출서류 :** ① 지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 ② 추천서 1부 /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5. **전형일시 :** 1995년 11월 30일(금) 15:00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한국사상과정(제6기)

1. **모집인원 :** 50명
2. **지원자격 :** 학력제한 없이 한국 전통사상과 종교에 관심있는 자
3. **원서교부 및 접수 :** 1996. 1. 15(월) ~ 24(수) 12:00
4. **제출서류 :** ① 지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② 명함판 사진 1매
5. **수업기간 및 시간 :** 1996년 3월 ~ 11월 매주 1회(화) 14:00 ~ 16:50
7. **강 사 진 :** 국내학계의 저명한 교수와 전문가로 구성

연락처 : 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교학대학원 ☎ (0653) 50-5341~3

참선의 힘 절로 느껴…생활선 지도

산문밖의 禪

공학박사 박희선 씨



"부처님 삶 열심히 흉내내는 것이 참선 지름길"
76세 나이 잊고 히말라야 無산소 등반 '보람'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평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 그 성공은 개인과 사회에 만족과 이익을 줄때 행복으로 이어진다. 동서와 고금을 걸쳐봐도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귀결은 무병, 장수와 안락인 것 같다.

참선노트 10여권

서울대 교수를 역임한 공학박사가 만76세의 고령에 히말라야산맥의 해발 6천4백76m 메라피크봉 등정에 성공했다. 그것도 한국인으로 최초이며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고 단 한명의 셀파만 동행한 최고령 등반자로 기록된 것이다. 그는 태극기를 꽂은 히말라야 정상에서 가장 먼저 결가부좌를 틀고 앉아 참선을 했다. 그리고는 "평소 참선을 공부해 건강을 다져온 덕분"이라며 "참선의 위력을 이번에 확증했다"고 자신있게 소감을 말했다.

이처럼 무병, 장수 게다가 인간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에 도전해 성취한 행복한 사람 박희선박사.

그가 참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69년 만50세 때다. 사실 그는 선의 철학이나 깨달음을 얻고자 시작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당시 실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다. 국내에서는 금속공학의 제일인자로 자처하는 서울대 교수가 일본에 박사학위 따러 갔다가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황당해할 즈음이다. 그때 신문광고에 난 '禪'이란 낱말을 보았고 그야말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선과 만났다. 95세의 경산(耕山)스님 문하에서 참선을 배웠고 정신과 육체에 큰 변화를 체험해 현실적인 어려움도 해결했다. 또 경춘(耕春)이라는 법명도 받았다. 이순(耳順)이 넘는 나이에 일본에서 참선을 통한 새 삶을 시작한 것이다.

일본유학 5년동안 학문으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참선으로 배웠다고 고백하는 그는 귀국하자마자 큰스님들을 찾아 구법에 나섰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통도사 극락암 경봉스님은 갑자기 그의 손을 끌어다 당신 손바닥으로 그의 손바닥을 찰싹 치시고 "이것이 선이야" 하고 미소지으셨다.

93세로 수덕사에 계신 혜암스님께서 서울에 오셨을 때 또 여쭈었다.

"자동차는 운전기사가 모는데 당신은 누가 모는가?" 혜암스님의 답이다.

'미이라 잡이가 미이라가 된다'고 했던가. 이후 그의 일상에서 참선을 빼고는 한가지도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참선을 빼고는 모든 일을 능률적으로 해낼 수 없었다고 강조한다.

과학자로서 그의 중요연구의 핵심은 거의 참선중에 성취되었다고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한다. 흔히 사람들이 직감 또는 영감이라고 부르는데 그는 바로 이 직감을 참선의 전매특허라고 주장한다.

직감. 그는 참선중에는 수없이 많은 직감을 받는다. 그래서 참선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노트와 펜을 옆에 준비한다는 것. 어떤 아이디어가 번개같이 뇌리에 번뜩일 때는 그 즉시 '참선노트'에 옮긴다. 이렇게 해서 쌓여진 그의 참선노트가 10여권이다.

"참선은 부처님 흉내를 열심히 내는 것"이라는 은사의 가르침을 새기며 살아온 그는 참선할 때 자세와 호흡을 특히 중요시 한다. 코와 배꼽을 일직선상에 놓고 결가부좌든 반가부좌든 두 무릎을 땅바닥에 닿게 하며 몸의 중심은 등뼈의 끝부분을 연결하는 정삼각형의 중심에 떨어지도록 자세를 조정한다. 호흡은 횟수를 감소시켜야 하는데 방법은 전신에 힘을 빼고 가늘고 길게하되 내뿜기를 천천히 하는 것이다. 이때가 가장 정신통일이 되는 상태이며 잠재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는데 따라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 가장 정확한 판단력이 생긴다고 설명한다.

그는 특히 참선호흡운동을 언제 어디서나 한다. 말그대로 행주좌와(行住坐臥) 항상 그렇게 숨쉬고 있다. 그래서 감기조차 걸리지 않았고 더구나 노이로제, 정신불안이나 고혈압으로 앓아본 바가 없다는 것.

'슈퍼아이큐' 개발

선의 세계는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말이 있다. 경문에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이며 이론보다는 체험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참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이들 중에는 선 체험의 세계는 논리를 초월한 세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 자칫 일반인들에게 선이란 열리지 않는 문과 같은 인상을 주기쉽다. 바로 이런 점을 해결하는 것이 '참선 과학자'인 그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참선의 경지인 무념무상, 즉 정신통일의 상태에 들면 능력이 탁월해지는데 이 경지에 도달하는 긴 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과학적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이 그의 화두였다. 그래서 짧은 인생을 건강을 유지하며 더욱 능률적으로 활동하여 위대한 업적을 후세에 남길 수 있는 참선을 보급하는 일에 몰두했다. 그리고 뇌파실험등을 통해 참선상태를 과학적으로 구명하는데 전념했다. 마침내 88년 전자파 방사를 이용해 인간의 뇌파를 참선상태로 변화하게 하는 '슈퍼아이큐'를 개발했다.

또한 7년전부터 자신의 집에 참선방을 내고 '수요회'를 열였다. 백여명의 회원이 수요일이면 모여 수련을 하고 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바로 화장실을 다녀오고 50분간 참선한다. 조반후 고문으로 있는 강남의 과학기술총연합회 사무실로 출근, 4시경 퇴근한다. 저녁에는 독서하고 집필한다. 인생을 바꿔놓고 젊음까지 되찾게 해준 참선에 고마워하면서….

위영란 기자



십화 · 이기선

돈의 노예가 된 '盧씨 묵비권'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⑩
전노(錢奴)

미증유(未曾有)라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 엄청난 일이란 말이고 경천동지의 일을 말한다. 미증유는 희유한 것이고 불가사의한 것이다. 사람이 놀라고 하늘이 놀라는 일이다.

사람은 신피질이 발달하여 구피질만 있는 원인원과는 판이한 차이가 있다. 신피질은 사고나 기억, 추리와 논리를 구조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구피질은 경험적 반복행위는 할 수 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월등한 차이가 있음은 바로 신피질의 뇌운동에 비롯하는 것이다. 아메바는 신경세포만 있고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등은 구피질적 뇌로 된 원인원에 이른다. 이 원인원에서 더욱 진화하면 인간이 되는데 여기에 신피질적 대뇌, 소뇌, 간뇌 등 일체의 뇌세포가 발전되어 사고, 추리, 판단, 기억, 후회, 시비 등을 가립하는 의식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물음에 대하여 「모른다」「기억이 없다」「말할 수 없다」라는 세가지의 대답을 하였다면 한번 생각하여 보아야 한다.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 때는 행위에 있어서 무경험일 때나 아니면 무지의 상태에 있으면 그것은 확실하게 「모른다」고 말하여야 한다. 상식적이고 보통사람이라면 「모른다」는 말을 쓰면 거짓이 된다.

어떤 행위는 하였는데 행위를 처음에서 끝까지 순순히 회억할 수 없는 상태를 「기억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재생시키어 명확하게 발로하는 논리가 미거한 상태를 말할 것이다. 이중성의 의식이 발동하면 기억을 숨길 수 있다. 드러내어야 한다는 생각과 숨겨두자는 생각이 활동할 때 숨겨두자, 가만히 있자, 덮어두자 등의 염력을 굳히면 드러내는 생각이 죽어버린다. 이 모두가 염력의 작용이다. 과거를 들추어 내는 생각보다 지금을 복장시켜보자는 의식이 발전하면 「기억이 없다」고 말이 불거져터져 나온다. 막가는 말인지 모르겠다.

비리·뇌물 통치자는 진실 말해야

「말할 수 없다」 이 말은 육진동보다 무서운 말이다. 자신의 행위를 자인하고 있지만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행위의 부당성을 은폐하기 위하여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말할 수 없다」 여기에는 행위에 대한 선악을 감지하고 있는 것이며, 행위의 경험성이 선재하여 있어도 일관 부인하는 의지로서 「말할 수 없다」고 강변하고 침묵한 것이다.

이런 글은 참으로 쓰기 싫은 글이다. 통치권자라 자처한 사람, 보통사람, 믿어주세요 라고 상습적으로 뇌이던 사람이 통치자금으로 5천억을 조성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하여 썼다고 눈물을 떨구면서 고백한 사람이 비자금의 용도에 대하여, 검찰의 날카로운 심문에 난데없이 「모른다」「기억이 없다」「말할 수 없다」라고 답하였다고 하니 우리들도 망각증이 올까 겁이 난다.

천문학적인 수치, 온 국민이 경악하는 분노, 세계가 손가락질 하는 사건, 정말 전대미문의 미증유한 비자금.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긁어 모으려고 하였을까. 그리고 모을 때와 모으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 시작하는 생각과 마친 일에 대한 사람이 다른 사람인가. 어떻게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심문과정에서는 일관성 있는 논리적 응대를 하였는가. 「모른다」「기억이 없다」「말할 수 없다」 이것은 교묘한 부정의 논리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렇게 답하면 좋지 않을까. 「안다」「생생하다」「말 다 했다」 얼마나 분명한가. 과거의 일을 생생하게 다 알아서 말 다 할 수 있는 정말 보통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연극하고 있다는 눈총을 받고 있으니 답답하다.

우리는 왜 이다지도 박복한가. 굴경스럽고 역사가 섬기는 대통령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는 민국.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우리는 恨의 민족인가. 증오와 분노, 원한만 가득찬 민족인가. 어떻게 보통사람임을 주장하던 대통령이 「모른다」「기억이 없다」「말할 수 없다」만 되풀이 하는 비자금, 비리, 뇌물, 특혜의 통치자를 또 가슴팍에 원한(怨恨)의 비명을 세워 증오의 푸른불을 흩날려야만 하는가.

財團法人 韓國 佛教 法輪宗 第二世 宗正 推戴法會 案內

宗 正 法 語

濁淸染淨無差別　憎愛美麤豈思量
生滅本非眞面目　遠離塵境意堂堂

맑고흐림 본바탕이 차별없는 한자린데
밉다곱다 좋고나쁨 굳이따져 무엇하랴
나고죽고 하는것이 본래면목 아닐진댄
분별심을 여읜자리 일체경계 통하리라

歸依三寶하옵고,
佛日이 增輝하고 法輪이 常轉하여 佛國土 建設에 다시없는 거룩한 機會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부대중의 所營佛事가 하루速히 無障成就하시기를 仰祝하나이다.
就悚 오는 二十日은 우리 宗團의 第二世 宗正猊下 釋一華大宗師의 推戴法會를 奉行하는 날입니다.
多事多忙하실줄 번연히 헤아리면서도 廉恥不顧하고 이에 招請하오니 자라나는 宗團을 더욱 잘 자랄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시는 敦厚하신 配慮下에 掃萬枉臨하시와 자리를 빛내 주시옵기 懇望하나이다.

● 日　時 : 佛紀 2539年 11月 20日(月) 11時
● 場　所 : 江南 리베라 호텔 대연회장
● 問議處 : 총 무 원 (02)733-4445~6
　　리베라호텔 (02)541-3111

財團法人 韓國佛教法輪宗 第二世 宗正 推戴式 奉行委員會

奉行委員長
總務院長　釋　慧　牛　合掌

불교 모르면 한국종교사 서술 한계

종교학회 학술발표회 편년체 나열 탈피, 인력·연구영역 확대 '한 목소리'

한국사학자들은 불교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한국사, 특히 한국 고대·중세사를 서술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역사학적 측면에서의 불교사 관련 연구는 상당 부분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며, 불교사학자들의 전문적인 연구활동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한국불교사를 비롯한 종교사의 연구수준이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종교사 관련 1차자료의 미비와 연구방법론의 부재가 종교사학계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와관련 지난 4일 이화여대서 열린 한국종교학회(회장 길희성)의 '한국종교사 어떻게 쓸 것인가' 주제의 학술발표회는 한국불교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방법론적 체계를 가지고 쓰여져야 할 지에 대한 적절한 토론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이흠교수


◇이은봉교수


◇윤원철교수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 윤이흠교수는 "종교사학계는 지금까지 정치사연구의 부산물로 취급돼 온 종교·문화자료들을 편년체(編年體)로 나열하는 작업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한국종교사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연구를 위해 방법론의 재정비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그는 "믿음이라는 심리상태와 역사적 요인(교리)이 합해진 종교현상의 역동적인 전개과정을 설명하는 작업이 종교통사(通史)"라고 주장했다.

윤교수는 한국종교사 분야의 통사가 활발하게 연구되지 못한 원인으로 △국사학이 정치사에 비중을 둠으로서 한국종교·문화사 분야가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점과 △종교사분야의 전문연구인력의 부족 등을 들었다.

이어 '한국 禪학에 있어서 종교현상의 역동적인 전개과정을 설명하는 작업이 종교통사(通史)'라고 주장했다.

윤교수는 한국종교사 분야의 통사가 활발하게 연구되지 못한 원인으로 △국사학이 정치사에 비중을 둠으로서 한국종교·문화사 분야가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점과 △종교사분야의 전문연구인력의 부족 등을 들었다.

이어 '한국 禪학에 있어서 방법론적 성찰의 부재에 대한 단상(斷想)'을 발표한 서울대 윤원철교수는 종교사를 포함한 종교연구의 방법론적 성찰과 관련, "제도화된 학문분야라면 공유된 방법론적 성찰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불교학계의 방법론적 논의의 부재를 꼬집었다.

윤교수는 또 지난 90년 보조사상연구원 학술회의에서 촉발된 '돈점(頓漸)논쟁'과 관련, "종교적 신념에 입각한 종교인의 자기 종교 이해와 세속 학문적 시각에서의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는 종교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론적 주제의 하나로 논의돼 왔다"며 "종교적 권위와 학술적 권위가 근본적으로 별개라는 원칙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덕성여대 이은봉교수는 '해방후 한국종교 연구의 흐름과 관심'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각 종교전통별 연구사와 연구방향을 비교하면서 개선점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인력을 활용, 종교연구사의 흐름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논의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영역을 확대하면 한국종교의 본질에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조선초기 불교 조정비호 받았다"

억불숭유정책에도 '외억내호'…이종찬교수 밝혀

조선초기의 억불정책에도 불구, 불교문화는 조정의 외억내호(外抑內護)적 비호로 나름의 위상을 유지했다.

한국불교문학사연구회 회장인 이종찬교수(동국대)는 지난 10일 동국대서 열린 '조선초 불가문학의 동향과 의미'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이같은 주장을 폈다.

이교수는 '조선초 억불숭유론과 불가문학: 효친순사(孝親順師)의 미래제시'란 논문을 통해 "조선초기의 숭유억불정책은 배불이나 훼불로까지 치닫는 극한적인 대립을 초래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태조는 즉위 4년에 고려 왕씨를 위한 전답 1백50결을 남해의 견암사에 내려주고 매년 2월 10일에 수륙재를 시행토록 하는등 덕치의 밑뿌리에 불교적 자비를 은연중에 담고있었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고려와 조선에서 충신·효자(忠臣孝子)'로 추앙 받았던 원진(元鎭)국사의 행적기 〈호불사 창건주 원진국사 전말사적〉을 중심으로 조선초 통치자들의 외억내호적 불교비호를 조명했다.

원진스님은 고려~조선의 왕조변혁기에 탈속-환속-탈속의 수도 정진을 통해 조선조 스님의 고뇌를 전형적으로 보여준 인물.

또 스님의 사적기가 갖는 문학사적 위치는 조선조 불교설화 내지 소설적 모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이교수는 덧붙였다.

"불교경제 생산보다 분배 중시"

김안호교수 주장

부처님 당시 불교경제관의 기본정신은 어떠했으며, 그것의 현대적 의의는 무엇인가. 이런 의문에서 불교와 경제와의 관계를 고찰한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조선대 김안호교수는 최근 조선대 〈학생생활연구소 연구지〉에 발표한 '불교와 경제에 관한 고찰'이란 논문을 통해 "불교의 경제윤리는 분배와 보시를 강조한다"면서 "부처님은 '만드는' 도덕보다는 '나누는' 도덕을 중요시 했고, 부의 재분배원칙으로 4분법을 가르쳤다"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나누는' 경제윤리는 오늘날 노사관계나 임금문제 등의 현대 경제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부처님은 정당한 경제활동으로 획득한 이익은 4분해서 △의식주등의 생활비와 △다음의 경제활동을 위한 회전자금 △저축과 고용인을 위한 급여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베풀어 주라고 가르쳤다는 설명이다.

한국고고학 반세기 조명

한국고고학회(회장 김병모)는 지난 3,4일 서울대에서 '한국고고학의 반세기'를 주제로 제19회 고고학전국대회를 열었다. 경성대 신경철교수의 '와질토기 문화론'등 8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싱가포르 종교상황 수록

'종교연구 11집' 발간

한국종교학회(회장 길희성)는 최근 김용표씨(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상임연구원)의 '선불교와 하시딕(Hasidic) 신비주의에 있어서 궁극적 만남의 의미', 김성건교수(서원대)의 '싱가폴의 종교상황'등 16편의 논문을 수록한 〈종교연구〉 제11집을 발간했다.

◇기사넘쳐 '한국 사찰의 주련' 쉽니다.


◇미얀마 페근市의 '짜익푼 파고다(탑)'. 높이 20m의 사방불이 자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얀마, 남방불교 원형 잘 보존"

윤열수씨 불상등 현지사진 4천5백장 공개

동남아 불교미술을 조명한 학술발표회가 열렸다. 민학회(회장 심우성)는 지난 4일 문화재관리국대강당에서 '남방불교미술의 현황-미얀마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난 3월부터 6개월동안 미얀마를 현지답사 했던 윤열수 가천박물관 학예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인도에서 들어온 남방불교가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현장에서 촬영한 슬라이드 사진 4천5백여컷을 공개했다.

윤실장은 "미얀마의 석탑 불상 사원등은 남방불교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한국이 석탑, 일본이 목탑, 중국이 전탑(塼塔)이 많은데 비해 석재와 塼을 혼용한 탑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 북쪽 친드린강 부근 포윈이라는 산에 있는 3만3천3백여개의 석굴로 이뤄진 11세기의 대사원을 조사, 불상 3천9백80여기와 석굴 9백48개에 대한 실측조사와 촬영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인공 믿는법을 구체적으로…

문 본란을 통해서 스님의 '주인공 법문'을 늘 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스님 말씀처럼 "주인공을 믿으면 된다"는 것이 잘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안예문·전북 군산시 소룡동〉

답 주인공이란 생명의 근본, 마음 내는 것, 이 육신 움직이는 도리를 통칭한 것입니다. 학생이 나름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고정된 그 무엇, 내놓을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주인공을 믿어라 하니까 어떤 분들은 무턱대고 '주인공이 알아서 하라'거나 '주인공 해주시오'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건 맹목적인 것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지혜롭지도 못하지요.

'놓으라' 하니까 '그래 놓았다' 하든가 '끊으라' 하니까 '끊어야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체만물은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고 용도에 따라 찰나찰나 나투는데 무엇보다 그 점을 알기에 어느 때를 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찰나로 도는 근본 이치에 일임하라는 것이지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나 자기 살림살이 돌아가는 모습이나 다같이 업보성·유전성·영계성… 등이 뒤얽혀 있질 않습니까? 그것을 '나'라고 고집하는 그 존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아버지 노릇 할 때는 아버지로서, 남편 노릇 할 때는 남편으로서 주인공에 일임하라는 것이지요. 하인이 주인에게 맡기면 주인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런데 하인이 주인에게 무조건 알아서 하라고 팔짱끼고 있는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하고 용도에 따라 묻는단 말씀입니다. 관청에 빈 서류 디밀어 놓고 허가해 주시오 하질 않고 이런저런 조건에 이런저런 일 하고자 하니 허가해 주시오 하지요. 비유하자면 그와 같습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영혼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까

문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영혼의 존재에 대해 여쭈었더니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고 오직 마음만을 강조하신줄 압니다만 평소에 윤회니 업보니 하는 말을 듣다보면 은연중에 영혼의 존재를 믿고 말하는 셈이 됩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장동윤·서울 은평구 대조동〉

답 대답하지 않으신 것과 부정과는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독화살의 비유를 통해서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고(苦)로부터 해탈하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독화살을 맞은 사람에겐 빨리 그 화살을 뽑는게 중요하지 그 화살은 누가 만들었고 누가 쏘았는지 먼저 알고자 하는 것은 쓸데 없는 짓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영혼도 이름이고 마음도 이름입니다.

또 영혼이다 마음이다 둘로 볼게 아닙니다. 동시에 작용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근본에 대해 말할 때는 몰라도 그 밖에는 영혼이라고 해도 좋고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업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윤회다 업보다 하는게 다 그런 작용이지요.

영혼을 실재로 알아서는 안됩니다.

꿈이란 번뇌망상의 현상인지요

문 꿈을 자주 꾼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꾸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꿈을 안 꾼다는 사람은 잠자는 동안 번뇌망상을 쉬고 순수한 마음 경지에 드는 것입니까?

〈이종윤·경기 부천시 원미구〉

답 우화를 하나 말해 드리지요.

어떤 사람이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간밤에 소쿠리 하나를 줍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몽해 주시지요.' 그러자 노승왈, '너, 오늘 잔치에 초대받아서 배불리 대접 받겠구나' 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은 뜻밖에도 초대를 받아 진수성찬을 즐기게 되었더랍니다.

그러자 한 젊은이가 이 일을 기억했다가 어느날 노승에게 꾸지도 않은 소쿠리 꿈을 꾸었노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승의 해몽인즉, '너는 오늘 중에 뭇매를 맞게되니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꾸지도 않은 꿈이라 속으로 비웃고 말았는데 정말 그날 저녁 나절에 동네청년들로부터 뭇매를 맞게 되었더랍니다.

그 젊은이는 너무 억울해서 노승에게 꾸지도 않은 꿈얘기인데 어째서 맞아 떨어지느냐고 푸념을 해댔습니다. 노승왈, "얘야, 네가 꾸지도 않은 꿈을 꾸었노라고 말하리라 생각한게 바로 꿈이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시에 이런저런 생각하는 것도 다 꿈이니 꿈을 잘 꾸어야 하겠지요.

잠자는 동안에 꾼 꿈도 해몽을 잘 해서 돌려 놓으면 먼저 입력된 것을 지우는 것이 됩니다.

아무튼 자면서 꾸는 꿈도 꿈이요 눈 뜨고 생각 짓는 것도 꿈이니 구별할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다 꿈인줄을 아는 것이지요.

잠잘 때 꿈 안꾸고 잤으니 번뇌망상이 쉬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럼 눈 뜨고 꾼 꿈은 어쩌시렵니까? 눈 뜨고도 꿈 안꾸자고, 꿈인줄 알자고 마음공부 하는 것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96학년도 (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불교대학원 (야간) ☎260-3097~8

1.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학위·연구과정
   가. 불교학과 : 불교·선학 나. 불교사학과 : 불교사·예술사 다. 불교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포교학
2. 원서교부 및 접수 : 1995년 11월1일(수)~11월13일(월)
3. 전형일시 및 방법 : 1995년 11월16일(목)14:00
   가. 석사과정 : 영어, 전공, 면접 나. 연구과정 : 서류전형, 면접

■ 관리자과정(야간) ■

1. 지원자격 : 조계총의 대덕법계 품수 승려, 각 종단의 간부, 각 신행단체의 간부 및 대표, 포교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
2. 원서교부 및 접수 : 석사과정과 동일
3. 전형일시 및 방법 : 1995년 11월17일(금)13:00 서류전형, 면접

교육대학원 (야간) ☎260-3109~10

1. 모집과정 : 석사학위 및 연구과정
   가. 교육학과 : 교육행정·교육경영·상담교육·유아교육 전공
   나. 교과교육학과 : 국어·지리·역사·수학·윤리·철학·미술·한문·체육·영어·물리·화학·생물·가정·전자계산·종교·중국어 교육 전공
2. 원서교부 및 접수 : 1995년 11월13일(월)~11월24일(금)
3. 전형일시 : 1995년 12월2(토) 14:00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및 전공구술 시험
5. 특전
   가. 교육기관의 교사, 정부행정기관 재직자는 경력을 감안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평점시 가산점 부여
   나. 장학금 지급내규에 의하여 공사립 교육기관의 교사, 또는 공무원으로 재직중인자, 초계종 재직승려등은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문화예술대학원 (야간) ☎260-3606~7

1. 모집과정및 전공 : 석사학위 과정 및 연구과정
   가. 문예창작학과 : 문예창작 나. 연극영화학과 : 공연예술, 영상예술
   다. 불교예술문화학과 : 불교미술, 불교음악, 문화재 마. 건축문화학과 : 건축디자인
   라. 환경예술학과 : 환경예술
2. 원서교부 및 접수 : 1995년 11월6일(월)~11월17일(금)
3. 전형일시 및 장소 : 1995년 11월25일(토)10:00 동국관 본 대학원
4. 전형방법
   가.석사과정 : 필기시험(논술)및 면접 나. 연구과정 : 서류전형 및 면접
5. 특전 : 해외자매대학등의 연수에 참가할 기회있으며 각종 장학금 제도있음

■ 문화예술인과정 ■

1. 지원자격 : 정부 각 기관의 과장급이상 공무원, 본사 주지급인사, 언론·문화·예술 및 유관기관의 임원, 기업체임원,사회지도급 인사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2. 원서교부및 접수·전형일시및 방법 : 연구과정과 동일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동국대학교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그리움

무덥던 그 여름도 가고
가을 들녘
바람결에 흔들리는
코스모스의 청초한 멋스러움!
고운 자태의 터질 것 같은 그리움이
아픈 사연으로 속세를 방황하는
목마른 독경 소리 되어
홀로 아픈 가슴 물고
소슬한
바람은 가슴 속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아리도록 짙어드는 목탁소리
기다림의 끝벼랑에 서서
외로운 고독으로 나를 감싸안을 때
그리움으로
떠오르는 정겨운 얼굴은
나의 빈가슴으로 채워질 때
어느새 가슴 한 구석
가만히 새겨지는 그림을 하나
사랑하는 마음 만나고 싶은 마음
이자임 결혼 연구원으로…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농협온라인구좌 : 112-01-021221 예금주 이 영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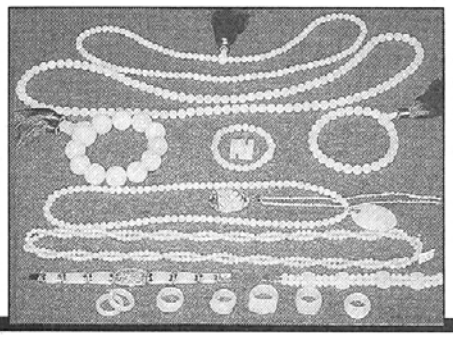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춘천백옥의 신비 를 아십니까?

신기하게도 신경통 고혈압 당뇨 수전증 두통 불면증 등 성인병을 치유하고 건강한 자의 머리는 맑아지며 의식 집중력과 판단력 증대, 피로감 감소, 놀라운 컨디션으로 기쁨과 기도에 좋습니다.

眞氣



* 氣방석 등 생활용품 다양
*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강원대표 두충·불면에 「효험」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8.8% 심장질환사 100% 리올림병 98.8% 여지러움증 98.8% 목통 88.8% 고혈압 77.8% 관절염 87% 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누통, 불면증, 불안, 혼미지된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춘천연옥제품을 착용시켜 임상실험 결과 옥반지 84% 옥목걸이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T. 02-737-8881
F. 02-737-0697

부산지사
T. 051-634-5114
F. 051-634-5188

광주지사
T. 062-375-9986
F. 062-371-7544

대구지사
T. 053-427-8008
F. 053-425-8356

목포보급소
T. 0631-281-2534

공주보급소
T. 0416-55-0020

"2천만에 깨달음을"

"한국불교 미래상 제시에 역점"

창립 5주년 맞는 선우도량 대표 도법 스님

바람직한 수행자상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스님. 승단에 대한 투철한 문제의식과 책임감으로 당당하게 비판할 줄 아는 스님. 지난 5년간 승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선우도량의 창립 5주년에 즈음해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쉼없는 고민으로 선우도량을 이끌어온 도법스님을 만났다.

현재 실상사 주지소임을 맡아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스님은 한국불교 선종가람으로서의 위상복원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



수 요 인터뷰

중단없는 종단 개혁 필요

-선우도량이 14일 창립 5주년을 맞습니다. 선우도량의 산파역을 맡았고 오늘까지 대표직을 수행해 오셨는데 선우도량의 위상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제가 평가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긴 하지만… 선우도량이 고민해온 문제는 선우도량만의 고민이 아닌 우리 자신과 교단의 문제였습니다. 선우도량은 이런 문제를 불교적·수행적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기성세대와 젊은세대의 가교역할을 시도해 왔습니다. 솔직히 여타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불교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그 방향을 모색해 온 것도 사실이구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바람직한 승가상 정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스님께서는 지난 8차 수련결사에서도 종단의 중단없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개혁종단이 출범한지 1년이 된 지금 현 종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종단이 걸어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요.

▲지난해 마련된 종헌종법이 현실에 맞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있어요. 특히 사찰운영이나 재정공개, 분담금 현실화등의 문제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종단의 모든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총무원과 종회, 본·말사 주지스님들의 의식개혁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종단의 공인입니다. 따라서 공인에 맞는 공적 사고와 책임감,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종회도 종권과 상호 이해득실 보다는 한국불교의 전체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선우도량이 지난해 조계종 개혁을 이끌어 내는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동안 선우도량이 종단외적인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회를 떠난 종교는 생각할 수 없어요. 다만 사회참여는 교단이 자기사상에 투철하고 그래서 사회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며 설득력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여건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교단이 안정되고 모든 여건이 좋아지면 당연히 사회문제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한시적 기구인 승가교육개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스님께서 추진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승가교육개혁위원회의 승단내에서의 활동방향과 바람직한 승가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승가교육개혁위원회는 기초·기본교육의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요. 또한 상설도량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행자교육에도 전력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방과 중앙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전국에 학림개설을 위한 토대를 다질 생각입니다. 승려교육은 현시대의 사상과 정신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전인적 인격형성이야말로 승려교육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지요.

-실상사에 전문교육기관인 화엄학림이 개원됐습니다. 화엄학림의 개원이 교단에서 갖는 의미와 역할 그리고 또 다른 학림개원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찰마다 독특한 가풍을

▲화엄학림은 하나의 경전을 전문적으로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종단내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대적 세계관의 이론정립을 통해 한국불교의 다양성과 개성을 살리는 단초가 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학림은 여러곳에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통도사의 경우 계율전문학림이나 송광사의 경우 선어록학림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이렇게 각 지역 사찰마다 독특한 가풍을 형성하고 전통을 이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창립 5주년 기념법회에서는 한국불교 근현대사연구회의 〈신문으로 본 한국불교 근현대사〉 출판 기념회도 함께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근현대사연구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신문으로 본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출판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 한국불교는 조선조 5백년과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이 왜곡돼 왔어요. 한국불교 근현대사연구회는 구체적 근거에 의해 부정적인 면은 극복하고 긍정적인 면은 발전시켜 나가면서 불교역사를 바로잡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신문으로 본 한국불교 근현대사〉도 이런 측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디로 가야하는 지를 보여주는 단초역할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책은 조계종이 자기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실상사 주지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실상사가 복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실상사가 선우도량의 근본도량인만큼 우선 실상사 백장암을 중심으로 한 한국불교 선원모델과 화엄학림을 통한 경전연구 및 수행모델을 창출하는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물론 지역민과 고민도 함께 하는 가교역할도 할 것이구요. 또 9산선문의 최초 가람인만큼 초기 선종가람의 면모를 복원해 국민의 정신적 의지처로 만들 계획입니다.

약 력

- 1949년 제주도 한림출생
- 1965년 월주스님을 은사로 출가
- 1984년 금산사 화엄학림 주학
- 1990년 선우도량 상임대표
- 현 선우도량 공동대표 및 실상사 주지

"승가상 정립·불교사 바로쓰기 등 할일 산적"

실상산문 오늘의 수행근본 가람으로 복원 과제

한명우 기자

나의 수행일기

하재웅 〈대구교사불자회장〉·上



아내 전도 역효과 '어쩔 수 없는 불자' 확인

대구 구도회 기초교리 수강 재발심 계기

나는 할머니의 대를 이어 지성으로 절에 다니시던 어머니와 엄격한 유가이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런 아버지였으나 일년에 너 댓번 어머니의 불공길엔 일꾼들을 시켜 공양물을 져다주는 배려를 잊지 않으셨다. 그러고보니 어쩌다 어머니 따라 절에 가는 날이면 해방감을 만끽하게 되고, 그 넉넉하고 따사로운 분위기가 어린 내 마음에 깊이 자리잡게 되었나 보다.

그러던 차에 광복이 되고 그 혼란기에 봉화땅을 따라 영주땅 순흥에 이사를 했는데 그 마을에는 빨치산의 등살에 산속에서 피난나온 석륜사란 절이 터를 잡게되어 가끔 그 절에 가서 노는 것이 큰 기쁨이었다. 그 때 절에서 배운 찬불가를 집에서 부르다가 아버지께 호되게 종아리를 맞은 적도 있다. 아마 아버지는 절이란 부녀자들이나 가는 곳으로 생각하셨나 보다.

이렇게 유 소년기를 보낸 후 안동에서 사범학교를 다니던 때 서악사란 절에서 1년여 동안 하숙을 하면서 생활한 적이 있다. 이때에 서울 조계사에 본부를 둔 룸비니 학생회와 인연이 닿아 안동사범학교에 처음으로 불교 학생회를 조직하고 학교 근처 대원사에서 법회를 가졌으나 그 당시는 지방의 열악한 여건으로 제대로 되질 않았다. 그러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교직에 나가 10년 가까이 특별히 불교와 접할 기회도 없이 지내다가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와 만나 결혼에 이르렀다.



아내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가 정신적으로 위안과 은혜를 깊이 느끼며 성장해 온 독실한 기독교신자였다. 우리의 종교문제는 사귈 때부터 서로가 알고 있었으나, 나는 나대로 막연하게나마 불교로 개종시키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었고 아내는 아내대로 나를 반드시 기독교로 개종시킬 결심을 하고 결혼했다고 한다.

그러고보니 결혼 초기부터 아내의 전도 노력은 적극적이었다. 아내의 권유로 부흥회도 여러번 참석해 보고 일요일 예배에도 참석하곤 했다. 그때마다 너무나 감성적이고 선동적이며 강요적인 선교방법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기는 커녕 오히려 다 시든 줄만 알았던 불교에 대한 열성을 북돋우는 계기가 되곤 하는 것을 느끼며 '나는 어쩔 수 없는 불교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교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도 없이 10여년을 갈등속에서 엉거주춤한 신앙생활을 했다.

대구시로 전근을 한 이듬해인 1982년 2월 매일신문 한구석에 조그맣게 실린 '한국불교연구원 대구구도회 주최 제13회 불교기초과정강좌'가 개최된다는 기사가 내게는 1면 머릿기사보다 더 크게 확대되어 다가왔다. 참으로 기막힌 발견이었다. 진실한 의미에서의 나의 불교입문은 이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나의 불교는 인습에 의한 막연한 믿음이었다면 이때부터의 나의 불교는 보리심을 향한 바른 믿음과 이해와 실천이 같이 하는 수행이었기 때문이다.

열일 제치고 당시 강의장이었던 대성예식장을 찾았다. 접수를 마치고 난생 처음 이기영 박사의 불교개론 강의를 들었다. 첫시간부터 매료되기 시작한 나는 일주일간의 강좌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사찰에서 정기적인 대중법회가 일반화 되었지만 '한국불교연구원'이 발족할 당시는 아주 드문 일이었다. 특히 1주일간의 기간동안 일반 시민을 위한 기초과정강좌는 거의 찾아 볼수 없는 상황에서 구도회의 기초강좌는 참으로 인기있는 법석이었다.

강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니 대구구도회의 정기 야외법회를 현풍 유가사와 도성암에서 개최한다는 엽서가 왔다. 그때 유가사에는 서운스님이 주석하고 계셨는데 '초전법륜'에 대한 법문을 인상깊게 들었고, 도성암 좋은 터에서 입정을 하며 구도인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

구도회에 입문하여 기쁜 마음으로 1년간을 따라다니다 보니 연말 총회에서 내게 일반부의 총무라는 소임이 맡겨졌다. 당황도 하고 사양도 해봤지만 열심히 심부름을 했다. 88년부터는 6년간 회장직을 맡아 수행하다가, 94년 2월에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지금은 평회원으로 참여하면서 대구·경북지역 선생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이렇게 구도회에 몸담고 10여년을 생활하다보니 생각이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대중불교는 옳지못한 것을 가려내는데 그치지 않고 바른것을 더욱 바르게 펴는 일을 함께 합니다.



월간 대중불교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재)대원정사

〈대중불교〉를 만나고서야 나는 마침내 말씀의 꿈틀이는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곧은소리
불기의 잣대는 언제나 부처님 마음입니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대중불교〉는 그 잣대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시사, 쇠북소리, 귀담아듣고 새겨볼 이야기, 연중기획, 특별기획 …

깊은 풀이
해석이 없는 경전은 없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옛것을 옛것으로 놔두지 않고 현실로 끌어와 오늘을 움직이게 합니다.
수행칼럼, 세계의 선지식, 에세이 보살불교, 불교교리 산책, 법당이야기, 불교와 민속, 얼과 문화, 페사지를 찾아서 …

넓은 만남
경전이 인도하는 길은 언제나 곧장 부처를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불교방송교재 경전강의, 교리강좌, 불교 영어 한마디

대중불교
정기구독문의:전화(02)773-5731, 752-7047, 754-1614
팩시밀리(02)771-6796

밀교학의 근원과 최신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밀교학 입문서

밀교, 그 위대한 가르침을 읽는다

B.밧따짜리야 지음
장익 옮김

밀교학입문

밀교의 근원, 특히 인도교 탄트라와 불교 탄트라를 비교분석해 놓은 밀교학 입문서이다.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을 인도고대문화와 결부시켜 상세히 언급하고 특히 인도교와의 상호연관성에 관하여 상세히 분석해 놓은 원저작 이후 최근까지 30여 년의 연구성에 따른 학계의 다양한 학설을 깨 실어 20세기 이후 밀교학 연구의 진척과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오늘날 인도의 일상생활과 풍습 및 관습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문화이며 인간의 정신적 완성과 심적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인 밀교,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과 인도의 고대문화, 그 정신세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신국판/ 284면/ 값 6,000원

최신간 中論頌研究 ●김인덕 지음/ 양장/ 376면/ 값 12,000원

불광출판부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 420-3200, 3300 / 팩시밀리 420-3400

밀교연구서 잇달아 출간

'밀교학 입문' 등 10여종…한국밀교사상사도 나와

한국밀교가 오해받고 있다. 최근에 나온 한 책에서는 "밀불교는 부처가 가장 경계한 남녀의 교합 속에 무슨 오묘한 진리가 있는 듯 가르치며 남녀의 교합을 종교의식으로 행한다"라며 마치 밀교의 한 분파인 탄트라불교를 전체 밀교인양 기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밀교학입문〉〈한국불교의 밀교적 특색〉 등 밀교관련 책이 잇달아 출간되고 있어 밀교를 바르게 전달하려는 전기를 만들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밀교사상사연구〉 〈밀교역사〉 〈밀교입문〉 등 이미 10여종이 선보이고 있다.

〈밀교학입문〉(B.밧따짜리야 지음·장익 옮김, 불광출판부)은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을 인도의 고대문화와 결부시켜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특히 밀교가 지닌 인간정신의 수련과정과 심적 발전에 대한 가르침을 높이 평가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불교의 밀교적 특색〉(홍윤식, 만다라)에서는 선종적 전통이 강한 한국불교이지만, 그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앙의례에 있어서는 밀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례와 가람구조 등에 나타난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밀교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밀교를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책에서는 대체로 밀교의 발생배경과 그 특징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한국밀교사상사연구〉 〈고려밀교사상사연구〉의 저자 서윤길교수(동국대·불교학)는 "바라문교의 번창으로 불교교단이 위축되자, 불교의 교세회복을 위해 힌두교사상과 민간신앙을 동시에 수용하여 불교적인 재정립을 시도한 것이 밀교성립의 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밀교는 재앙을 쫓고 복을 기원하는 양재초복(攘災招福)의 특징을 지닌다.

한편 우리나라의 밀교는 성력파(性力派), 즉 성애를 수행방편으로 삼는 티벳 후기밀교(좌도밀교 또는 탄트라불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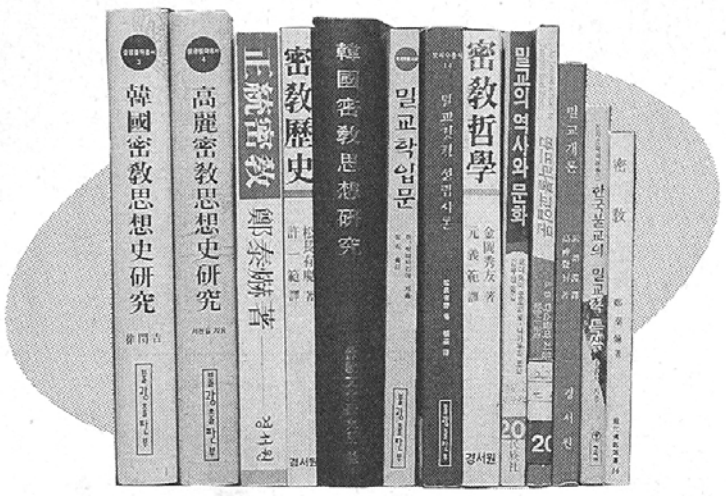
정태혁박사의 〈밀교〉(동국대역경원)에 따르면, 명랑법사에 의해 전래된 밀교는 "당시 당나라에 유포되었던 체계화된 밀교(純密)였다"고 강조한다. 중기밀교라고도 불리는 순밀은 7세기경 인도에서 성립한 〈대일경〉〈금강정경〉 등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인 단계의 밀교이다.

밀교가 오해받는 원인은 상업주의에 영합한 출판물에 의해 마치 밀교가 성교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데서 연유한다. 또 조선시대의 불교탄압도 한 원인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신라 고려로 이어지며 명랑 혜통 등 뛰어난 밀교승의 활약이 있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승할 학승의 배출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후에도 불교학 연구에서 밀교에 대한 접근은 그 중요성만큼 활발하지 못했다.

이에대해 서윤길교수는 "한국불교의 내면에는 밀교와 밀교적인 것들이 밀도높게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고려에서의 밀교는 한국불교사상사적으로도 간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며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우리나라의 밀교는 좌도밀교라 불리는 성력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체계화된 중기밀교가 전해져 신앙되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기도	일 타	효 림
2	소설 등신불	석 용 산	문학수첩
3	티벳사자의 서	파드마삼바바	정신세계사
4	붓타의 가르침	이 기 영	불교진흥원
5	방한암 선사	김 호 성	민 족 사
6	사찰의 벽화이야기	권 영 한	전원문화사
7	선의 세계	고 형 곤	운 주 사
8	지금 이 자리에서의 깨달음	데이마루	불교시대사
9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 경 각
10	달마의 제자들	고 우 영	불 지 사

구입문의:(02)737-0695

대륙의 신라왕자

김교각 스님 구도 삶 소설로



무불(無佛)지대 구화산을 세계적 지장성지로 만든 지장보살 김교각스님의 구도일생을 소설로 엮은 〈대륙의 신라왕자〉(신용산 지음, 우리출판사)가 나온다.

작가 신용산씨는 〈송고승전〉 〈신승전〉 〈구화산창건 화성사기〉와 중국시인 이백의 〈지장보살찬〉 등에 나타난 교각스님에 대한 기록을 토대로 교각스님의 탄생으로부터 불법을 구하기 위해 당나라로 건너가기까지의 과정, 중국에서의 끝없는 구도행각, 구화산 정착과 화성사 창건, 입멸 후 지장보살의 현시과정을 재구성했다.

특히 교각스님이 신라 성덕왕의 맏아들 김수창이라는 중국 화동사대학 샤슈텐(謝樹田)교수의 새로운 주장을 수용, 당시 신라왕실의 권력구조를 삽입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우리출판사는 〈대륙의 신라왕자〉와 함께 화보집 〈지장왕보살 김교각〉도 함께 펴낸다. 출판기념회는 중국 구화산 화성사 방장 인덕스님을 초청, 21일 오후5시 송현클럽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화보집도 동시 출간
21일 출판기념회

명사추천 불서100선

고려고승한시선



최 승 범
('전북문학' 발행인)

92년의 여름이었던 것 같다. 서울길에 교보문고의 매장에서 읽고 싶은 몇 권 책을 빼어들었다. 그 가운데 〈고려고승한시선(高麗高僧漢詩選)〉이 들어 있었다. 이원섭시인의 편저로 동국대학교 부설 역경원에서 '현대불교신서' 첫째권으로 발행한 것이다.

전주까지 돌아오는 길에 거의 일독할 수 있었다. 읽었다느니 보다도 빠져들었다는 표현이 적실할지 모른다. 차내에도 냉방이 되어 있었으나, 나는 이 책의 장장에 젖어듦으로써 삽상한 산수간을 소요하는 느낌이 있었다.

책의 제목마따나, 이 책에는 고려 때의 높은 스님들이 남긴 게송과 시가 담겨 있다. 대감·진각·보각·원감·태고·백운·나옹·만우·대각·무애·정명·진정 등 국사·선사들의 86편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편저자는 일찍이 〈당시〉(唐詩, 현암사)의 뛰어난 우리말 옮김으로 널리 알려진 이원섭(李元燮) 시인. 이 시인의 국역이라면 우선 안심하고 읽을 수 있다. 작품마다엔 주·평석(註·評釋)도 곁들여 있어, 한문이 모자란 사람으로도 이 책을 소화하는 데엔 어려움이 없다.

이 책은 꼭 첫장에서부터 눈을 주어야할 것도 없다. 그저 펼쳐진 면의 작품이면 작품마다가 만다라화와 같은 빛으로 가슴에 젖어들기 때문이다.

"죽음 문득 닥칠 때/누구 대신 시키랴/원래 부채는/제가 갚는 법(無常忽到教誰替 有債元來用自還)"

나옹(懶翁) 왕사의 '경세(警世)'에 있는 한 구다. 이 구의 앞뒤를 읽을 사람은 읽어도 좋고, 이 한 구만으로 깊이 젖어들고 싶은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만다라화의 빛을 얻었다고 하겠다.

"고요할 땐/삼라만상 나타나더니//움직이자 하나도/있는 것 없네//무(無)라는 것은/대체 무엇이라//서리친 뒤 도리어/만개한 국화(靜也千般現 動也一物無 無無是什麽 霜後菊花주)"

이는 태고(太古) 국사의 한 편이다. 편저자는 이 게(偈)의 평석에서 '색즉시공·공즉시색의 경지가 바로 이것이리라'고 했다. 불교의 철리를 깊이 따질 수 없는 중생(衆生)의 한 사람으로도 '상후국화주(霜後菊花綢)'의 한 광경을 눈앞에 그려보고, 그 미감에 빠질 수 있다면,

주·평석 곁들여 게송 86편 수록
만다라화 같은 빛에 '가슴뭉클'

그 삶은 충분히 이 세상살이에 있어 불제자의 구실을 할 수 있으리라 말하여도 좋지 않을까.

끝으로 백운(白雲) 선사의 한 편을 들어본다.

"내 마음은 가을 하늘/달과 같아서//분별 없이 비치어/얽매임 없네//만물이 제 모습을/나타내는 중//맑은 그 빛/ 온통 드러남 보게(吾心似秋月 任運徧無方 萬相影現中 交光鋪露成)"

가을이 아니어도 좋다. 하늘엔 밝은 달이 있어도 세상 돌아가는 꼴은 짙은 어둠일 뿐이다. 불현듯이 송강(松江)의 '내 마음 베어내어 저 달을 만들고저'를 흉내내어 '내 마음 들어내어 저 달에 비추고저'라 읊조리고 싶다.

손바닥 만한 이 한 권의 책을 들출 때마다 나는 언제나 피대(皮袋)와 청정(淸淨), 이 두 낱말을 곱씹게 된다.

불교의식집 | 현능 엮음

현장체험 토대 한글의식문 정리



불교의식은 삼보에 대한 귀의의 거룩한 심성을 외화하는 것이며, 불교인이라는 정체성과 일체감을 구현하는 일대 장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불교의식은 대중과 겉돌고 있다. 의식문이 대부분 한문 또는 다라니이기 때문에 의식에 참여하면서도 진행되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인을 위한 불교의식집〉은 "우리말로 된 의식문을 사용하면 집전자와 대중이 의사소통하고 부처님에게까지도 커뮤니케이션이 쉽게 이루어질 것은 분명하다"는 엮은이의 도심포교 현장체험의 소산이다.

예불에서 법회까지 불교의식 전반을 수록했다. 우리말 의식문을 집중적으로 실었으며, 특히 반야심경 천수경 보현행원품 등은 사천왕사에게 6년동안 실행하며 다듬은 한글의식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불지사, 1만5천원〉

인천·경기 전통사찰2 | 사찰문화연구원

연혁·성보문화재등 상세히 수록



사찰은 불교의 참정신이 깃든 곳이며, 고승들의 발자취가 서려있는 곳이다. 불교인은 물론 불교와 거리가 먼 사람에게도 사찰은 몸과 마음을 맑힐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점에서 사찰에 대한 문화적 신앙적 관심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전통사찰총서 다섯번째 권인 〈인천·경기도의 전통사찰2〉는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경기도 북부지역 14개 시군에 소재하는 보문사 전등사 등 53개의 전통사찰 및 주요 절터 6곳의 연혁과 주서했던 고승들의 일화, 성보문화재, 그 '절이 지니는 신앙의 성격 그리고 관련설화를 밝혀놓았다. 특히 사지 및 불교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자세히 밝혀놓아 문화재의 현재적 정리라는 의미도 지닌다.

〈사찰문화연구원, 1만원〉

부석사 | 김보현 외 지음

무량수전등 가람배치 의미분석



삼국시대 이래 우리 민족과 역사를 함께해온 사찰은 특히 전체적인 가람배치에 있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며 오늘날까지 그 빛을 발하고 있다. 부석사는 소백의 연봉들이 연출하는 장관을 앞마당처럼 펼쳐놓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의 171번으로 펴낸 〈부석사〉는 부석사의 연혁과 교리적 배경, 축조방법, 유적과 유물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3명의 전문가가 공동집필했다.

정연하고 아름답게 쌓아올린 석축으로 유명한 부석사는 전설이 많을 뿐만아니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무량수전으로 더욱 중요시되는 사찰이다. 더욱이 조사당의 벽화는 고려시대 벽화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인당에 전하는 석불들과 무량수전의 주존인 소조아미타불상 등도 보물급 문화재들이다.

〈대원사, 3천5백원〉

믿음과 수행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 쉬운 불교책!



신간!

"불보살의 가피 !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신국판 / 5,000원

祈禱 기도 —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

이에 일타스님은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된다.

Ⅰ.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Ⅱ.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Ⅲ.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Ⅳ.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Ⅴ.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Ⅵ. 기도인을 바른 길로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일러주고자, 일타스님 자신과 가족·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책으로 엮었다. 매우 알기 쉽게, 이야기로 들려주듯이 엮은 이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Ⅰ. 큰스님 주변 이야기 / Ⅱ. 유명인이 실증한 윤회와 인과
Ⅲ. 민간에 전해지는 인과윤회담 / Ⅳ. 축생으로 태어나기까지
Ⅴ. 부처님도 순응한 전생업보 / (총 53가지 이야기 수록)

* 49재 범보시용으로 좋습니다.

신국판 / 4,500원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
법공양문

72년 초판 발행 이후 수많은 불자들에게 전해져 읽혀온 책.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일타큰스님의 자상하고 정확한 번역으로 새롭게 증보 발간하여 다시 선보였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깊은 맛이 우러나는 책으로 마음의 평화와 풍요로움을 안겨다 줄 것이다.

값 5,000원

일타큰스님의 육성 법문 테이프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의 세계에 젖어들고 환희심이 일어나는 일타큰스님의 법문 !

·큰스님 살아오신 이야기 (테이프 1·2)
·마음·마음·마음 (테이프 3)
·오분향을 이루는 공부 (테이프 4)
·참된 희향 (테이프 5)

5개 1세트 값 10,000원

불자들의 입문서 ≪초발심자경문≫ 세권의 해설서, 드디어 완간!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으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깊고 넓은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될 것이다.

값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 강설집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알기 쉽게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줄 것이다.

값 5,000원

야운비구의 ≪자경문≫ 강설집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스님이 적절한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해설했다. 불자의 신심과 원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신행의 나침반이 될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뿍 담긴 자재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3 팩스 : (02) 586~9078



◇인천 용화사 법당에 모셔진 윤이상씨의 영정과 위패.

"그립던 고국에 환생하길…"

故윤이상씨 인천용화사서 반혼제 거행

지난 4일 독일 베를린에서 78세로 음악인의 생애를 마감한 작곡가 윤이상씨의 고혼을 안치하는 반혼제가 인천 용화사에서 지난 6일 오전 10시에 거행됐다.

지난해 불교에 귀의한 故윤이상씨의 위패가 모셔진 용화사에서는 7일 단위로 칠칠재가 치뤄진뒤 49재가 봉행된다. 이날 반혼제에는 용화사 스님들과 여동생 윤동화씨등 친지·동료 음악인들이 참가 고인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용화사에는 고인의 조상 위패가 모셔져 있다.

기관지천식, 당뇨병, 신부전증으로 시달려 오며 69년 독일 이주이후 단 한번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아쉬움을 삭혀야 했던 故윤이상씨는 그의 음악적 재능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대작곡가. 그는 '예악' '낙양' '나비의 꿈' '광주여 영원하라' 등 관현악과 실내악 오페라 1백여곡을 남겼다. 그의 음악은 우리 전통음악의 선율을 가미한 곡조로 주목받았다.

장례절차·일정 미확정

베를린서 병오스님 전해

독일 베를린 보문사 주지 병오스님에 의하면 4일 타계한 윤씨의 장례 절차와 일정은 7일 현재까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를린 발트병원에서 자택으로 시신이 옮겨진 윤씨의 장례문제에 대해 가족과 동료 제자등 몇명이 숙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간소하게 치뤄질 것이란게 가족들의 뜻이라고 병오스님이 전했다.

월주총무원장 조의표명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9일 베를린 자택 빈소로 "고인께서 남긴 음악은 세계인의 가슴에 남을 것"이라며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조전을 보냈다.

불교인권위 애도 성명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는 지난달 6일 고윤이상씨의 작고와 관련 애도 성명을 통해 "선생께서 하루빨리 통일조국에 환생 하시기를 부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발원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종로구 화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고인의 칠칠재와 49재를 봉행한다. (02)734-6401

젊은 작가에 문호개방
"부처님 전하는 공간으로"

인터뷰 | 성곡미술관 초대관장 박문순씨



어릴때부터 사찰그림 관심
자타공인 '불심 돈독'

"미술관을 준비하며 거의 1년간은 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개관이 됐으니 개관 관련 일이 마무리되는대로 부처님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지난 8일 개관된 성곡미술관 관장 박문순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독실한 불자다. "어릴적부터 사찰을 다니며 절에 있는 많은 그림들에 별난 관심을 가졌던 것이 미술관 관장이 되려는 인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다"는 박씨는 위치까지 밝히기는 꺼리면서 "조그만 암자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성곡미술관은 젊은 작가를 집중 양성한다는 원칙과 기업의 문화참여라는 대사회적 기여를 목표로 개관됐다. 종로구 신문로 고 성곡 김성곤(쌍용그룹 창업)씨의 옛집을 개조해 만든 미술관의 규모는 연건평 6백평이며 전시공간만 1백80여평이다. 앞으로 야외조각공원도 조성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미술관은 성곡미술문화재단(이사장 김석원)이 중심이되어 운영하게 된다. 이날 개관에 맞춰 '시멘트와 미술의 만남전'도 문을 열었다.

박문순관장은 "젊은 작가 양성이라는 미술관의 운영방침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기회가 닿는다면 불교 주제의 특별전등 불교관련 미술 이벤트도 개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술인구의 저변확대 차원에서 장애아 어린이등 미술영역에서 소외돼 온 계층을 위한 교육과 실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한다는 것이 박씨의 구상이다.

임연태 기자

불심시심 〈36〉

태산인양 요지부동

瀟灑文殊寺 (소쇄문수사) 말쑥히 씻긴 문수사
今來山雨餘 (금래산우여) 빗속에 이제 찾았다
客稀人事小 (객희인사소) 나그네 드무니 인간세사 없고
城遠俗緣疎 (성원속연소) 도성이 머니 세속 인연 적다
靜裡塵懷淨 (정리진회정) 정적하기에 티끌 마음 씻기고
閑中道眼虛 (한중도안허) 한가로와서 도 찾는 눈 트이다
居僧皆入定 (거승개입정) 선정에 든 모든 스님들
不動太山如 (부동태산여) 어쩌면 저 태산인양 요지부동

윗 시는 영월당(詠月堂, 1570~1654)대사의 시이다. 대사의 문집에 전해지는 시는 차운의 시가 많은 것으로 보아 대사는 승속간의 만남에 있어 주로 시로 주고 받은 듯한 인상을 갖게 하니 시집중에 있는 다음과 같은 구는 대사가 느끼는 만남과 이별의 소박한 감정을 잘 표현한 듯하다.

"이별의 얼굴은 웃음이 있는 꽃만 같지 못하고, 이별의 정은 속이 빈 대만 하기가 어렵다(別面不如花心笑 離情難以竹無心)" 하였다.

이런 점을 두고 백곡(白谷) 선사는 "대사의 시에는 선기(禪氣)가 많으니 스스로 깨우침이 있어 말로 표현된 것이 저절로 성률에 어울림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시도를 터득했으랴" 했으니 위 시는 어찌보면 이러한 선기의 깨우침이 아닐까 여겨진다.

한적한 문수사의 풍경을 담담히 서술하였지만 산사에서 추구하는 선정의 고요함이 한 순간에 모두 응집된 느낌이다.

첫 구에서부터 산뜻한 느낌을 갖게 한 말쑥하게 씻어진 절이다. 지금 빗 속에 이르렀다. 그러기에 첫 구의 말쑥함이 더 생동감이 있게 느껴진다. 두 구의 어울림은 구김없는 진솔함이다. 산사이기에 사람이 적다거나 도성에 멀어짐이 당연하지만 세속의 인연이 적도록 꾸며진 배경에는 첫 구의 말쑥히 씻겼다한 '소쇄'의 한 단어의 힘이 매우 크다. 시어의 선택이 이래서 어렵고 또한 이래서 성공되기도 한다.

고요함이란 산사의 정경을 대변하는 단어이지만 도안까지도 훤히 트이는 경지는 이 산사에 주석한 각자 스님의 몫이다. 선정에 든 스님들이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기에 가능했을 수도 있다. 산처럼 진중히 가라앉은 시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노래하는 전법사 '성음' 공양

불광사 바라밀다합창단 26일 발표회

지난 17년간 '노래하는 전법사'의 긍지를 가꿔온 불광사 바라밀다합창단이 오는 26일 오후3시 단국대 난파음악관에서 정기발표회를 갖는다.

남녀혼성 4부로 구성된 바라밀다합창단은 이날 발표회에서 불광사 법주 광덕스님의 시에 정부기교수(중앙대)가 곡을 붙인 '임의 숨결'을 비롯 '일심참회' 등 찬불가, 가곡, 팝송 등을 들려준다.

조계사 보리수합창단과 불광사 연꽃어린이합창단이 찬조출연하며 바라밀다합창단의 남성중창단도 특별순서를 마련했다.

설악산 '세계자연유산' 15일 주민설명회

문화재관리국은 설악산을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의 자연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설악권 4개 시·군 주민설명회를 오는 15일경 속초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문화재관리국은 오는 96년말까지 설악산을 세계의 자연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속초시를 방문, 설악산 생태계 관련자료를 수집하는등 준비작업에 착수했으나 지역주민들은 설악산이 자연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개발계획수립시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며 우려해 왔다.

"선조들 茶詩로 차문화 엿보기"

차생활문화원 다시서예전…21~26일 예술의전당

한국차생활문화원(원장 감승희)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예술의 전당 3층 전시실에서 다시서예전(茶詩書藝展)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월하종정스님, 석주스님, 승찬스님, 일타스님 등 큰스님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또 김능성 김동연 신정희 조용원 이가원 등 서예가 55인이 법해가 초의에 대해 회고한 초의다(草依茶), 송나라 나대경 다시(茶詩) 등의 내용을 쓴 작품 55점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한잔의 차로서 선열(禪悅)의 세계에 노닐던 다인들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와 차문화 저변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섭作 '천백억화신'.

김종섭씨 창작불화 독일 전시

예비역 군법사 김종섭씨의 불화전시회가 지난달 1일 독일 뮌스터쥐엔벡의 뮈시하우스에서 문을 열었다.

'수월관음도' '지장보살도' 등 전통 불화와 '연화 코리아' '오백나한' 등 창작불화를 소개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김씨는 한국불교미술의 특징을 독일 화단에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통불화의 도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변형시켜 놓은 작품 전시회는 12월 31일까지 계속된다.

관음정근 통일발원 모습 "생생"

윤이상씨 여동생 윤동화 씨



"작년에 부처님께 귀의한 이후 오빠는 늘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며 조국의 통일과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인천 용화사 신도이며 故윤이상씨의 여동생인 윤동화씨는 고인의 불심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회고했다. 특별한 종교를 갖지 않았으나 도가(道家)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 민족 전통의 가락과 문화를 좋아했던 고인은 말년에 부처님께 귀의하며 더욱 고국에 돌아가고 싶어했다는 것이 윤씨의 얘기다.

"현지 가족에게 들으니 임종 직전까지도 부처님께서 조국을 통일시켜 줄 것이라 말하고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라고 했다더군요. 뒤늦은 귀의였지만 오빠의 불심은 정말 뜨거웠어요. 조국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부처님께로 회향하는 듯했지요."

서대문의 집에서 매일 용화사를 출퇴근하며 고인의 넋을 위해 기도하는 윤동화씨는 "오빠의 음악은 불교의 정신도 깃들어져 있고 또 불교를 주제로 한 음악도 만든 적이 있다고 생전에 말했었다"고 전했다. 윤씨는 국내에서 고인이 남긴 불교음악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빈소를 마련하고 반혼제도 지냈지만 끝내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던 오빠의 한은 쉬 사그라질 것 같지 않아요. 불보살님의 가피로 오빠가 고국땅에 환생하시길 빕니다."

〈태〉

고은 서사시 '백두산' 가극무대

27~30일 세종문화회관

고은씨의 서사시 '백두산'이 가극으로 꾸며져 오는 27일~30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공연된다.

가극단 금강이 기획제작한 이 공연에서는 30여곡의 신작 극노래와 50명의 군중무등이 어우러져 우리 민족의 역사를 몸짓언어로 표현한다. 문호근씨가 연출을, 안무는 오세란씨가 맡았다. 이 공연은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이다.

불음가득, 법향가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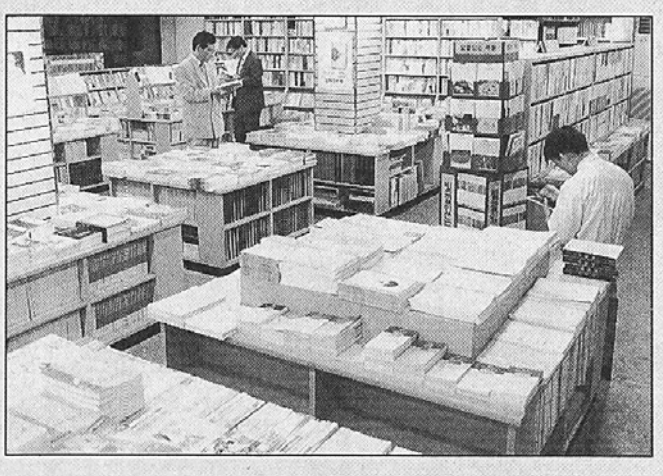
항상 길 떠나는 마음, 책방 여시아문이 함께 하겠습니다

독자와 함께 하는 독서회원제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책방에서 발행하는 신간 안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의 입장에서 책에 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회원가입은 책방에 비치된 신청서 및 전화, 팩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항상 독자를 찾아가는 통신 판매

지방에 계신 독자나 산사의 스님, 책방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 통신 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주문은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송료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부담합니다.



찾아오시려면



매월 발행하는 독자들의 귀와 눈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

매월 15일 발행하는 여시아문 소식지는 불교 서적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 새로 나온 책—각종 불교서적 및 불교 관련 신간을 빠짐 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독자가 뽑은 나의 불서—애독자와 함께 추천하는 불서
- 불교 출판 편집자가 뽑은 명저—불교서적 출판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불교서적 전문 출판 편집자가 추천하는 불서
-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이달의 책—본 책방에서 양서라고 검증된 불서만 가려 뽑아 싣습니다.
- 불교 출판사를 찾아서—불교 출판 문화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불교 출판사 탐방
- 베스트셀러 20선—책방 여시아문 월간 판매 집계 20선.
- 책방 여시아문 자세히 보기—독자 여러분께 보탬이 되고자 본 책방 소장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35〉

宗密禪師 座右銘 (종밀선사 좌우명)

寅起可辦事 省語終寡尤
인기가변사 성어종과우
身安勤戒定 事簡疎交遊
신안근계정 사간소교유
他非不足辨 己過當自修
타비부족변 기과당자수
百歲旣有限 世事何時休
백세기유한 세사하시휴

인시(새벽 3~5시)에 일어나야 (하루 하루)일을 가릴 수 있고 (새벽에 일어나 마음 밭을 갈아야 그날의 일 속에서 거두는 바가 있고) 말을 아낄줄 알아야 다침내 허물이 적어진다.

몸은 계와 정에 힘써야 안돈하고 일은 간결하게, 벗과의 사귐은 성글게 하라.

남의 허물을 제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자기 허물은 마땅히 스스로 닦아 없애라.

기껏해야 백살이 한정인데 세상 일을 어느 때나 쉴 것인가

落髮纏借數 應須侔上流
낙발타승수 응수모상류
胡爲逐世變 志慮尙浮浮
호위축세변 지려상효부
四惡 重山岳 錙銖未能酬
사은 중산악 치수미능수
蚩蚩居大厦 汲汲將焉求
치치거대하 급급장언구

머리 깎고 중이 된 팔자인대는 모름지기 윗 사람(스승·선지식)을 본보기 삼아 마땅하거늘

어찌 세상의 무상한 변화를 좇아서 뜻과 생각이 오히려 들뜨고 시끄럽게 하는가.

사은(부모·나라·중생·삼보의 은혜)이 산처럼 무거우니 치수(무게의 가장 적은 단위:적은 공력)로는 갚을 수 없거늘

어리석고 어리석게도 큰 집(절)에 기거 하면서 조급한 마음뿐이라 닦음이 없으니 어찌 도를 구할 것인가.

死生在呼吸 起滅若浮漚
사생재호흡 기멸약부구
無令方服下 翻作阿鼻由
무령방복하 번작아비유

생사가 한 호흡간에 달려있고 나고 죽는게 물거품 같도다.

너로 하여금 가사를 걸치고 도리어 아비지옥의 인연·까닭을 짓게하지 말라.

亡名法師息心銘 (망명법사식심명) ①

法界 有如意寶人焉
법계 유여의보인언
久緘其身 銘其膺曰 古之攝心人也
구함기신 명기응왈 고지섭심인야
誡之哉 誡之哉
계지재 계지재
無多慮 無多知 多知多事 不如息意
무다려 무다지 다지다사 불여식의
多慮多失 不如守一
다려다실 불여수일

법계에 여의보인이 있으니 오래 그 몸살림을 닫아 걸고 가슴에 새겨 가로되 옛날에는 마음을 조섭한 이를 이름이라하니 경계할지어다. 경계할지어다.

많이 생각치 말고 많이 알려하지 말라. 알음알이가 많으면 일이 많으니 뜻을 쉬는 것만 같지 못하다.

생각이 많으면 (공부에) 잃는게 많다. 하나를 지킴(고요히 정에 들어 근본을 관함)만 같지 못하니라.

남 허물 판단말고 자기허물 닦아 없애라
생각·알음알이가 많으면 道의길 막힌다

慮多志散 知多心亂 心亂生惱 志散妨道
려다지산 지다심란 심란생뇌지산방도
勿謂何傷 其苦悠長 勿言何畏 其禍彌彭
물위하상 기고유장 물언하외 기화정비
滴水不停 四海將盈 纖塵不拂 五嶽將成
적수부정 사해장영 섬진부불 오악장성
防末在本 雖小不輕
방말재본 수소불경

생각이 많으면 뜻이 산란해지고 알음알이 늘면 마음만 어지러운지라 어지러우면 번뇌가 일어나고 뜻이 흩어지면 도의 길이 막힌다.

(이상에서 경계한 것을)무엇이 나쁘랴 하지말라, 그 고통은 더욱 길어지리라.

무엇이 두려우랴 하지말라, 그 화가 솔 속의 끓는 물처럼 어지러울 것이다.

물방울(사량·번뇌의 물방울)도 그치지 아니하면 장차 사해에 넘치게 되고 티끌도 털지 아니하면 장차 큰산을 이루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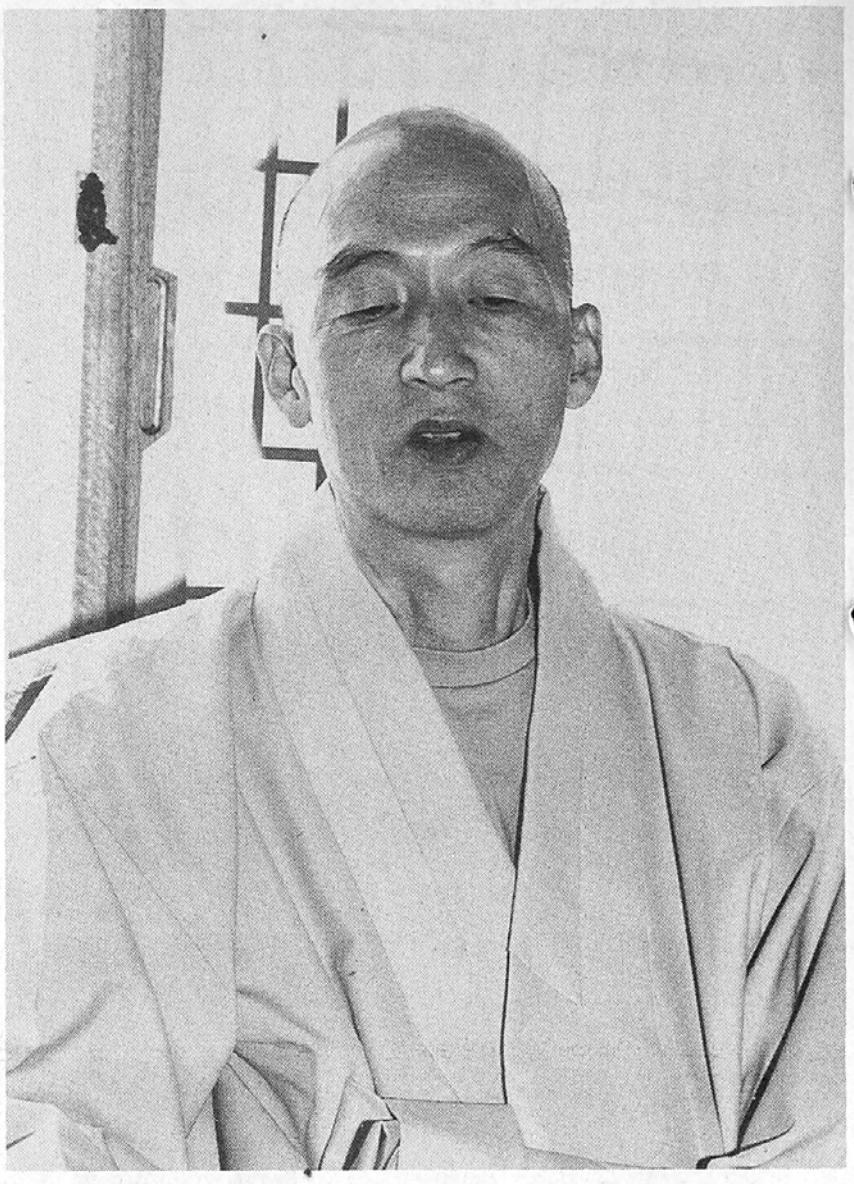
(공부의) 끝 맺음은 근본에 있다. 비록(번뇌·망상이)적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龍眼

지상법석

"남 칭찬하는 말 한마디

광덕스님 〈불광법회 법주〉



약력
- 1927년 경기 화성 生
- 54년 범어사 강원 대교과 수료
- 65년 봉은사주지
- 74년 월간 불광 창간
- 불광법회통해 20여년간 대중교화
- 저서로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보현행원품 강의〉등 다수

부처님의 공덕을 우리 생활 가운데 실현하는 방법은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원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행원도 그냥 하나의 좋은 일을 하는 것,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위해 주는 것 정도로 알고 말아서 참으로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현세 생활에서 창조적인 힘으로 발휘하게 한다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불성이며 법성진여입니다.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원래로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참 마음은 이와같이 아름답고 우리들의 참 생명은 이와 같이 큰 위신력이 있고 부처님의 큰 공덕을 받고 태어난 생명인데 어째서 우리 주변환경에는 이렇게도 거치른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생각 그 중에서도 잠재의식 속에 그릇된 생각들이 꽉 끼어 있어서 본성은 원래 밝아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두운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망념

> "가정에 법등 밝히고
> 부처님 은혜 넘치게하여
> 밖에서 고난 당해도
> 서로 감싸주는
> 안식처로 만들어야"

의 그림자를 말끔히 소탕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환경에 밝음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는 세가지 근본행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올바른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부처님의 위신력과 공덕으로 가득차 있다. 그래서 절대의 가치와 권위와 능력과 복덕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불법을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불법에 귀의하지 않고는 이 법문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물질적인 한계에 매여 살게 되어 위대한 자기 진실생명에 대한 긍정을 못하고 살게 됩니다. 우리 생명의 참모습은 반야에서 보는 바의 진리 공덕 실상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일체 중생이 덕상을 원만히 갖추어 나와 더불어 다를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눈, 부처님의 지혜로 본 것이고 우리들의 수행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우리의 진실생명의 모습 그것입니다. 이것이 제불보살과 더불어 함께 있는 생명의 본래의 참모습입니다.

두번째는 항상 반야바라밀을 염하며 자신은 부처님의 진리생명으로서 항상 안전하고, 깨끗하고, 구족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푸른 하늘은 본래부터 푸른 것인데 어두운 구름이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의 하늘, 나의 마음의 하늘, 나의 생명의 하늘은 이와같이 푸른 것입니다. 청정한 것이다' 하고 스스로의 생명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심으로 반야바라밀을 염하는 가운데 상이 없는 진실본분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세번째는 행원의 실천입니다. 반야가 보는 바 나의 생명의 진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참모습을 긍정하고 그 긍정한 상태를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원은 무한절대공덕이며 일체에 자재하고 영원무한인 부처님의 공덕세계를 나의 생명의 참모습으로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행원이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것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생명 속 깊이 있는 멸하지 않고 항상 뛰고 있는 진리생명 그대로를 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야바라밀을 항상 염합니다. 바라밀염송을 일심으로 행하는데서 바른 믿음이 확립되고 청정자성광이 깊어지며 보현만행을 전개할 힘과 지혜와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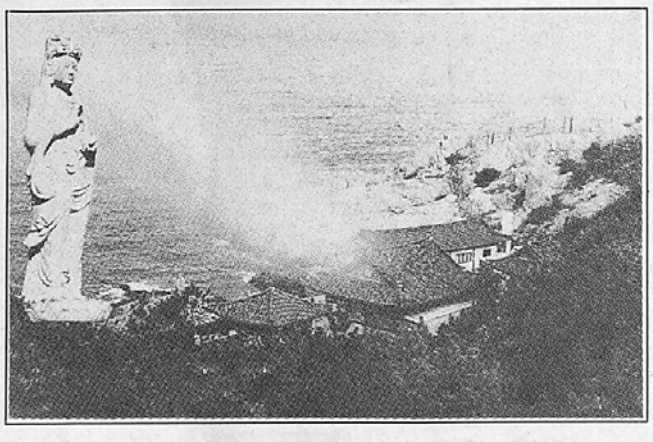
또 한가지 방법은 참회입니다. 내 환경에 어두운 불행이 나타나거나 내 마음 가운데에 불평불만이나 증오나 원한 같은 생각이 있거나, 억압감정이나 파괴적인 울분 같은 감정이 있을 때는 우선 참회를 하여 이런 것들을 소탕해 버려야 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보고 뉘우치고 참회하며 참 자기 생명의 밝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밝음 가운데 노출시키는 것은 어두운 데에 있다가 밝은 부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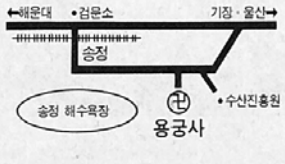
이렇게 참회할때 마음 속의 어둠은 다 녹아 없어집니다. 참회란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밝은 진리 앞에 나타내 보이고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이렇게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海水觀音 방생도량

해동용궁사는
뒤는 산이요, 앞은 푸른바다에 펼쳐진 절경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진신(眞身)이 상주하시는 **관음기도도량**이며 **방생도량**입니다.
금번 용궁사에서는 **관음대불**을 봉안하옵고 많은 **기적**과 **불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궁사는 특히 삼사순례나 방생법회를 하시는 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하오니
전국의 주지스님과 신도님께서 방문하시면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무료
대형주차장 완비
방생물 예약 준비해드림
해운대-용궁사 10분 거리



海東龍宮寺 기도영험도량

용궁사 오시는 길 — 해운대 달맞이길 → 송정 해수욕장 → 용궁사 (051)722-7744, ☎ 722-7755

중국명문 한의대 남경중의약대학
박사 과정 연수

대 상	한의사, 한약사, 스님,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기 간	8박 9일
주요연수내용	중풍, 당뇨병, 좌골신경통 등의 침구치료, 비만치료법, 기공 등
연수후	박사과정 연수 수료증 (침구·기공)
인 원	15명 이내
출발일	1995년 11월 27일(월요일)
남경중의약 대학	중국 남경 660-7129

문의처
자매대학-삼화불교대학
TEL : (02) 511-2026, 2027, 2028, 1080
FAX : 511-1080

불교 정보 95년도 신판 발간
(불기 2539년-1995년-가을호)

불교계의 자료집으로 제작·보급되는 불교정보는 불교계의 모든 정보와 자료를 보다 정확하고 알차게 갖추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후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 기재된 내용
1) 불교 종단의 임원 및 주소, 전화번호, 역사 등
2) 사찰의 건립 및 중창 역사, 주소, 전화번호, 현존 문화재, 소속종단, 조실 및 현 주지 등
3) 전통사찰에 전해 오는 설화와 사찰 기록
4) 사찰과 포교당의 법회, 위치 및 교통편 안내
5) 불교계 언론 및 잡지사, 출판사, 불교용품 전문점 등
6) 불교계 각종 학교, 신도회 및 일반 신행회 안내
7) 사찰과 신행회는 각 시도별로 가나다 순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면 개정판에 기재하겠습니다.
※ 불교정보 1권당 1만원입니다.
※ 책 대금을 다음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시면 접수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053-12-023151
외환은행 150-13-11760-5
국민은행 832-24-0006-924
서울신탁은행 15501-2537606
체신부(우체국) 011965-0066025
조흥은행 390-04-164932
예금주 : 이성호

도서출판 다모다
☎ 02-921-6669, 6670

지상법석

진리공덕 문 여는 열쇠”

“모든 중생의 본성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지혜행입니다”

믿음의 실천 곧 ‘행원’…삶 새롭게 바꾸는 원천 항상 바라밀염송 밝은 마음 드러나도록 정진

“하늘이 푸르듯 나의 생명도 푸르니 상없는 진실본분 염하면 어두운 구름은 저절로 사라져”

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밝은 빛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것이라도 밝은 빛을 한 번 받으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해서 없앤 후에는 두 번 다시 불행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 밝은 행을 열어 가야 합니다.

항상 내 마음을 밝게 하는 방법은 어둡고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이 나타나면 반야를 통해서 오온이 공함을 지혜의 눈으로 비추어 보고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밝은 지혜로 마음을 채울 것이며, 어려우면 참회를 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밝게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온 세계는 佛세계이고 부처님의 공덕과 위신력을 가진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부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중생세계, 고통의 세계를 보고 그 속에서 허덕이고 살다가 갑니다. 그건 남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그렇게 마음먹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참모습과 그 지혜덕상이 부처님과 다름없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실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존경을 다해서 예경을 하고 그 덕성을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부처님 공덕의 원만구족을 깊이 믿고 장점을 발견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칭찬하는 말 이것이 부처님의 공덕을 참으로 우리 주변에 실현시키는 방법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꾸짖고 나무라고 잘못하였다고 지적하기 이전에 원천적으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믿고 잘하는 점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공경해서 공덕을 우리 눈앞에 현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록 잘하는 것이 적다 하더라도 이 적은 것이 커져서 불행을 덮어버리고 평화와 만족만이 집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서로 장점을 보고 서로 밝은 면만 보아 위해주는 말만 할 때 집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하는 말을 아끼지말고 사용해서 집안에 광화와 만족이 가득하도록 합시다.

불안함, 무엇인가 받지 못한 피해의식, 우울함, 이루지 못한 자기 불만, 그야말로 억압된 감정을 호소할 곳 없는 것을 가슴에 안고 헤매이다가 기회가 있을 때 터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에게는 따뜻한 안식처, 가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참으로 위해주고, 칭찬해주고, 공경해주고, 자기편이 되어주고, 따뜻이 감싸주면 사람들은 거기서 휴식을 얻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행하면 그 집안은 부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집안의 생명이 커가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집에 와서 그런 것을 풀어 버릴 수 있다면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그는 집에서 새로운 정신적 힘이 충전되어 다음날 활기있고 용기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불자 형제들 집에 이와 같은 법등을 밝히고 부처님의 은혜가 항상 넘쳐나게 되어 그 집안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분한 힘이 충족을 받아 가는 곳마다 활기에 넘치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집안을 위하는 길이고 그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길이고 나아가서는 국가를 번영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지 말고 잘한 것을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것을 꼭 실천합시다.

모든 부처님을 칭찬한다는 대목에서 우리는 다시 살필 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경을 한다지만 어째서 일체 중생을 예경하고 칭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중생의 본성은 불성입니다. 모든 사람의 진면목이 불이며 불의 공덕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래가 일체 중생을 보매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눈, 부처님의 몸이 있어 엄연 부동하고 모든 덕성을 두루 갖추어 여래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을 예경하라는 말씀은 일체 중생을 칭찬하라는 것이며, 무엇을 칭찬하느냐 하면 일체 중생이 여래공덕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을 긍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행원품’에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이루는 방법의 하나로 칭찬여래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일체 여래를 칭찬하는 것이 어째서 한량없는 여래공덕을 성취하는 방법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긍정하고 말하는 것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믿고 긍정하고 말하는 거기에는 말하는 내용대로 이루게 하는 힘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은 믿음의 표현이며 깊은 마음의 형성으로서 말하는 말에는 그 내용을 이루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진리를 긍정하는 말, 자성공덕에 부합되는 말은 진리자체의 발동으로서 그만큼 구체적 실현력을 지닌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 실상을 긍정하는 말은 진리의 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래를 칭찬하고 진리를 긍정하는 말에서 진리의 완전을 실현하게 되므로 칭찬여래가 여래공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말이 참으로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공덕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도 할 것입니다. 진리공덕을 긍정하는 긍정과 찬탄, 적극적 말에서 무량창조가 전개되고, 그 반대의 말에서 공덕의 문은 닫히고 불행과 어둠이 찾아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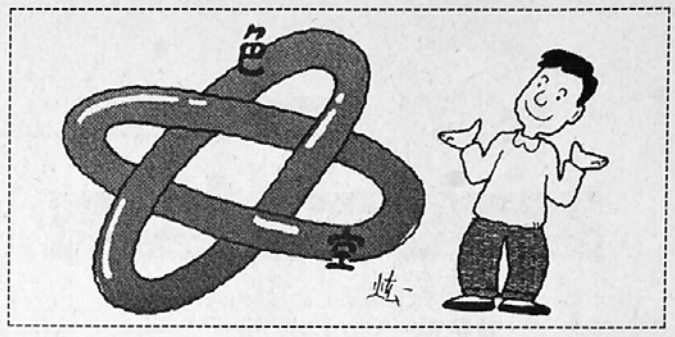
이 도리를 안다면 우리는 정말 말조심을 해야합니다.

진리를 긍정하는 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 낙관적 희망적으로 보는 말,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말, 신념이 담긴 말을 할 것이요, 결코 부정적인 말, 패배적인 말, 나쁜 말, 증오, 분노, 원망, 비난, 저주, 불평불만 등 어두운 말은 멀리 공덕을 발휘하여 밝고 위대한 진리의 세계를 구현할 것을 기약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로 위해주는, 서로 예경하고, 서로 예찬하고, 서로 돕고, 기뻐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어두운 것을 타파해 버리는 방법이고 행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 가운데에 있는 이 근본적인 착각관념을 깨는 방법은 거듭 말하지만 반야의 빛으로 비추어 보아서 일체가 밝은 광명뿐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항상 바라밀을 염송하고 외워서 스스로의 생각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깃들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의 본래의 밝은 모습만이 항상 드러나도록 열심히 정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생활주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원은 바로 창조행이다. 행원이야말로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만드는 원인적인 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밀, 완전구족한 바라밀, 완전성취의 바라밀 이것이 나의 참모습이다. 부처님의 마음, 불성 이것이 나의 본래 모습이다. 이렇게 알고 아주 믿어버리자, 나는 바라밀공덕, 부처님 공덕으로 내 생명 이와 같이 있는 것이니 나는 내가 아니다. 부처님에게 모두를 맡기자.”이렇게 했을 때 우리 생명 가운데 진리공덕이 넘쳐 나오는 것입니다. 행원은 이와 같이 행함으로써 우리와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6

양 형 진

공가중 삼제원융

인간은 아마도 거의 유일하게 반성적 사유가 가능한 생물의 종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인간이란 ‘나는 과연 무엇인가?’하는 것을 물을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한 물음을 자기 자신에게 던질 수 있다는 바로 그 점이 인간을 참으로 인간이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불성의 자각 곧 해탈에 이르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반성적 사유에 의해 나 자신을 포함하여 우주의 모든 사물을 면밀히 고찰하여 보면, 그 크기가 아주 작은 양성자나 중성자에서부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크기가 대단히 큰 천체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불변하는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자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연기(緣起)에 의하여 즉 서로의 연관에 의하여 존재할 뿐이므로 제법무아(諸法無我)라고 한다. 오직 연기에 의할 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으므로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고 한다.

이는 지금 존재하는 그 어느 것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성주괴공(成住壞空)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좋은 예가 밤하늘의 별이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천체들도 시작과 끝이 없이 오직 인연법에 의하여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여 가다가 마침내 소멸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아주 중요한 점을 놓칠 수도 있다. 가령 지금 밤하늘에 있는 별은 성주괴공의 주(住)의 단계에 있는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다가 괴멸하여 공(空)의 단계에 이르며, 또한 이 공의 단계에 있는 이를테면 성간물질과 같은 것들은 공의 상태에 있다가 인연이 화합하여 이루어지면 주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 주와공을 단순히 시간상의 변이로만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색과 공은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지만 색이 변화하여 이윽고 공이 되고 또한 공이 변화하여 이윽고 색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는 색성공(色性空)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간물질의 상태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있는 듯 하기도 하고 없는 듯 하기도 한 상태이다. 또한 별의 상태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성이 없이 쉼없이 변화하여 가는 인연 화합의 상태일 뿐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시간이 경과하면 색이 변하여 공이 되고 공이 변하여 색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색과 공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라는 것이다. 색성공이라는 것은 색의 성품이 공하다는 것이니, 공이란 색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색이 있는 자리를 떠나서 따로 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색은 공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공은 색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좋은 예를 현대물리학의 상대론적 양자역학에서 찾는다. 상대론적 양자역학이 이해하는 진공의 개념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완벽하게 차 있는 상태를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의 자리가 바로 색의

“파도가 바다 떠나 존재하지 못하듯 空·假·中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

세계이며, 색의 그 자리가 바로 공의 세계이다. 따라서 색과 공은 분리해 낼 수 있는 두 세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일 수 밖에 없는 세계이다. 그 하나의 세계를 이르되, 연기하여 머무름이 있으므로 색 혹은 가(假)라고 하고 그러나 일체의 모든 사물은 오직 무아여서 자성이 없으므로 공(空)이라고 하며 또한 그 둘의 양변을 떠나면서 그 양변을 포용하여 중(中)이라고 한다. 공가중 그것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이다.

그러므로 가라 하면 공과 중이 따라오고 공이라 하면 가와 중이 따라 오며 중이라 하면 가과 공이 따라 온다. 이렇듯 공과 가와 중이 거칠 것이 없이 원융무애하니 이를 이르러 공가중 삼제원융(空假中 三諦圓融) 이라 한다. 마치 바다와 파도의 비유와 같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파도의 흰 거품 뿐이지만 이는 바다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의 세계이다.

이러한 하나의 세계는 비단 색과 공, 진공과 묘유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와 보리에 대하여 생사와 열반에 대하여 마음과 중생과 부처에 대하여 다 성립하여야 할 것이다.

〈고려대 교수 · 물리학과〉

화제의 신간
〈보문품〉의 가르침을 우리의 언어로 새롭게 쓴 생명 법문
관세음보살
보문품강화
普文品講話
법령스님 지음
건강 때문에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여 투병해 온 한 출가인의 수행기
고통스럽고 외롭고 잠시 즐거울 때도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여 자신을 가늠하면서 살아온 수행인의 관세음보살의 영험과 체험을 통해 얻은 신앙의 결정체
신국판/값 8,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옛날과 지금 부적의 결정판!!!
김백만 편저/값 35,000원
관음독송경 시리즈
1. 우리말 금강경(심재열/값 2,000원)
2. 한문 금강반야바라밀경(심재열/값 2,000원)
3. 우리말 불설아미타경(심재열/값 2,000원)
4. 한문 불설아미타경(심재열/값 2,000원)
5. 우리말 천지팔양심주경(이청범/값 2,000원)
6. 한문 불설천지팔양심주경(이청범/값 2,000원)
7. 우리말 예불대참회문(심재열/값 2,000원)
8. 지장보살본원경(동봉/값 6,000원)
9. 원각경 보안보살장 · 팔양경(경흥/값 2,500원)
10. 천수경(근간)
11. 부모은중경(근간)
12. 관음경(근간)
※법보시물은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4
전화 : 02) 921-8434, 929-3470 팩스 : 02) 929-3470
관음출판사

서울대 교수, 전북대 총장, 한국철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던 고형곤 박사의 역작!!
增補版
선의 세계
高亨坤 著
제1권
서양철학과 禪
제2권
한국의 禪
한국불교의 통불교적 성격, 선교일치의 전통을 밝히고 동양문화의 특색을 이룬 선불교와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통해 제3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명저
신국판 양장
1권 380쪽 · 13,000원
2권 330쪽 · 12,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646

선(禪)수행의 보고(寶庫)!
지관선(止觀禪)의 집대성!
천태대사의 〈마하지관〉 드디어 현대어로 완역
摩訶止觀
大止觀坐禪法
대지관좌선법
전5권
〈마하지관〉은 천태대사가 선수행의 방편을 자신의 수행 경험과 깨달음의 세계를 통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책이다. 지관법(止觀法)은 석가세존이 깨달음을 얻으신 방편인 동시에 석가세존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고 풍부하게 된 수행방법이다.
天台智者 大師 述
空綠 金無得 註釋
신국판/값 각권 8,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646

고은 불교 대하소설

별 이야기



〈 52 〉

바야흐로 금강산 경계에 다가섰다. 차츰 산세가 그 범용한 것으로부터 수려한 쪽으로 달라지고 있었다.

'금강산 1만2천봉'이라는 굵은 글자를 음각한 돌기둥이 마치 투사람을 일단 멈추라는 듯이 서 있었다.

과현은 그 위압적인 돌기둥에 슬그머니 기가 질렸다. 무욕도의 아무런 유서도 없는 조촐한 도량에서 살아온 것 밖에는 없으므로 이같은 본격적인 진용을 갖춘 산중 입구에서 미리부터 기가 질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그가 수행자가 되기 전이라 해도 사글덩한 포구의 거리가 아니면 하루내내 파도소리에 갇혀있는 먼 바다의 그 망망한 세상의 괴할 수 없는 무기질(無機質)의 절망밖에는 경험한 것이 없다.

물론 조기철이면 끝도 없는 조기떼 행진이 바다 밑으로 커다란 소리를 내며 지속될 때의 그 비장한 느낌은 실로 드문 경험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런 것과는 사뭇 다른 이 금강산 경계의 삼엄한 기운은 일단 과현에게 여지없이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것이었다.

어디 과현 분이겠는가. 내로라하는 수월도 금강산에 가까워지는 동안 어정쩡한 것이었다.

"과연 좋은 도량인 것 같소."

라고 수월이 한 마디 꺼냈다.

문득 자작나무 숲이 다른 오래된 나무들과는 따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에 이르자 그때까지 숨겨져 있던 계곡의 물이 몹시 강한 물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때였다. 넓은 폭의 계곡 가장자리 물푸레나무 자라에 앉아있던 까마귀 한 마리가 후닥딱 날아갔다. 과현이 잠시 놀랐다. 그 까마귀가 날아간 뒤 돌기둥 저쪽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어서 오시오."

라는 말소리는 낯익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도피안사 곰보주지였던 것이다.

"아니?"

라고 과현이 의아한 신음소리를 냈다. 수월도 마치 각오라도 했던 것처럼 태연한 표정이었지만 그 표정은 차츰 다른 것으로 바뀌어갔다.

도대체 이 곰보처사는 누구란 말인가? 사람인가? 귀신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백년 묵은 여우의 둔갑인가?

하지만 수월은 그 곰보에게 조금도 당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았다.

"금강산에 들어가시는 길입니까?" 라고 재법 너스레까지 내보이며 말을 걸었다.

"나는 금강산 비로봉에 올라 한밤중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이 일입니다. 이제 그곳의 밤중은 여간 춥지 않아서 털가죽이나 무명천 누비옷따위로도 견딜 수 없어서 몇 달동안은 그 일을 아래로 내려와서 이어갈 도리 밖에 없습니다."

"별? 별을 바라보시다니요? 혹시 별로 점(占)이라도 치십니까?"

"아닙니다. 별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셈입니다."

"별과 함께 공부라?"

"암요. 별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사람들과 공부하는 것보다 월등한 일입니다."

이왕에 말을 주고 받게 되자 수월은 마음에 두고 있던 말을 꺼냈다.

"도피안사 주지로 계시면서도 별과 함께 공부하셨습니까?"

곰보처사는 실로 눈 깜짝할 사이 수월을 쏘아보는 것 같았으나 바로 별 얘기로 돌아갔다.

그가 말하였다.

"별들도 공부합니다. 별의 운행 자체가 공부인 것이지요. 우리나라 어진 사람들은 태고 이래로 늘 별에게로 올라가기도 하고 별들을 지상에 불러서 내려오게도 하면서 언제나 별과의 대화를 해왔답니다."

"…"

"옛 현묘(玄妙)한 도(道)라 함은 거의가 다 별과 함께 공부한 데서 얻은 열매였습니다. 그것은 부처다 중니(仲尼-공자)다 또 어떤 신선이다 하는 것 이전의 도입니다."

"…"

"이런 일을 불교의 한 선승이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옛 부처가 아직 태어나기 전의 그 까마득한 옛날 옛적에 이미 한 덩어리 둥근 바 어엿하니(古佛未生前渾然一相圓)'이 그것이지요."

수월이 한 마디 끼워넣었다.

"어찌 무식하다 무식하다 하셨는데 이렇듯 밝으십니까?"

"무식하다 함은 유식이다 무식이다의 차별을 통 모른다는 뜻이겠지요."

곰보처사의 말투로 보아 그 사람이 심상치 않은 것을 수월이 짐작하지 못할리 없었다.

곰보가 말하였다.

"따지고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 마지막 대각(大覺)이 새벽 별에의 깨달음으로 가능하셨던 것이지요."

"흠!"

수월은 상대방에게 차츰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우리 조선은 차츰 별들과의 관계를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주학(程朱學)은 관에 박힌 예(禮)로써 배척을 일삼고 있어서 양반이나 사대부는 백성과 동떨어져 있고 그 공리(空理)만을 주장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

"그런 즉 밤하늘 한번 우러러 볼 겨를이 없습니다. 오로지 문자 한 자의 뜻을 서로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공리에 맞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길도 너무 땅 위의 일에만 골몰한 나머지 땅과 하늘의 일치된 이치를 살피지 않습니다."

"…"

"별 없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선8도의 명운이 이렇게 가파로워졌습니다."

"어찌하면 될까요?"

라고 과현이 물었다.

곰보처사가 바로 분명한 대답을 하였다.

"오로지 이 땅의 아이들에게 나는 희망을 겁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별빛입니다. 그 아이들이 별과 함께 공부하는 때가 오면 우리 세상은 미침내 하늘과 땅의 무궁함이 펼쳐져서 밤에는 온통 별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 함께 있고 낮에는 땅 위의 온갖 꽃이 하늘로 올라가 하늘과 하늘을 재우는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수월은 더이상 그의 말만 듣지 않았다. 듣고보니 곰보가 유창하게 펼치는 말은 도(道)의 말이기 보다 한갓 사장(詞章)의 정취로 된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도피안사가 있다 없다 하는 꺼덕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약간 목소리가 컸다. 그 말소리는 반드시 상대방으로부터 바른 대답을 듣겠다는 의지이기도 하였다. 결코 어물어물 넘어갈 수 없었다.

"오로지 이 땅의 아이들에게 나는 희망을 겁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별빛입니다. 그 아이들이 별과 함께 공부하는 때가 오면 우리 세상은 미침내 하늘과 땅의 무궁함이 펼쳐져서 밤에는 온통 별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 함께 있고 낮에는 땅 위의 온갖 꽃이 하늘로 올라가 하늘과 하늘을 재우는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수월은 더이상 그의 말만 듣지 않았다. 듣고보니 곰보가 유창하게 펼치는 말은 도(道)의 말이기 보다 한갓 사장(詞章)의 정취로 된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도피안사가 있다 없다 하는 꺼덕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약간 목소리가 컸다. 그 말소리는 반드시 상대방으로부터 바른 대답을 듣겠다는 의지이기도 하였다. 결코 어물어물 넘어갈 수 없었다.

"이땅의 아이들에게 나는 희망을 겁니다. 그 아이들의 눈빛은 별빛입니다"

새삼 곰보처사의 코에 주름이 모아지는 것이었다. 이윽고 그의 입이 열렸다.

"도피안사는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

"화상들께서 있다고 여겼을 때는 그것이 있었고 화상들께서 돌아다보았을 때 그것이 없었던 것은 이미 화상들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없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를 소리요. 피리를 불고자 할진대 피리소리를 미련해야하지 통소소리를 내서는 안되겠지요."

곰보처사가 그의 큼직한 수염을 한번 쓰다듬었다.

"자 저쪽 단세교(斷世橋)를 건너갑시다. 거기 가서 요기라도 합시다."

라고 곰보가 제안하였다.

수월도 과현도 그 제안에 따랐다.

그런데 단세교는 아주 낡았고 지난번의 큰비로 그 둘 난간의 한쪽이 어긋나 있었다. 그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넜다.

그들이 다 건너고 난 뒤에 바로 다리의 기둥 하나가 무너지며 다리 전체가 계곡의 물 속에 묻혀버렸다.

곰보처사가 한 마디 내뱉었다. "다시는 이 다리로 들어가지 말라는 뜻인가 봅니다."

이제부터 수월이 말을 이어 가고자 하였다.

"도피안사는 언제 창건한 절입니까?"

그때 곰보처사가 정색하였다.

"화상! 나는 화상의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도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름이나 어떤 유서 따위야말로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의 몇 구절이 공연히 나불대는 혓바닥이 아닐 것입니다. 이름이나 모양이나…"

"나는 도피안사를 묻고 있습니다."

"글쎄 나는 그 절이 고구려때 지었는지 신라 진흥왕 때 지었는지 아니면 고려 왕씨(王氏)들이 비보사찰(裨補寺刹)로 지었는지 도무지 알 바 없습니다. 나는 내 낯짝에 곰보자국 조차도 보지 못하면서 곰보라는 이름을 얻고 있으니 숫제 공짜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체(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를 위해서 세계(世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필 중이 되어 떠도는 것도 교조(敎祖) 석가모니부처님의 체를 이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곰보는 화를 내는 것 같이 큰 소리를 냈다.

"저 알지도 못하는 가섭존자로부터 1조니 2조니 시작해서 달마를 28조로 섬기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선종(禪宗) 제1조로 섬기고 있는 것도 실로 우스광스러운 노릇입니다. 어떻게 깨달음에 조종(祖宗)이 있고 그 법을 전하는 제자가 대대로 이어져 줄을 서고 있는 것입니까?"

"…"

"모두 다 망상입니다."

"…"

"금강산 들어가시는 길이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만."

"그곳 신계사에 가서 한 도인을 만난다고 해서 천지가 한번 개벽이라도 되겠습니까?"

"개벽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간다는 생각도 굳이 없습니다. 그저 가는 길이고 가야할 길입니다."

"그 신계사 도인의 이름을 아시지요?"

그때 작두로 마른 풀다발을 썰듯이 당장 대답하였다.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신계사라는 절이름도 잊었다가 이제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곰보처사가 멀리 내금강 쪽을 바라보며 한 마디 씨부리는 것이었다. "제법이로군. 금강산에 들어가 한바탕 휘저을지도 모르겠지… 그래야겠지. 그래야 금강산도 깜짝 놀라 눈을 부비게 되겠지."

그림 · 조향숙

"신계사에 가서 도인을 만난다고 천지가 개벽이라도 되겠습니까?"
"개벽때문에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쑥 나타난 곰보가 한마디 씨부리었다.
"제법이로군. 금강산에 들어가 한바탕 휘저을지도 모르겠지"

천개의 손과 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방황하던 우리의 영혼을 불러들여 보다 아름답고 통쾌한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삶의 지침서!

석우스님 지음

기초교리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20여년을 승려 생활하면서 스님, 왜 불교는 스님마다 설법이 다릅니까? 불교는 알듯하면서도 도통 모르겠습니다. 스님, 불교는 왜 통일되고 체계있는 이론이 없습니까? 깨달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초심자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소개해 달라고 하면 많은 서적 중에서 어떤 책을 소개해 주어야 하는지 난감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이 너무 많아서라거나 그 내용을 다 읽어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정말 초심자에게 안성하고 권할 수 있는 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강의를 마감하며 이 책을 내었습니다. 책을 내어보니 부족한 점은 없지 않으나 그나마 속이 후련합니다. 하고 많은 책 중에서 왜 기초교리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초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면 중급교리인 반야심경과 금강경도 쉽고 재미있게 써볼 작정입니다. -저자의 말-



부처님은 누구인가?

부처님을 알려면 본래적인 의미의 부처님과 역사적인 부처님을 다 알아야 합니다. 본래적인 부처님은 우주의 주체입니다. 그것을 법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진리의 성품」을 말합니다. 우주의 신이 있어서 창조한 것이 아니고 법성의 법칙에 의하여 우주가 맺어진 것입니다. 주변에 이미 그러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을 잘 둘러보면 과거·현재·미래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한 탐구심만이 우주의 근원과 그 결과를 알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중생과 부처님은 어떠한 관계인가? 이제 이런 문제로 자비의 전화에 전화걸지 마십시오. 문제의 답을 자기의 속에서 찾도록 하십시오. 확실한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알면 우주를 알고, 자신을 깨달으면 대자연을 압니다. 당신은 지금 거기에 있는 당신이 진정 당신의 정체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기초교리서가 아닙니다.

늦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값 6,500원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30번지 ☎ 02) 720-1147~8

불기 2540년 丙子年 달력 16나한도 보급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감로출판사에서는 불기 2540년 (병자년) 16나한도 불교달력을 기획·제작하여 보급합니다.
전국에 계신 대덕 큰스님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 제작과정이 복잡하므로 미리 서신이나 FAX로 주문바랍니다.



■달력 크기 26cm×26cm

감로기획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전화 : (02) 723-4306~7
팩스 : (02) 738-8682

"착한아내가 바른사회 만든다"

경전에 나타난 바람직한 아내상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안살림을 꾸려온 부인 김옥숙씨의 남편 못잖은 행동은 우리 사회의 아내들에게 또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가정은 사회구성의 최소 핵심단위이며 특히 가정에 있어 아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남편과 자녀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또한 아내의 역할이다. 지도자의 윤리상실 도덕성의 부재로 더욱 혼탁한 이 시기에 다시금 아내 자리를 돌아보게 된다. 부처님은 자상하게 바람직한 아내상에 대해 일러주었다. 경전을 근거로 바람직한 아내상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가정에 있어 아내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하다. 가정은 바로 우리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일곱가지 종류의 아내가 있다. 하나는 어머니같은 아내요, 둘째는 누이같은 아내요, 셋째는 친구같은 아내요, 넷째는 며느리 같은 아내요, 다섯째는 종 같은 아내요, 여섯째는 원수 같은 아내요, 일곱째는 생명을 빼앗는 아내다. 너희는 이제 알겠느냐?"

부처님이 아내의 일곱가지 유형을 설명하며 교만하기 짝이 없었던 급고독장자의 며느리 옥야를 교화한 내용을 담은 〈옥야경(玉耶經)〉의 내용이다.

2천5백여년전 부처님이 설하신 이 〈옥야경〉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그리 동떨어진 고리타분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부처님은 구체적으로 어머니같은 아내에 대해 남편을 사랑하고 생각하기를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여 밤낮으로 키우고 길러 시간의 알맞음을 잃지 않는 것과 같이 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편을 받들어 섬겨 지성으로 공경하고 따르며 항상 서로 의논하고 서로 친하고 사랑하여 생활하기를 선지식과 같이 하는 것을 친구같은 아내라 했다. 이 〈옥야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설했다.

"여자가 남편과 시부모 및 어른을 섬기는데 다섯가지 착한 것과 세가지 악한 것이 있다.

무엇이 다섯가지 착한 것인가? 하나는 남보다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며, 맛있는 음식을 먼저 드리는 것이요,

어른공경·부지런함 보여 가정·친인척 화목 도모

둘째는 때리고 꾸짖어도 분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한 마음으로 남편을 섬겨 간사하고 음란하지 않는 것이요, 넷째는 남편이 오래 살기를 원하면서 몸으로써 받들어 섬기는 것이요, 다섯째는 남편이 멀리가면 집안을 정리하여 두 마음이 없는 것이니, 이것이 다섯가지 착한 것이다.

무엇이 세가지 악한 것인가? 첫째는 남편을 가볍게 여기고 어른께 공경스럽지 못하며 맛있는 음식을 제가 먹으며 어둡지도 않은데 일찍 눕고 해가 올라와도 일어나지 않음이다. 남편이 가르치고 꾸짖으면 눈을 부릅뜨고 성내어 대답하는 것이요, 둘째는 남편을 보면 기뻐하지 않고 마음이 항상 그릇되어 다른 남자의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요, 셋째는 남편이 일찍 죽어서 다시 시집가기를 원하는 것이니, 이것이 세가지 악한 것이다"

선생장자와의 문답을 통해 가족과 이웃간의 생활윤리를 밝혀주는 〈선생경(善生經)〉에도 아내의 도리가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

"아내는 다시 다섯가지 일로써 남편을 공경해야 한다. 어떤것이 다섯가지인가? 첫째, 먼저 일어나는 것이다. 둘째, 나중에 앉는 것이다. 셋째, 부드러운 말을 쓰는 것이다. 넷째,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다섯째, 뜻을 먼저 알아 받드는 것이다"

또한 "옛부터 착한 아내는 영예가 있고 말과 행동에 법이 있어 친척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영화를 입고 천룡과 귀신이 그 몸을 옹호하여 횡액을 당하지 않으며, 악한 아내는 악한 이름을 얻어 현재의 몸이 편안함을 일으키고 화를 부른다"라고 하여 가정에서의 아내의 마음가짐과 행동거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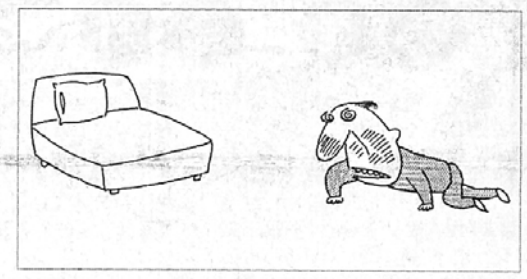
이은자 기자

이런 후 건강칼럼

<40>

숙면음식조절

취침전 과식·카페인음료·알콜등 삼가야



밤에 잠을 들 수가 없는 사람들이 호소하는 내용을 보면 잠을 스스로 쫓아놓고 잠이 안온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 잠이 안온다면 잠이 안오는 이유가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그 원인은 너무 복잡하여 한두 가지의 원인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상당부분 심리적인 원인으로 잠을 설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심리적인 원인이라면 번거로운 마음으로 인해 생길 수가 있고 번거로운 마음은 결국 지나친 걱정이나 망상된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비롯된다. 이런 지나친 걱정이나 망상된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취하는 우리들의 행동마저 오히려 그것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잠을 자는데 불편을 주는 것이라면 일단은 그것으로부터 먼저 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해로운 것을 적어본다. 첫째 잠들기 전에 과식을 피해야 한다.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소화기관의 활발한 움직임을 요구한다. 활발한 소화기관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면 잠은 자연히 밀릴 수 밖에 없다.

카페인과 같은 잠을 쫓는 물질이 함유된 음료는 피해야 한다. 커피로 대표되어지는 차는 카페인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고 홍차에도 마찬가지로 다량 함유되어 있다. 술도 마찬가지다. 알코올 성분으로 일시적인 수면효과를 기대하는사람도 있으나 수면을 목적으로 권할 물질은 아니다.

자기 전에 몸과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몸이 번거로운 것은 심한 운동을 하는 것이고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자극되어 흥분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잠은 낮동안 활발하게 움직였던 몸과 마음이 잠잠하게 휴식상태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기의 리듬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것은 리듬을 깨는 일이다. 텔레비전과 같은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늦게까지 자극받는 일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몸과 마음을 담담히 만드는 각자 나름의 방법을 가져야 한다. 마음을 한곳에 모아 고요한 경지에 드는 일을 불가에서는 선정이라고 말한다. 우리들이 선정에만 들수 있다면 잠같은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을 한곳에 모으는 일'이라면 반드시 어떤 격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잠에 해로운 행동을 삼가하면서 하루를 잘 보낸 감사와 반성으로 마음을 한곳에 모을 수 있다면 그 또한 잠의 선정이 아니겠는가. 낮의 흥분한 상태에서 밤의 진정된 상태로 자신을 관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 세속의 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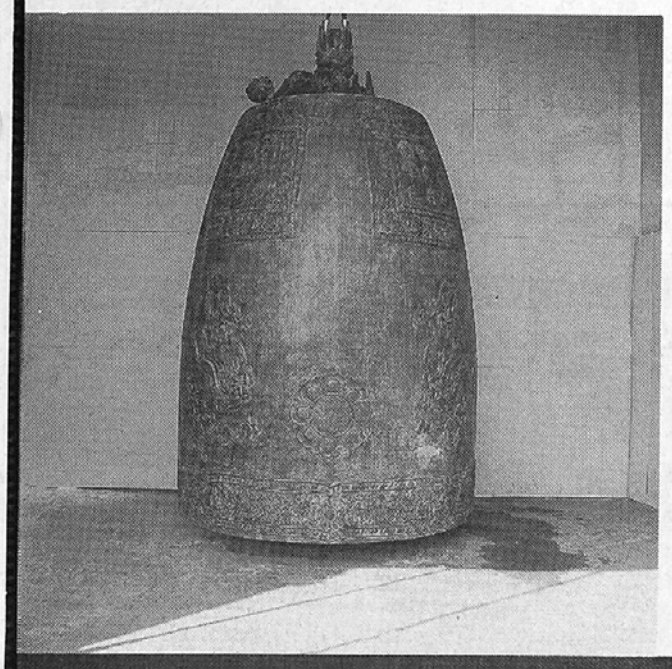
지혜로운 이는 보시를 좋아한다



이 향 원



신라범종과 고불의 재현



"범종 주조의 기술혁신과
이조부처님의 재현을 위해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연구끝에 특수주조 정밀공법을 개발하였으니
고승 대덕 스님과 사부대중의 지도편달 바라오며
을해년 한해도 불사의 현장에 창업 45주년 경험과
성실을 바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국내최대 범종주조회사 성종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2(조계사 앞)

■서울사무실 (02) 733-6141
■공 장 (0331) 283-2083
■부산지사 (051) 803-0781

대표 원광식(梵山) 합장

한·일과거청산 국제학술 심포지엄 – 지상중계

일본의 솔직한 사과·배상 선결과제

한일과거청산범국민운동본부(상임의장 서돈각)는 지난 8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광복 50주년기념 '한일과거청산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한일협정과 과거청산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과거청산을 위한 공통의 역사인식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수립을 모색키 위해 열렸다. 주제발표와 토론 요지를 싣는다. 〈편집자〉



◇ 한일과거청산범국민운동본부가 '한일협정과 과거청산의 과제'란 주제로 마련한 학술심포지엄. 65년 한일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무엇을 청산할 것인가

고 은
〈시인·본지 논설고문〉



크고 작은 침략행위까지 소급
명분과 함께 '실질 청산' 되어야

일본의 이웃나라에 대한 오랜 계략은 임진왜란을 넘어 고대 한일관계이래 계속돼 온 크고 작은 침략행위에까지 소급되어 마땅하다. 그러나 알본은 일제 식민지 기간만이라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행위조차 불가능한 상태이다.

일본은 때로는 강변, 때로는 일시후퇴를 번갈아 가면서 한일합방의 진실자체를 왜곡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 선린의 비탕이 되는 공통된 역사인식을 실현할 수 없게 만드는 한일관계의 큰 장애물이다.

일본 외무성의 문서에 따르면 이미 명치유신 직후의 일본은 향후 1백년간의 구도로써 한반도를 삼키기 위한 면밀한 국가계획에 왕의 결제까지 받아놓고 있었다. 이같은 계획이야말로 최근 한일합방이 양국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는 일본 수상의 발언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36년간의 한반도 통치가 한국 근대화에 이바지했다든지,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하는 전후 지도층의 뻔뻔스런 발언들은 36년간의 일제강점이 한국인에게 은혜였다고 망발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과거청산이란 커다란 과제를 완성해야 한다.

과거청산은 명분과 함께 실질도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 당시 서독 수상과 대통령의 진지한 언동을 통해 나치는 물론 독일 국민전체에도 전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표했다. 이런 명분 위에 물질적 배상이나 반성의 표시를 반영구적으로 지속했던 것이다. 일본 역시 과거청산의 의지가 있다면 책임있는 정부기구를 통해 실천을 보여야 한다.

한·일 협정의 문제점

한 상 범
〈동국대 교수·법학〉



뒷거래흥정…日측 과거 '합법' 해석
위안부·강제징용등 주요사안 빠져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이란 조약문서는 '한일기본조약'을 비롯해 '교포의 법적 지위 협정' '어업 협정' '청구권협정' 및 '문화재 협정' 등을 담고 있다.

이들 조약문건의 문제는 △합의과정에서 뒷거래 흥정이 있었으며 한국의 민족자존과 국민이익을 양보·포기해 불리하게 되었으며, △문건의 내용자체가 잘못되어 종군위안부 문제등 중요한 사안이 빠져 있고 △협정의 집행이나 해석에서 착오내지 협잡이 있다는 점들이다. 이로 말미암아 국민적 피해, 민족적 모욕과 함께 친일 부패 세력을 돕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일협정〉은 한일간의 과거침략사실에 대해 제2조에서 합방조약을 강요해 체결한 날짜(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두 나라 사이에 체결한 조약이나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본론을 비켜가고 있다.

일본측 해석으로는 합방조약의 무효는 1948년 한국이 독립이 됨으로써 무효가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일제의 1905년부터의 강점 지배와 만행은 합법이란 해석이 된다. 이는 〈한일협정〉이 일본이 베풀어 준 한국독립의 축하조약이며, 청구권 자금(3억불)의 성격도 배상금이 아닌 축하금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한일협정〉은 군인 군속, 강제연행한 노무자나 종군위안부로 끌려가 죽거나 생존한 이들이나 그 유족에 대해 그들 개인이 가지는 권리까지도 몰수할 권한이 없다. 정부는 재일교포를 생지옥의 피해자로 방치하게 한 이 매국 협정을 즉시 개정하여 교포에 대한 차별과 학대를 시정토록 해야 한다.

토 론 요 지

과거청산 실제와 과제



강 만 길
〈고려대 교수·사학〉

적절한 배상·한반도 통일에 중립을
日 경제·군사적 패권주의 포기해야

고은씨는 주제발표에서 일본의 투명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과거청산과 우리 스스로의 식민잔재 청산을 통한 새로운 21세기 동아시아 건설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정진성 덕성여대교수는 토론에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한일합방과 한일협정의 원인무효와 개정논의는 물론, 일제하의 군인 군속문제와 재일교포 문제, 정신대·원폭피해자 문제, 사할린 잔류자 문제, 희생자 유골송환 문제 등도 양국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장희 외국어대교수는 한일협정 문제와 관련 "국제법적으로 이 문제를 따질 필요가 있다"면서 "36년간의 일제의 한반도 지배가 불법임을 확인받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쳐 한일간 기본조약을 무효화시키고 재협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또 "일본이 세계의 평화대국으로 거듭 나려면 한일간의 문제를 국제법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며 "강제징용, 정신대 문제등을 해결할 법적인 책임을 문서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과거청산을 위한 한반도 불법 침략의 인정과 피해 보상,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한일협약의 개정 등을 주장한 강만길교수의 발표에 대해 김봉우 민족문제연구소장은 "한일문제에 대한 일본의 2중적 자세는 일본의 패권추구욕을 감추려는 위장전술"이라면서 "한일간의 새로운 선린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함께 한국 내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와 강력한 의사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작가 오다 마코토씨는 양국시민의 교류를 통한 한·일과거사의 바람직한 청산을 주장했다. 그는 또 "한일협정이 현재 많은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폐기하고 시민간의 진지한 교류를 원리로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강창일 배재대교수는 "일본의 시민운동은 한국과는 달리 제한된 시민이 체념상태에서 하는 소규모운동"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시민운동은 집단불감증을 치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교수는 또 "일본은 천황제가 존속하는 한 국가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정치와 국민의식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망언은 계속될 것이기에 국가적인 과거사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정보다 국제법 대응 바람직
日잔재 청산·민족정기 회복 절실
원폭피해자·정신대·유골 송환등 해결 우선돼야

일본은 과거사를 솔직히 인정하고 배상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군사적 패권주의를 포기하고 평화주의 국가로서 자세를 확실히 함으로서 피해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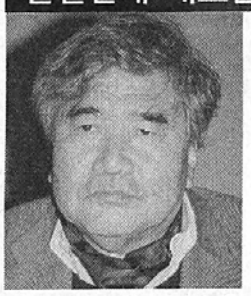
21세기 동아시아의 평화·발전과 협력을 추구하는 지역공동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지역의 평화적이고 대등한 통일이 선결과제이다. 일본은 한반도 지배가 분단으로 연결된 사실을 기억하고 통일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일본은 앞으로 북한과의 '조일조약'을 한일조약과 같이 침략과 강제성이 엄폐되고 배상이 배제된 조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사회당 소속 수상까지 나서 한일합방의 합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일제시대에 조선에 유입된 일본자본이 80억 정도인데 비해 일본이 조선에서 가져간 액수는 금괴와 군사비, 저축자금, 국공채들을 합쳐 최소한 340억엔 이란 통계가 나왔다. 이는 그들의 식민지배가 이익을 줬다는 주장이 허구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 일본측 통계에 따르면 1939~1945년 사이에 모집등의 명목으로 일본에 끌려간 조선 노동자가 72만4천7백명, 1941년 이후 징용으로 끌려간 조선인이 약 20만5천명, 군사요원으로 끌려간 조선인이 1939~1945년 사이에 14만5천여명이었다. 일본군 육군으로 끌려간 조선인은 18만7천여명이었는데 그중 5660명이 사망했고, 해군은 사망자 250명을 합쳐 2만2천300명이었으며, 군속이 사망자 2792명을 포함한 7만4백여명이었다.

한일관계 새로운 모습



오다 마코토
〈일본작가〉

"합방경위 양국민 공동논의 하자"
한일협정 현실고려 새로운 체결을

불평등 했던 한일관계의 올바른 교류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두나라 시민간의 교류가 선행돼야 한다.

올해 1월 17일 새벽 5시46분에 니시노미야(西宮)시를 포함한 효고(兵庫)현 남부지역에 '한신대지진'이라고 불려지는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다. 이때 참혹한 관동대지진의 기억과는 달리 한·일 양국의 시민은 국경을 초월해 상부상조를 통한 공생관계를 보여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본은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그것을 청산하려고 노력하기는 커녕, '전후 50년'은 끝났으며 이제부터는 '공생의 시대'라고 떠벌리면서 과거와 현재에 걸친 책임을 내팽개치려는 움직임을 정치 사회 또는 기타 영역에 확산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8월에 중의원이 제출한 '국회 결의'를 통해 종군위안부들의 비참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불문에 부치고 개인보상을 민간차원의 모금 형식으로 하는 '민간기금'도 이러한 움직임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무라야마총리의 발언으로 한국에서 문제가 된 '한일합방'의 경위에 대해서는 양국의 시민이 모여 철저하게 논의한 후에 이 논의의 경과를 바탕으로 양국관계의 역사를 공동으로 쓸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한일관계를 규정해 온 한일협정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한일협정은 냉전구조의 산물이므로 현실상황을 고려하면서 시민간의 진지한 교류를 원리로 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근거한 영세중립을 선언하므로서 아시아·세계와의 밀접한 교류를 시작해야 한다.

그룹으로 周易 강의합니다

易은 훌륭한 철학서인 동시에 占書이기도 한데 소리에 응하는 메아리처럼 미래에 야기될 사태를 정확히 예고하는 無上의 인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정:3개월
전화:(02) 723-5665

※지방도 출장지도합니다.

법당 신축 협찬자 구함

-충주댐 강변 진입도로변 법장지 요지
:게명산 석굴암 요사채 시설지
• 석굴암 본존 석가모니 불상 7자 높이, 굴 50평
• 석탑 5층탑 22자 높이
• 관세음보살상 15자 높이
• 아미타불 좌불상 5자 높이
• 요사채 2층 방 6 / 요사채 1층 방 3 ➡ 35평형

-대지 705평 도로 포장 시설지
• 현 3억 5천 투자 시설된 곳 이후 5억 투자하실 분 구함
• 향후 법당, 대웅전 증축, 요사채 및 산신각 증축 계획
• 신실사찰, 신축지 1,000평 내외 양도 가능

연락처
집(조석)
0441-851-3866
사찰(12시)
0441-853-2896

※ 사찰 운영할 보살스님, 목지기, 세사찰개발 운영하실 분 환영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쉽게 풀이된 해설「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학교수업식「강의 녹음」학습
대학 졸업과정	⊙ 철저한 1:1「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영·수)「비디오강평교사」(개인적도움) 특별제공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정일(남, 27세)드림-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항만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씨비스 080-023-4600

특집 — 겨레의 얼.세계의 자랑,경주를 지킵시다②

'고속철 백지화' 서명 열풍

현재 170여 대표단체 참가…문화·학술·시민단체 줄이어

대학가·등산로·사찰입구등 전국으로 확산…성금도 답지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를 위한 1백만 서명운동이 전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 문화, 시민 단체별 동참이 늘고 있어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 운동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영) 관계자에 따르면 "고속철 백지화운동에 7일 현재 전국 1백71개의 대표단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산하단체까지 포함하면 6백개가 넘는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이들 단체별 참여는 불교계뿐 아니라 문화, 학술, 시민단체등 참여폭이 전국민으로 번지고 있다"며 "불교계가 전개하는 운동에 일반 시민단체가 대거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서명동참자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고 말했다.

이처럼 단체별 동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추진위는 지난 5일 서울 도봉산 입구와 도선사입구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고속철도 경주통과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3천여명의 서명을 받았고 인천 용화사법회에서는 1천2백여명이 동참하였다.

또한 공해추방운동본부 불교연합(회장 월주스님)도 4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30여명의 회원들이 '고속철 경주통과 백지화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날 도봉산 등산에 앞서 고속철 경주통과 반대서명에 동참한 김이현(서울 방배동)씨는 "세계적인 문화재 사이로 고속전철을 건설하려는 정부의 문화정책에 허를 내두를수 밖에 없다"며 "경주지역으로 고속철도가 통과돼야 하지만 도심통과는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는 이달부터 문화재 위원 학계 불교계 인사를 초빙, 주요도시에서 순회강연과 서명운동을 펼치며 매주 토·일요일을 기해 전국 관광사찰과 번화가 대학가에서 홍보와 시민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방학에 앞서 각대학교의 불교학생회와 사학과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추진위는 또 이달말 심포지엄을 열어 문화재 과괴의 실상과 고도보존법의 필요성, 제3의 수정노선들을 홍보하며 여론을 형성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제3노선이 옳다" 경주 경실련이 지난 2일 개최한 고속철 경주통과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제3노선의 당위성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제3노선은 경주 남산과 15km가량 떨어져 우회하는 노선으로 문화재 보호와 지역민 불편해소에 적합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다.

경주남산 특별전 대성황

전국서 관람객 쇄도

성보 250점 전시… '불국토 훼손' 몰염치 반성기회

세계최대의 석불보고인 경주 남산에 전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고속철도의 경주통과로 인한 훼손 위기를 안타까와 하는 국민들이 '경주남산특별전'〈본지 50호13면 참조〉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지건길)이 지난달 17일부터 안압지관에서 열고 있는 남산특별전에는 개막이후 하루평균 9천7백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오는 19일까지 열기로 한 전시기간을 한달간이나 연장할 만큼 성황이다.

이에대해 지건길관장은 "고속철도 경주통과로 신라불교의 성지인 남산이 훼손위기에 처해서인지 경주사람들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남산전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남산에서 출토된 신라시대의 불상·토기·범종 등 성보와 선사시대 유물 2백50여점이 전시되고 있는 전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유물들은 1백22곳에 이르는 남산의 절터에서 출토된 유물중 용장사 사제사등 대표적 사찰터에서 나온 신라 성보들이다. 신라불교조각의 친근한 조형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석불들은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장창골의 한 석실에서 옮겨온 석조 미륵삼존불상, 배리에서 출토된 삼존석불, 인왕동 석조여래좌상, 개선사지 약사여래입상 등의 석불들을 차례로 둘러보면 불국토를 꿈꾸었던 신라인의 마음을 그대로 읽게 돼 고도파괴를 기도하는 후손들의 몰염치를 반성하게 한다.

영남고고학회 반대성명
고도보존법등 제정촉구

지난달 24일 문화재위원회(위원장 임창순)가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데 이어 영남고고학회(회장 김종철 계명대박물관장)가 이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지난 2일 발표했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주통과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이 성명서는 고속철도의 경주통과 철회를 재강조하면서 문화재보존으로 인한 경주시민의 불이익 해소와 경주고도의 효율적 보존을 위해 신도시의 건설과 고도보존법, 역사고도풍치보존법의 제정등을 촉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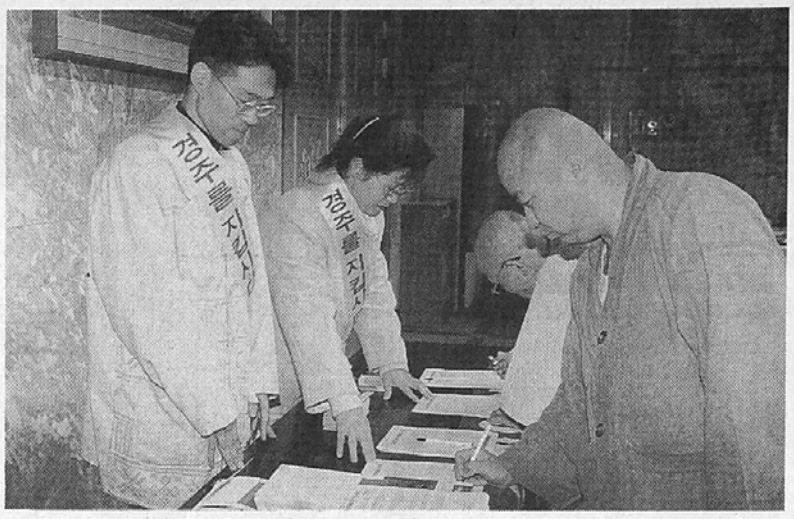
성명서는 또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서천 뚝 위의 고가교는 경주를 동서로 가르는 분홀선이 되며, 열차가 일으키는 소음과 진동은 경주를 공해로 뒤덮을 것이 확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경주의 경관을 변형시키는 개발은 진정한 개발일 수 없으며 경주의 보존이야말로 진정한 개발임을 강조하고 있다.

성 금 내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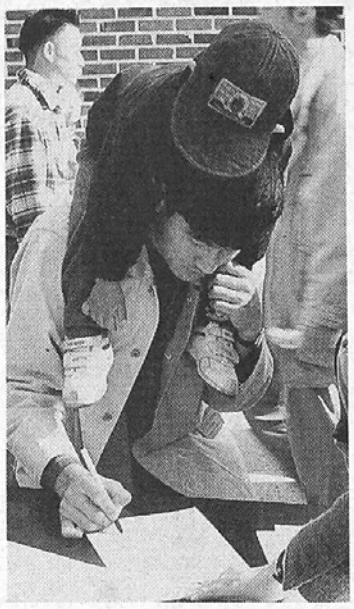
단 체	성 금	서명동참	성 금	서명동참	성 금
재기회의	3,000,000	봉원사법회	92,000	배효인	38,000
불이회	1,759,000	불광사법회	15,100	변미숙	10,000
갤러리 현대	1,000,000	진흥원법회	40,000	대각불교청년회	23,000
대한불교진흥원	1,000,000	봉은사법회	60,500	연심회	270,000
보덕학회	1,300,000	박삼국	20,000	국청회	15,000
여성문제연구회	1,000,000	대전대중불교기자	15,000	불교문화센타	20,000
우리는 선우	1,159,000	김웅	20,000	한국불교교화원	111,000
금성사	100,000	김영숙	18,000	군산불교교대학생회	37,000
김해불교신도회	100,000	구룡사	28,000	전교조	10,000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100,000	명성여고	20,000	인천용화사	714,000
삼보법회	100,000	충주불교청년회	10,000	대한불교진흥원	17,000
한국불교교화원	100,000	정인악	20,000	대구서봉사	20,000
살상사	100,000	춘천불교청년회	93,000	마포김금선	5,000
부산한일합섬불지회	50,000	대전불교대학	160,000	김종서	13,000
전통가사연구원	10,000	이광애	105,000	서남재단	1,000,000
공해추방운동	10,000	송인성	108,000	세림문화재단	1,000,000
추진대회	204,000	거제불교청년회	108,000	현대불교편집국	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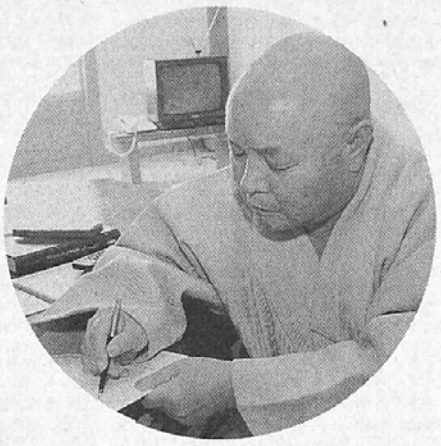
화보



"성지 수호"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조계종 제119회 정기종회개최에 앞서 종회의원 스님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아빠, 나도 반대해요" 지난 4일 전국 관광사찰과 등산로, 대학가에서 서명운동이 펼쳐져 5천여명의 시민이 고속철 경주통과를 반대하며 서명에 동참했다.



"방장 노스님도…" 덕숭총림 방장 원담스님이 지난 4일 현대불교신문사가 주관한 방장친견법회를 마치고 고속철 경주통과 백지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스님은 "성보문화재를 훼손하는 것은 곧 법난이다"며 "천년고도 경주 지키기에 불자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상 최대 법난' 정부의 고속철 강행방침에 불교, 문화, 학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각 종단과 1백2개 단체는 지난달 18일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원회를 발족, 선언문과 결의문을 채택했다.



맹추위에 노익장 지난 4일 이기영 경주통과백지화운동본부장은 서울 도봉산 입구에서 등산객들의 서명을 받았다. 서명자들은 1백만으로는 안된다면 1천만 운동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가입단체

기락불교청년회 (회장 허명호)
강원대박물관 (관장 신종원)
갤러리현대 (이사장 박명자)
경기불교연합회장 (회장 임선교)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경불련) (공동대표 설조·안동일)
경주 남산사랑모임 (회장 김덕수)
경주 정토법당 (회장 조충래)
공주 불광한의원
공주 영평사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 (회장 월주)
광주 능인회
광주문빈정사 청년회
구룡사 (주지 정우)
국가대표선수, 한마음불자회후원회 (회장 윤소년)
국민의식개혁을 위한 불교운동협의회 (회장 김지견)
국청회
군산불교대학 (김윤봉 처장)
금강선원
김해불교신도회 (회장 배석현)
남원불교대학
대각불교청년회
대구 구도회 (회장 권오주)
대덕암
대전불교대학
대한불교 금륜회 (회장 정환담)
대한불교 대불회 (회장 유상종)
대한불교 법사회 (이사장 목정배)
대한불교신문사 (발행인 정관)
대한불교안동청년회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 석철오)
대한불교 진각종 전국청년회 (회장 허협)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 서돈각)
대한불교 천태종 전국신도회 (회장 김유혁)
대한불교 청년회 (산하247) (회장 이상번)
동국대 경주캠퍼스 문수회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자교수회 (회장 장충식)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동국대 서울캠퍼스 보현회
동산반야회 (회장 김재일)
동산불교대학
동양사학회 (회장 변인석)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본부 (회주 법정)
미술사연구회 (회장 김리나)
미술사학연구회 (회장 조선미)
법동종합사회복지관
법보신문사 (발행인 설조)
보광사
보덕학회 (이사장 류시옥)
보리방송모니터모임 (회장 김재일)
봉원사
봉은사
부산 구도회 (회장 김인평)
부산불교교육원 (학장 성재도)
부산불교신도회 (회장 류진수)
부처님마을 (촌장 도문)
불광사, 불광법회 (주지 지오)
불교TV (사장 태웅)
불교간병인협회 (회장 정진)
불교교육연합회 (회장 민병천)
불교방송국 (이사장 종하)
불교방송통신원 성남지부
불교시민단체협의회 (회장 월주)
불교신문사 (사장 정휴)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김현준)
불교자원봉사연합회 (회장 성덕)
불교출판협의회(산하 28) (회장 원택)
불이회 (회장 홍라희)
불일회 (회장 조흥식)
불지사 (대표 김형균)
삼보회 (회장 조호정)
삼일선우회 (회장 손창대)
삼화불교대학 (학장 해인)
상지대 불교학생회
생명공양실천본부 (본부장 박광서)
서남재단 (회장 이관희)
서봉사
서울 구도회 (회장 김병렬)
서울대 불교학생회
성보문화재 연구원 (원장 범하)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연합회 (W.F.B)
세계불교청년우의회 (W.F.B.Y)
세림문화재단 (회장 임창욱)
수원불교청년회
신리박물관회 (회장 김원주)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문제연구회 (회장 윤용숙)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여수 여천교사연합회 (회장 김중선)
여수 여천부부불자회 (회장 윤영준)
여수 여천불교신도연합회 (회장 손정민)
역사교육연구회 (회장 김광수)
역사학회 (회장 김영한)
연세대학교 사학과
연심회 (회장 유재근)
연암불교학생회
오계파지운동본부
오봉정사 청년회
우리는 선우 (대표 남지심, 박광서)
원불교문인협회 (회장 한대석)
원불교은혜심기운동본부 (본부장 김보현)
원불교중앙청년회 (회장 김영석)
월간 대중불교 기자단
월간 대중불교 (발행인 장상견)
월간 불광
월광정사 (주지 세정)
이리불교대학 (학장 일우)
인천 용화사
일산법등사
자비의전화 (회장 정덕)
전국교법사단 (단장 김형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해숙)
전국금융단 불교연합회 (산하14) (회장 하룡이)
전국어린이 가장돕기모임 (회장 효성)
전남불교신도회 (회장 김두원)
전북대 불교학생회
전북불교대학 (학장 강건기)
전북불교전법사회 (회장 황혁구)
전북불교진흥회 (이사장 김영일)
전통가사연구원 (원장 정남식)
조국평화통일추진불교인협의회 (회장 월주)
주간불교신문사 (발행인 김용대)
중앙문화센터
천리안 유적답사회
청주대한불교수도원 (회장 남궁완)
청주불교금강회 (회장 이태랑)
청주불교신행단체협의회 (회장 김현배)
청주불교신행회 (회장 신호식)
청주불교실업인회 (회장 김현배)
청주연합합창단 (회장 윤영자)
청주예비역불자연합 (회장 정수기)
청주운전불자연합 (회장 이한순)
춘천불교학생회
충북농협불교회 (회장 구현서)
충북댐배인삼공사법우회 (회장 박동훈)
충북불교교사보사회 (회장 고용식)
충북불교교수회 (회장 김동원)
충북은행 (회장 김동훈)
충주불교청년회
탄현원각사
한국경제사학회 (회장 박광순)
한국고고학회 (회장 김병모)
한국고대학회 (회장 임효재)
한국과학사학회 (회장 오진곤)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 한상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산하 164) (회장 곽상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총동문회 (회장 명호근)
한국미술사교육연구회 (회장 김홍남)
한국미술사연구소 (소장 문명대)
한국미술사학회 (회장 강경숙)
한국불교교화원 (이사장 한정섭)
한국불교대원회 (이사장 박윤흔)
한국불교신도총연맹 (회장 노만석)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이기영)
한국불교재가연합 (공동의장 안동일)
한국불교재가회의 (공동의장 서돈각)
한국불교청년실업인회 (회장 이호식)
한국불교청년회 (회장 도각)
한국불교태고종 전국신도회 (회장 김철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원장 법륜)
한국사연구회 (회장 유승주)
한국사학회 (회장 이원순)
한국서양사학회 (회장 오인석)
한국석불문화연구회 (회장 이근후)
한국여성불교연합회 (회장 김묘주)
한국전통사찰음식연구소 (소장 적문)
한국통신불교연합 (회장 김영한)
한일법우회 (회장 황용수)
해동불교신문사 (발행인 정정순)
현대불교신문사 (사장 김광삼)
호남고고학회 (회장 이건무)

1995. 11. 7. 현재 171개단체

특집—겨레의 얼.세계의 자랑,경주를 지킵시다②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

"성보문화재 훼손에 끝까지 투쟁한다"

18,594명 서명 (1995년 11월 7일 현재)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동참 안내

알림

귀의 삼보하옵고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9월19일 각료회의를 통해 경부 고속철도의 경주시 통과를 확정하고, 1996년부터 시행키로 의결하여 지난 10월3일 발표함으로써,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원회는 재가불자를 중심으로한 교계 유수단체들이 뜻을 같이한 모임으로 이 계획이 백지화되도록 범불교적인 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결의하고, 벌침 선언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문체부장관, 건교부장관, 4개 정당 대표, 그리고 각 언론사에 송달하는 한편, 이 운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계 유수 신행단체 및 관련기관 제위와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단체는 본 운동에 가입하여 서명운동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고대합니다. 본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관련자료와 서명운동용 준비물을 송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 서면이나 전화로 연락주시면 서명용지와 스티커 등을 보내드려 개인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경주지역의 문화훼손의 심각한 위기를 막아 선조의 얼을 살리고 국가적 수치를 모면하고 성보훼손의 법난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1995. 10. 18.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추진위원회

사무처: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8-6 뉴장충빌딩 3층

전화: 263-1389, FAX : 278-9118

추진운동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성금을 모금하오니, 다음과 같이 입금 부탁드립니다.

동참금: 연합단체 100,000원 이상, 단위단체 10,000원, 개인 1,000원

입금구좌: 은행지로 5070187 (시중 각 은행, 농협, 축협, 수협)

우체국 010231-0028977-12 김형균

서명자 명단

불광사

권윤자 김필선 환순자 박세숙 추명숙 정원우 김오득 김찬식 한명림 하조임 이류자 연성재 권승환 임대민 이주희 박영재 신복순 정하성 이윤상 신경아 정순자 이종윤 이춘식 오경자 조원재 김경란 이슬기 이강자 윤희완 백명현 임장순 최병하 정혜승 언기웅 조홍수 조동환 김현숙 윤수은 김미혜 임재옥 서순애 김 민 장순옥 이미라 김경옥 김문희 박정례 홍병철 강명숙 김정희 하정선 권성태 전동일 김정기 이명호 이지숙 김정희 이향자 박소권 최숙자 박 진 조종현 박태현 강춘희 김종효 석주화 주석순 최원석 고진관 한정옥 홍영숙 전병운 이휘정 김영임 고정화 배경자 김소연 전정임 서경열 손정기 이순효 성애경 강숙관 박찬례 이영순 경목순 최봉림 은태애 손향숙 사경환 조민철 박영필 최돈남 노선희 신용숙 조경희 남정희 황외숙 김지숙 유성자 정진숙 이정애 행원수 보리해 보리명 무진월 대덕정 김영숙 김난화 최갑희 실상원 자명행 묘연행 최현주 노병우 최혜경 허미주 김미란 이민자 이병진 이희상 김영보 엄정심 유혜숙 이인진 김기태 이영자 최승인 이승월 이정희 한정숙

봉원사

이연세 조인옥 서경희 이태옥 박찬연 박동호 신연규 김영신 이정윤 이상민 김정곤 정지상 박향미 김영순 윤병문 김성룡 박명숙 김정순 이이구 이원식 박선부 김용주 김재희 조경기 임봉신 이문섭 김영숙 유성분 이영순 김경진 유복래 전순원 윤순례 박용담 김선원 조일생 김명희 민선화 홍석연 김은미 이천범 이경자 김영자 양종승 조남순 은유숙 이순애 김경숙 이상민 김정곤 정지상 박향미 김영순 윤병문 김성룡 박명숙 김정순 이이구 이원식 박선부 김용주 김재희 조경기 권갑년 서성남 유도형 이선호 윤종이 정대은 이정림 김 철 차광호 인규덕 내영림 김경숙 이화숙 이미애 김근화 이임선 고대혁 하혜숙 이원순 김윤옥 송기자 조찬열 박영란 양옥남 문인순 차 황 오홍자 김재일 김정순 박영란 양옥남 문인순 차 황 오홍자 김재일 서봉주 조순희 주정수 안평희 박석순 김용경 홍유경 한장로 정갑희 김부련 김복순 김재순 윤규섭 이상균 박인명 이명이 조순호 김진숙 홍정남 신원식 김종환 김세영 한은옥 김세영 김정자 신준원 문원선 김은화 박기호 김용수 김정순 이순애 김정희 이경자 김순덕 이재칠 박도환 강민희 이재효 이선우 손병국 류재옥 최충복 이석환 권오중 조덕현 김선정 홍민자 김승선 유계촌 조경행 계충순 천재숙 이원옥 윤석주 최효균 김승선 양명희 오태환 임창우 이충성 김미수 이충윤 엄영순 김화상 김원영 송희옥 문병옥 김일곤 황대연 이주옥 오혜정 유병연 이명재 정세옥 이경자 김순자 김영란 김옥매 박기범 김기태 이경순 김정희 이경자 김순자 조용은 장순정 이상철 김경석 이예선 방수문 김영옥 감규자 서민용 박승린 김석준 방병재 윤지호 손명근 박영옥 이경아 조덕구 오태경 안인자 임혜선 이영수 김정희 이향자 박소권 최원일 조명환 한문희 신동현 민 자 임장순 박숙희 이상훈 이영숙 강은순 안계숙 이강화 홍영숙 박희열 홍석보 박승진 이종우 성옥숙 이영희 고기영 김수희 유봉상 이치준 민효식 이종옥 김신옥 권미경 김미경 허경희 박제영 김남수 문용우 김동철 김정화 권문갑 김재식 김용우 왕판용 윤한군 이종선 이윤석 한철수 조철환 김영은 한두상 강현일 최은석 정경원 허경희 이임선 정 진 정영순 유한영 고상진 최봉림 민순옥 이재룡 김유진 이주인 김기남 이명복 한문희 김미경 윤보경 김경석 이우진 이성묵 염동대 이종인 노영남 문경자 최순화 장효철 박효균 신옥희 김충숙 김길성 오영미 허현나 호소영 진한준 진성민 진성현 장혜경 송재운 김혜자 황순복 최해득 윤석권 정태룡 이영숙 김형선 김성규 김광일 서애경 김도현 김성훈 강인철 박혜자 강홍식 박종남 이필훈 김영주 박태경 박일경 임정식 임채영 임채석 최두경 정두진 채정현 정승원 정주원 정재윤 하선문 허말문 하경환 하소정 강술리 이상덕 김옥련 이정윤 이선영 김기태 김임자 김정재 김영재 허만탈 박갑덕 조계준 송인자 조수정 조수현 조상윤 이종구 한명자 이용준 이호준 안옥녀 이숙하 이기환 호석진 최일혁 최 호 정남순 이경숙 이운명 김진태 이 숙 전영옥 김춘희 이우근 변경섭 김순례 박수철 류덕수 서운석 서진원 이종성 김미수 이희숙 신수련 허윤주 서계배 이원옥 윤석주 최효균 김경숙 유계촌 조경행 계충순 천재숙 이원옥 윤석주 최효균 김경숙 송성숙 양명희 오태환 임창우 김인숙 염영순 김정희 김선원 박미경 정수련 정 님 신근옥 정선자 신규홍 김해민 이정덕 최성옥 김성희 박선영 이수남 이복남 이동흔 이영덕 양철승 주용택 김선규 이광한 성광수 이혜숙 김기열 안양호 진문용 이종범 박용택 곽진섭 김영수 서순석 이종성 김미수 이희숙 최충복 이석환 권오중 조덕현 김선정 홍민자 김승선 유계촌 조경행 계충순 천재숙 이원옥 윤석주 최효균 김경숙 송성숙 양명희 오태환 임창우 김인숙 염영순 김정희 김선원 박미경 정수련 정 님 신근옥 정선자 신규홍 김해민 이정덕 최성옥 김성희 박선영 이수남 이복남 이동흔 이영덕 양철승 김선원 윤은례 박용담 김선원 조일생 김명희 민선화 홍석연 김은미 이천범 이경자 김순덕 이재칠 박도환 강민희 이재효 이선우 손병국 류재옥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

특집 — 겨레의 얼, 세계의 자랑, 경주를 지킵시다 ②

"古都保存法 제정 겨레권익 보장하라"

이영탁 권오석 이기민 이경희 이미숙 한석희 송지윤
안오영 환지현 박미옥 조용란 백은화 윤혜영 박명심
이미숙 유수정

김종서 김종서 김미영 김혜성 정영태 홍희선
오은순 이미정 김학수 홍숙희 양은정
이상숙 조석순 권양완

한국불교연구원 고미옥 정은자 김은영 박연식
강혜경 윤성자 홍영표 김옥녀
김인숙 박영희 서용경 최영덕 김혜숙 김영희 이은주
홍진갑 윤경란 이강완 김경희 김장천 오상택 강준주
조태숙 김영숙 윤임순 김매자 강남주 김봉주 김순자
박수정 심순호 조성근 황남수 윤임순 왕영자 김정숙
양금자 김수복 김정순 김정복 최주호 윤주원 임청옥
안재상 민순소 진원호 박상미 신명자 조충규 허상범
한유수 이배헌 최영로 김준우 장정남 김수찬 정은옥
류상욱 박용자 임형호 심경섭 방병근 유인성 채규대
황영렬 이영호 장영애 남기봉 김조식 지덕환 김병건
이경원 여 봉 강태광 황홍식 이인재 오수원 이승우
구성호 전병태 조익선 백유선 양승민 황인용 지선구
장재천 임양호 권재종 박종혁 원용화 이지인 김하자
이효재 권병숙 하정자 이정민 정미령 이경순 김정숙
홍승덕 김월래 홍숙희 조은호 김영실 조왕경 조난경
조희경 홍기호 홍주희 정경자 김상곤 김창숙 김태현
이능자 오희진 김정자 유행강 박준자 최재영 김정숙
서성규 최광숙 김광진 최은창 주형복 이창호 박노진
강영옥 김형돌 김영구 강영옥 조경옥 허성범 조동일
이선재 김태언 김인제 성말희 최춘조 이락용 이계진
이 준 이상호 이진희 이용호 서인향 이지현 조민구
김영옥 조남재 채정은 조남선 이미순 이충기 조경희
조수현 이승희 장명섭 조경환 하석봉 박섭원 백운길
이운영 서현당 허 병 최명규 조운재 박중현 권현숙
성서기 조정임 천정임 천정임 김인숙 양정환 남누명
양찬준 김재용 김민세 이복희 김재홍 김재연 성구수
김영옥 윤정옥 백인조 김미숙 김일출 송순자 전일녀
이미성 고지영 김정재 박용주 이용규 이순희 권영호
조상규 정소자 송화영 심우억 김영환 이순희 권영출
황두홍 김노송 장경희 장기용 박종성 백동준 윤종식
이윤자 공연희 정석주 박용현 한은경 김명희 이광호
정옥자 오세정 장준분 이 숙 송명숙 김은미 조미형
유혜숙 임영희 이정아 오정숙 이진미 윤정효 정숙천
윤선영 황미경 신종경 황인영 심이종 장동진 윤정자
김현경 김부기 김현길 이정서 이용진 전순희 윤정자
이예순 설순희 백영수 김순백 이국선 윤인순 정원택
한동윤 조조구 이재경 조경구 신미자 이귀복 이지홍
장문유 정복현 소원태 김용식 김한선 권진숙 김보영
김동성 이영호 이소연 이정은 김철환 장세현 김선주
서진주 안순희 김문숙 오금주 김종분 이찬형 진연아
이성배 이은주 김동연 장한순 이복숙 신선주 김명옥
이병기 허명숙 김종필 안한순 차혁준 원호숙 권선아
구하라 임복숙 박중학 이용오 권경아 민재홍 원궁재
장한별 박상득 최규덕 김정호 김선희 박진주 윤성완
노재범 정성채 이원주 유길선 전차옥 조건일 강방인
이영숙 최봉기 이성구 조숙희 강상진 이윤연 김성동
강운철 장태진 강용식 장지성 강진구 신각두 박광수
임춘택 서재원 김상수 장용언 고명상 정경현 황사목
노성환 장점순 임성규 권은주 구본서 성 숙 임덕봉
유희용 정혜선 유재상 송문석 최정호 김경일 진태수
조석현 배종구 이지연 정세희 김태식 이건린 김미화
표경자 이도순 김지만 정우주 윤태진 이동기 박경철
이종명 고석준 이남선 최용철 김동연 조영숙 이의익
이난호 이성원 박종민 최성욱 심영수 김택수 임종국
김강복 김은경 안창석 고광희 박성호 고대용 손창국
소영명 이태용 주진배 남궁호 이황섭 김복자 윤동섭
임경철 임영옥 이종서 김경재 김종식 홍수자 이창현
김현수 지준호 백상림 황미선 지일희 강성태 강진영
여미진 이종원 박은수 전의식 임복남 김불남 이명기
이익준 정영주 현은정 박순희 김만옥 박민지 유경호
유순희 오경순 서진경 장은빈 이은영 권성숙 문경숙
문경미 장현대 정미란 김영길 한상이 박재영 김광희
임정남 최상기 문용숙 손해준 박성숙 윤혜옥 이동진
유인탁 윤덕환 김애환 이창원 정연실 박정연 이광재
김성도 김희명 이신향 김효빈 유순자 신명진 박건국
오정옥 이정순 정수진 조주연 이효봉 이지은 김희선
김석준 이경원 서기성 이지숙 박혜미 이광미 이민성
이광례 권지연 김태령 김민자 석순혜 이종석 이정연
정인옥 이제훈 정명희 김윤호 이상한 남궁진 박종숙
이병운 최문희 박영희 박규권 장영준 유상일 배봉록
김동상 민영식 정병철 김인숙 정태영 구오성 라준철
차정권 안상봉 김영환 최기남 한상수 장만열 김병숙
표선주 김장현 김영현 정인철 우필재 김한숙 이광일
한상철 김종구 김문철 송인철 최낙원 이경향 임익수
박상규 김진렬 김창구 김진성 이항우 조관희 문숙희
이동섭 홍정숙 김나수 이춘화 김성기 서월선 남시우
노승희 최지영 김동채 김순례 박우일 정문이 남궁숙
임재환 박고나은 황창연 김진희 박배근 임유성 유현숙
박경희 제용문 강정섭 황기수 홍규선 안형우 김일권
조래권 김진수 육재호 정동섭 김근명 염영조 윤원섭
김태상 박은석 황용제 박정용 윤정은 한봉현 이한수
장광규 김금당 김희태 방양희 문 희 김광곤 조남희
이원식 김현문 한원숙 조용기 최형선 조재선 김영순
이혜린 김정자 박양미 박순양 한희수 강신홍 김찰호
김정이 박연자 박권영 이상문 손영숙 강미경 김은주
양경식 박동신 이현주 성필연 한주연 최미문 민경덕
표희숙 김진태 하혜숙 연상오 김대식 문형진 이동건
송 무 김영일 김덕형 안수복 정일희 전명희 정문자
이건선 이경애 정기용 조주은 황순욱 전유성 박정원
황두홍 김노송 장경희 장기용 박종성 백동준 윤종식
하창수 김정희 정인숙 박병림 조현미 이승남 강재선
정용화 이미숙 전돈식 고석윤 신명숙 안성준 조윤래
기호숙 주성혜 백경돈 최혜란 신연식 김명석 전영태
김연성 이종성 유봉수 김영숙 김국도 서보진 원창수
서 현 장영진 이태환 임주우 조현경 양창성 조태연
김필수 이지호 김익수 박광수 신상식 민승민 송명자
이병권 송명자 장규호 김충식 강민정 강문흥 김우규
이재희 신용덕 김영부 박여배 김영애 송경진 지경호
임미숙 김현숙 김진향 윤한미 장미경 이미선 최복순
강경찬 최광수 이완철 김근수 신재욱 허의옥 박병원
임종진 허운행 오상선 홍인순 김혜진 김영복 박혜경
양지호 권인섭 김미현 이인자 이창순 정진택 김병옥
김옥정 서경근 최원녀 신언철 정관영 유 민 원정림
이대희 조용삼 김태영 지연홍 임종덕 장철원 유영숙
김경석 노영화 노희철 정봉영 유희석 손유근 박 형
권도훈 진재철 강운철 신순종 주지영 이임수 이헌열
이성희 김선미 백선화 김병수 신현균 이수웅 이신자
연미정 명윤식 양인진 최은철 전하영 한성국 윤유석
민기종 김홍수 한기화 배호우 김미자 오정희 손진호
진정호 한병수 정홍해 개명원 이영주 김영주 김용근
김호식 박순봉 김종국 유재숙 이은숙 강정환 박호섭
이혜숙 이기송 정경희 서명애 채순애 김혜민 박홍만
문달부 강현중 김향미 곽동우 유민한 김용방 김종근
정동수 신명숙 김현박 이경수 이진하 강정일 이언정
도영미 조인식 정규호 김수림 정영호 황용주 김정철
최영미 한수연 조순옥 김중근 공상식 정진아 송정애
남필우 이덕중 박미구 김지동 공유종 김해도 박남용
박준명 김미화 주성관 임윤희 정상은 임위순 이광희
신원우 이재영 조 훈 조상석 황인숙 이음생 고미라
곽인중 송민선 김재홍 김원희 이인구 김태혁 박호송
정은진 정한구 구광택 성진경 한장희 이한우 신미자
신희태 모은기 민은녀 이병주 이경은 여순득 김정성
문정희 조영휴 전강학 박선희 김미연 최은영 리학수
가순은 강선자 유호선 박홍열 이태규 정기운 노상균
전경애 여수희 김예경 최영애 구은숙 김은천 임윤위
문화심 이현근 윤영랑 오창훈 남정효 김광덕 주순자
박종석 박경자 이동민 문화선 김 철 김동희 김태운
민윤식 송상동 이병원 연지선 김덕환 윤영남 김대희
최남숙 이기웅 유병준 신병선 전순택 김병조 김용수
이나경 이태유 김명희 신인숙 이창희 전주환 윤창원

진귀장 이용암 이원오 신성애 배효길 이연영 김용혁
박호분 김영숙 이호석 문연주 김희숙 김리복 최남철
최신지 김용근 유동석 이주신 김미숙 김건민 박용선
장슬기론 전혜미 강양순 정영주 김진희 김영덕 강충구
김양금 최선관 정분옥 백광현 박정훈 한도극 손종훈
박오관 김현지 안순영 김현모 양종선 황금자 김경순
송숙자 주경일 최종장 김성태 김정국 조국성 정성배
최진실 신기재 김재숙 장정순 박용혜 이정인 김옥주
임일준 최성곤 김진홍 장석규 이승열 유귀란 서광보
이경하 정창욱 최재덕 김영선 박경복 최유선 이주섭
황승천 이정호 윤정현 김지연 김명주 오태준 김종태
장종희 이선욱 류재선 김은지 오정환 최정연 안상경
유 미 임환식 김무웅 차승연 허범수 김윤규 정역암
정용성 추교중 이석노 김정호 박대희 이수행 손창남
천성재 신현국 김봉희 안영구 정혜경 홍태권 최 영
전서심 정종성 김세현 김기복 양지은 이승진 박은정
한순복 오동환 남현진 안동범 김자영 김정순 엽장식
김운화 이인숙 김찬호 김혜경 허미경 이석동 원종혁
김경현 최정인 강금석 하유선 윤병우 김철규 노동섭
최신엽 김윤자 이현영 정혜숙 이기송 김선배 박영순
김창호 이슬기 김양희 김언호 환옥선 박성찬 강입안
김을수 유승조 이인숙 김현우 이재근 이경철 김인환
허정호 김인수 송성조 박태서 박지운 박지수 김현태
이락서 김병진 김정식 조홍근 김명숙 김순자 홍경숙
김민영 오명숙 전영아 하민영 홍현정 김선진 이상수
이정행 표홍기 조용준 이동희 이병준 안중근 최경민
박영현 진정식 김동주 정병용 한민경 최성용 김용식
이기수 한호수 이홍우 전세권 신현철 홍진영 하재신
허영숙 심교철 정연숙 김태자 조한신 김영순 최보름
강신옥 강정숙 조소희 정소희 김선영 진철원 정종명
이수형 민현숙 권연수 김말녀 김숙희 오용희 주상수
황인재 한정식 이용식 백민화 박승범 이후닫 박현정
김민숙 김민규 정성언 전의재 이재효 현술영 이동식
서운지 우미선 김탁정 장은아 최진정 김규래 김석해
김정식 이성일 이상현 김남식 최만순 김인자 윤수호
김승애 홍경호 김주수 양은호 박영현 임금순 이귀남
김희진 이수례 이필호 김동사 지수하 신인순 박명진
고원일 김정아 강상락 김원숙 이은호 한 숙 이진성
한용규 이정자 허 혁 강승희 김진숙 김문경 박중근
박정현 이복순 이상용 이종호 정병렬 김민아 유재필
백한용 이창민 최은영 송재봉 이숙란 이숙란 김현숙
이준석 주영일 김정희 김기연 권한준 조규동 변천영
이충이 노광수 류승일 김창호 조중희 정상억 오수민
성정숙 박영천 김광운 이숙례 신석호 김애란 류기환
최정섭 박해동 전수남 유정운 현정섭 이순자 이보연
정호성 이완혁 홍순하 한창욱 김지숙 전애자 강은주
함미진 신득유 차성국 김연수 이미용 윤천주 최은숙
이형덕 심미선 송인근 김인정 김성택 이종한 김영숙
김영수 박기태 박운용 성현순 박종혁 이정수 김수길
김봉섭 정양선 고미영 이춘기 박성규 김명수 성필선
방계원 문종대 김옥철 김경진 민준식 박춘순 구희용
전복순 진만성 최종금 유순자 민경인 서동혁 최근호
백승찬 임현준 성입택 신상진 정지연 박명길 장한별
신동우 이종우 김정우 김경일 김상길 이일상 최점미
김

일반TV방송사들의 사찰을 배경으로 불교문화와 자연환경을 다룬 프로그램제작이 시청자들의 호응속에 늘고 있다.

SBS는 창사특집으로 오는 15일 자연다큐멘터리 '선암사의 비밀(윤동혁PD) 밤 11시~12시40분)'을 방영한다. 고색창연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는 선암사 주변에 살고 있는 미물에 포커스를 맞춰 생명존중의 불교사상과 어떤관계가 있는지 탐구한다. 특히 선암사 묘각스님과 사귀어 매일 사과를 한개씩 얻어가는 청설모 이야기는 감동의 수준을 넘는다. 담당PD 윤동혁씨는 "하찮은 미물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불교사상을 화면에 담기위해 선암사 주변을 촬영지로 정했다"고.

KBS-2TV '그곳에 가고싶다(금 오후11시 30분)'와 KBS-1TV '답사기행 우리문화유산을 찾아서(목 오후 10:15분)'도 곳곳에 숨겨진 우리의 불교유적을 답사기행하는 프로. 첫방송부터 불교유적이 살아 숨쉬는 전남 영암의 월출산 도갑사와 강진무위사를 찾았으며 앞으로도 산재된 불교문화유산을 차분하게 더듬을 예정이다.

사찰문화 프로 늘고있다

SBS '선암사의 비밀' 등 불교유적기행물 줄이어

교통관광TV도 '풍물기행(오전10시30분~11시30분)'과 '향토순례(오전 5시30분~6시)' 등의 프로를 통해 전국 곳곳의 유서깊은 사찰을 찾으며 수많은 문화재와 그 속에 깃든 불교정신을 면밀히 소개하고 있다.

이들 TV프로그램들이 문화유산들을 세밀히 소개하면서도 서정적인 영상을 펼쳐보이는 것도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

태고종 승려자격 강화

승니법 개정 종풍쇄신…4년제 대졸자 이상

4년제정규대학 또는 동등한 학력을 구비한 행자라야 태고종 득도수계산림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그동안 종헌종법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승니법 제(개)정작업을 추진해 온 태고종(총무원장 서봉스님)은 지난달 28일 총무원회의실에서 종헌종법개정위원회 기초위원 및 전체회의를 갖고 행자의 득도자격 개정안을 확정했다.

태고종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70회 중앙종회에서 교육개혁불사추진 결의에 따라 승려의 자질향상과 종풍쇄신운동 일환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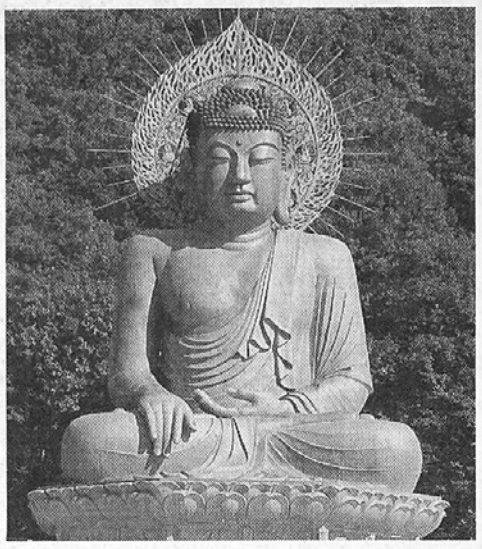
이날 확정한 승니법의 개정조항에 따르면 승려의 자격을 기존의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에서 4년제정규대학(동방불교대 포함) 또는 동등한 학력을 구비한 자에 한해 수계산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관련 태고종의 한관계자는 "행자의 자격강화로 인해 득도교육에 참여할 행자가 다소 줄어들것으로 예상되나 종단의 질적인 개혁불사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개정조항이었다"며 "향후 행자의 자격강화뿐만 아니라 교육의 내용도 극대화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태고종은 오는 28일 개최되는 제71회 중앙종회에서 종헌종법개정위원회가 최종확정한 행자의 자격조항을 다룬 승니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부터 곧바로 실시한다.

한편 현재 학력에 따른 승려의 득도자격은 조계종의 경우 고졸 또는 동등이상의 실력이 있는 자에 한해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진각종은 종단외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고 종단내 교육과 교화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김중근 기자



신흥사 청동좌불 '장엄'

통일염원 북한 銅 사용 8년만에 회향

설악산 신흥사 청동좌불상이 공사착공 8년만에 회향, 오는 12월3일 그 장엄함을 드러냈다.

신흥사 일주문 옆 2천여평 부지에 조성된 이 좌불상〈사진〉은 좌불높이 13.8M(전체높이는 17.8M)로 동양 최대규모. 일본 나라대불보다 70Cm 높다. 무게만도 118톤에 이른다.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뜻을 담은 이 불상은 청동재료를 북한산 최고급 전기동을 들여왔다. 통일을 염원하는 불상인만큼 같은 민족의 땅에서 생산된 재료를 쓰자는 이유에서다. 또 설악산이 이름그대로 악산인 점을 고려해 부처님 상호를 덕스럽고 편안한 후덕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조성했다. 부처님 좌상을 받치고 있는 8각 연화대는 목탱화식의 16나한상을 부조했다.

신흥사는 청동좌불상을 중심으로 현재의 터를 5천여평으로 늘려 대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공을 맡은 불교미술전시관 김성호관장은 "조성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총화종 총무원장에 전남정 스님



◇전남정 스님

총화종 제13대 총무원장에 전남정스님(수진사 주지)이 선출됐다.

총화종은 지난 2일 제35차 정기중앙종회를 갖고 전남정스님을 차기총무원장으로 선출하고 95년 세입 세출의 건을 심의·통과시켰다. 또한 이날 중앙종회는 공석중인 교육원장에 정동석스님(칠보정사 주지)을 선출했다.

신임총무원장 전남정스님은 76년 최일허스님을 은사로 득도, 종정사서실장, 총무부장, 감찰원장등을 비롯 89년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盧씨 구속수감 마땅"

태고종 스님74% 설문응답

노태우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 태고종의 종도들 대부분이 사법처리후 구속수감할 것과 절에 들어온다는 설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입장은 한국불교신문이 지난달 28일 태고종 소속 2천6백여개의 사찰가운데 1백사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태고종도들은 '노태우 전대통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74%가 사법처리와 구속 수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구촌 불교

부다가야 대탑 운영권 요구

인도불교도 5만여명 거센 시위

부다가야 대탑(대각사) 운영권 반환을 요구하는 인도의 승려와 신도들의 시위가 작년에 이어 또다시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시위에는 아그라 거주 아난드스님이 이끄는 5만명 이상의 군중이 동참하고 있으며 일본 출신 수리사싸이스님도 참여하고 있다. 수리사싸 이 스님은 올해로 여덟번째 이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부족한 숙박시설과 음식으로 노숙을 하며 대탑의 운영권 반환을 요구하는 시위대는 하루하루 눈물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일에는 1백명 이상의 인도인들이 대탑 보리수 아래서 삭발을 하고 수계식을 가져 새 스님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부다가야 대탑의 운영 주체인 힌두교 중심의 운영위원회와 비하르 주정부 당국은 불교측의 요구에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 지역 경찰과 외지에서 파견돼 온 경찰병력은 실탄까지 지급받고 유혈충돌에 대비하고 있어 삼엄한 분위기까지 연출하고 있다.

인도독립 직후인 1949년 비하르 주정부는 부다가야 대탑 운영법을 제정 운영위원은 8명을 두었다. 그중 4명은 힌두교사제이고 4명은 불교도이지만 당연직위원장은 부다가야 세무장관이 많고 있다.

그러나 이 운영법은 힌두교측이 유리한 특별조항을 제정하고 있어 불교도의 운영위원회 참여폭은 매우 제한적이다. 때문에 1백여년을 이끌어온 부다가야 대탑 반환요구는 인도불교계의 계속적인 투쟁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인도 부다가야=월우스님〉

美 재소자 교화잡지 인터넷 열람 가능

지난해 미국의 Kobutsu Shindo에 의해 조직돼 재소자들의 선수행과 정신운동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EZF(The Engaged Zen Foundation)에서 재소자들을 위한 'Gateway' 잡지가 발간됐다.

이번에 처음 발간된 Gateway는 주로 재소자들이 선수행을 하게된 동기나 자신의 범죄경험등을 솔직하게 싣고 있고 문맹인을 위한 선만화, 효과적인 선수행을 위한 방법등도 싣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Gateway를 보려면

http://www.teleport.com/~ldotm/GATEWAY/로 들어가면 된다.

美 서부지역 전법지 미주한국불교 창간

미국 서부지역의 불교계 소식을 전하고 전법에 일익을 담당할 '미주한국불교' 신문이 지난 1일자로 창간됐다.

이 신문의 발행인은 정산스님이며 불자 사업가 이태조씨가 명예회장, 김학순씨가 편집인, 장지현정사가 주필을 맡고 있다.

당분간은 매월 1일자로 대판 8면으로 발행하지만 내년부터는 격주간으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가 소식

법식·공양 찬불가 뮤직비디오 제작

불교TV 영상사업부와 부산 한마음선원은 찬불가의 대중화와 영상포교에 초석을 놓는 '부산 한마음선원합창단 뮤직비디오'를 제작한다.

야외및 해외로케로 촬영될 이 뮤직비디오는 법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하는 법식찬불가와 불교저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공양찬불가로 제작돼 내년 3월 출시될 예정이다.이와함께 영상사업부는 지장신앙의 발원지인 중국 구화산에서부터 한국의 지장신앙을 살펴보는 석용산스님이 해석하고 고증하는 지장스님 교양다큐멘타리도 제작할 계획이다.

청주 BBS 현판식·개국준비 박차

불교청주방송 개국준비위원회(위원장 월성스님)는 지난 8일 추진설명회및 현판식(사진)을 갖고 "지난 9월28일 성화동에 마련한 5백평부지에 청사를 내년 8월까지 신축하여 11월경에 개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교청주방송개국준비위는 30억원의 기금을 확보키로하고 법주사 10억, 신도기금 5억, 상임위원및 각종단 15억으로 할당하고 본격적인 기금마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국준비위는 충북지역을 순회하며 법회를 순차적으로 열 계획이며 법주사는 내달1일부터 5일까지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선서화전을 열고 2월경에는 청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정동호사장 선임반대

佛放특위, 이사회에 요구

조계종 불교방송특위는 지난 6일 총무원 4층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진흥원이 추천한 정동호사장선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후임사장선출과 관련 도덕성을 가진 전문방송인·경영인으로 사부대중의 존경을 받는 자로 신중히 선출할 것을 이사회에 요구키로 하고 "이사장 종하스님이 BBS의 대표자"라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태종 삼개사 낙성

천태종 강릉 삼개사(주지 진덕스님)는 지난 8일 대웅전 낙성식을 가졌다.

강릉시 남문동 183-1번지에 위치한 삼개사는 지난 93년 불사를 시작 외7포 내9포 총 60평의 고건축양식으로 낙성됐다.

전운덕 총무원장을 비롯 종단간부스님과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덕스님은 "향후 삼개사는 불교의 불모지인 강릉지역이 불교중심의 도시로 거듭나도록 다각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탁소리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청객'

이 경 숙 〈취재1부 차장〉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멈춘 방생·성지순례 버스에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불청객'들이 있다. 스님복장을 한 가짜 승려들이다. 이들은 반야심경 등 복사한 다라니를 넣은 봉투를 신도들에게 돌린 후 "불우 노인들·정박아를 돌보고 있다. 성의껏 도와 달라"며 신도들의 돈을 거두어 사라진다.

이들의 수법은 연꽃마을이니 자비원이니 하는 이름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기존의, 널리 알려진 '연꽃마을'과 '자비원'과의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 더구나 OO사 문중이니 OO스님의 손상좌니 하며 돌아가신 큰스님 법명까지 들먹여 신도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물론 이들 사이비승들이 나누어준 봉투 겉면에 쓰인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면 그곳은 절이 아니라 엉뚱한 가정집이 나온다.

지난 1일에는 호법부 조사과장 스님이 가남휴게소에서 '佛'자가 쓰여있는 연고를 팔고있는 한 비구니를 발견, 승려증을 보자고 하자 덩치 큰 어깨들이 나타나 시비를 걸며 방해한 사실도 있었다.

명동 청량리 고속터미널 등 번화가에는 휴일이면 어김없이 큰 시주함을 앞에 놓고 목탁을 치는 탁발승을 맞닥뜨리게 되고 광화문 지하도에는 한동안 불사에 쓴다며 사이비승이 그림을 팔았다.

이렇게 권선을 강요하거나 탁발하는 이들은 스님이 아니다. 행색만 스님이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산 승적을 지닌 명색만의 승려이다.

가짜들이 더욱 그럴싸한 말로 신심을 자극한다. 이들에게 보시한 돈이 불우한 사람들에게 갈 리는 만무하다.

지난 윤달에는 3사순례 등 성지순례가 잦았다. 휴게소마다 방생이나 성지참배 버스를 노리는 불청객 사이비승들이 설쳤다는 후문이다.

호법부 스님들의 단속으로 사찰행사시 객승들이 과거보다 꽤 줄었다고는 한다. 그러나 곳곳에서 나타나 신도들을 현혹시키는 사이비승들의 단속을 호법부 스님들에게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

방생이나 성지순례를 떠나기전 인솔하는 스님들이 이들 사이비승들의 행태를 미리 주지시켜 피해를 안 보도록 하는 사전고지가 절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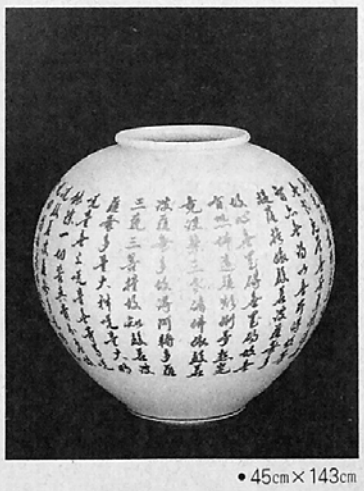
또한 제2, 제3의 '소쩍새 일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살피는 우리 신도들의 현명한 혜안도 열려야 한다고 본다.

이미 수많은 불자가 지장보살님을 모셔놓고 정진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가정 한분모시기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요

1. 무불시대의 부처님. 이시대의 부처님이신 대원본존지장보살마하살님을 가정에모셔놓으시고 조석으로 예경하고 마음을 닦지않으시렵니까.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성불시키는 그날까지 성불하지 않겠노라"는 본원을 세운 대성지장보살을 이미 전국삼만불자가 모셔놓고 정진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혼신의 힘과 심혈을 다하여 제작된 백자(도자기)지장보살존상은 금전적인 가치로는 따질수 없는 소중한 보배이오며 이시대 최고의 예술품이오니 한분씩 모셔놓고 기도하시면 삼세업장이 소멸되고 무량공덕을 필히 얻으실 것이오니 불자님께서도 동참하여 주십시요.
2. 사찰에서도 원불로 모실수 있습니다. (많은 사찰에서 원불로 모셨습니다.)
3.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을 백자에 순금으로 대전신흥사의 묘허큰스님(혜원)께서 친히쓰신 도자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입상 • 25cm×30cm×33cm


지장보살좌상 • 25cm×30cm×33cm


• 45cm×143cm



1. 장식장 포함됩니다.
2. 구입방법 본사 :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1038-13 佛音般若 TEL : 0345-413-4647~8
경남지점 : 경남불교용품판매전시장 TEL : 0551-95-8911~2
3. 가 격 : 지장보살입상……200,000원
지장보살좌상……180,000원
혜연선사발원문……500,000원
반 야 심 경……300,000원

京畿道 安山市 仙浮洞 1038-13
(佛音般若)
TEL : 0345-413-4647~8
全 斗 漢 合掌

사찰 장례식장 건립 '숨통'

정부 법령완화·예산책정…조계종 내년2월 지원대상 선정

생로병사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부처님의 도량에서 회향할 수 있는 도심 사찰 장례식장이 건립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초 종교시설 또는 공공시설 부설 장례식장과 지역사회주민이용 개방을 전제로 한 병원장례식장, 그리고 전문장례식장 등 관계기관에 장례식장 설치자금 융자지급안을 시달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달 말 전국 25개 교구본사를 비롯 1백여 사찰에 장례식장 신·증축에 대한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보건복지부는 96년도 정부예산안에 장례예식장 지원을 위한 재투자자금 50억원을 반영, 내년 2월경 장례식장 확충을 위한 지원대상을 선정해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장례예식장의 건립은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상 그린벨트에 설치불가, 지역주민의 반발우려등 설치운영 여건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장례예식장 건립은 각 사찰로 확산되고 있는 납골당과 함께 건전한 장례문화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복지부는 도심 또는 도심근교 사찰의 시설을 개축하거나 사찰소유지에 장례식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시책을 강구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이달안에 건설부와의 협의를 거쳐 대부분이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있는 사찰 소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완화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 능인선원 복지관의 경우 상조회를 구성, 신도가족의 장례시 수의, 빈소마련 등 각종 활동을 도맡아 해오고 있다. 능인선원 복지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신축 건물 이전과 함께 지하1층 공간에 불교장례예식장을 마련하고 냉동기등 전문시설도 갖춰 사찰 장례 예식장을 모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사찰에 장례예식장이 마련될 경우 장례에 따르는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찰이 종교공간으로뿐 아니라 사회적 공간기능의 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음성 고심사 영탑원 조성

◇한국불교대원회 음성 고심사(상임법사 권오현)는 경내 1천여평에 30여기 규모의 영탑묘원을 조성했다.

고심사 영탑원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불교의 화장제도를 이 시대에 맞게 확산하고 대중불교를 선양키 위한 것으로 불교계에서는 한마음선원에 이어 두번째로 조성됐다. 영탑은 전체넓이 3평에 높이 2.1m, 가로 세로 1.1m 크기로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영탑 1기당 9인내지 18인의 유골을 연꽃모양의 도자기 골호함에 넣어 안치할 수 있어 가족묘원으로도 이용될 수 있도록 했다.

관람료 관리법안 심의

위원회 구성·분담금 활용등 다뤄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6일 관람료 사찰주지회의를 열고 관람료 자율화 실시에 따른 관람료 관리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협의·보완된 안에 따르면 관람료 책정및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관람료 위원회를 두며 관람료위원회는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 문화사회부장을 당연직으로 한 11인~15인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위원장은 총무부장이 당연직으로 맡으며 위원회 업무는 재무부에서 담당한다.

한편 관람료 수입의 30%를 예전처럼 불사를 위해 총무원과 공동예치하며 총수입의 17%를 관람료 분담금으로 하되 그중 5%는 한시적으로 중앙승가대 이전기금으로 활용한다는데 동의했다.

특별 구족계 수계산림 17일까지 신청접수

조계종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이 오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범어사 금강계단에 개설된다. 〈관련인터뷰 4면〉

연령 40세 이상 1980년 이전 사미계 수계자로서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수계산림의 접수기간은 11월 14일~17일까지.

"한국불교 사회참여·인재양성 절실"

동국대 경주불교학과 159명 대상 조사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학생들은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34.3%)와 인재양성(21.7%), 포교(21%)강화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개교 10년을 맞아 불교학과의 현주소와 변화방향을 모색키 위해 지난 4월 불교학과 전학년 1백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그러나 불교학연구분야(4.9%)나 역경분야(0%)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극소수에 불과해 불교학과 학생들은 불교가 대중속에서 거듭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생들은 불교의 가르침은 매우 훌륭하다(66.5%)고 생각하고 있으나 사치하거나 수행에 소홀한 스님들의 생활(30.1%)과 신자들의 양보없는 신행생활(28%)등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부정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종교를 신앙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인생의 참의미를 깨닫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60.9%)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아 학생들의 종교관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종교가 삶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의견도 30.1%에 달했다.

입학당시와 현재의 불교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81.9%에서 94.5%로 증가해 학과에 대한 자부심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음을 반영했다.

또 졸업후의 진로에 대해서는 53.2%가 불교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싶다고 답했으며, 이중 신문·방송분야(32.9%)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데 이어 교육분야(23.1%) 포교분야(21%)가 그 뒤를 따랐다.

조계종 119회 종회 종정감사·예산심의

조계종 제119회 정기중앙종회가 지난 3일 총무원 청사 1층 회관에서 15일간의 회기로 개최돼 종정감사 및 안건토의에 들어갔다. 이번 종회에서는 96년도 예산심의 승인의 건을 비롯해 △종무보고 △95년도 종무행정 감사보고 △각종 위원회 업무활동 보고 △재단법인 역경진흥원 △원로의원 추대 △사면 권고 결의 △종법 제·개정의 건 등이 상정돼 있다.

종회는 각 분과별 예산 예비심사를 3일과 6일 각각 마치고 휴회에 들어가 지난 9일 3일간의 종무행정 감사에 들어갔다(11월 9일 현재).

동국대 근거리 통신망 구축

쌍용정보통신과 계약…정보교류 활발 기대

동국대(총장 송석구)에 근거리 통신망(LAN)이 구축된다.

동국대는 원활한 학술정보교류와 효율적인 학사업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 2일 쌍용정보통신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서 양측은 전송속도 1백Mbps를 지원하는 광섬유방식을 적용, 서울캠퍼스의 전산센터인 혜화관을 중심으로 본관, 과학관, 도서관 등 각 단위건물을 근거리 통신망으로 연결한뒤 이를 경주캠퍼스의 전산망과 전용회선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동국대측은 "이 전산망이 구축되면 대학내의 산재하고 있는 호스트컴퓨터와 각종 전산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학내의 학술정보의 교류도 훨씬 원활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교화연합회 포교원 직할기구로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가 내년 불교청소년의 해를 앞두고 조계종 포교원 산하 직할 청소년단체로 거듭 태어난다.

청교련은 지난 7일 열린 전국규모 청소년단체 결성을 위한 포교원과의 임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따라 청교련은 포교원으로부터 년간 예산을 고정적으로 지원받기로 하고, 청소년 포교의 조직강화를 위해 전국규모의 25~30개 시도지부·지회 조직을 설치, 강화키로 했다.

한편 청교련 조달현 사무국장은 "내부적으로는 포교원 산하 직할단체로 하되 외적으로는 범종단적 차원을 유지하기로 포교원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불교회 9일 창립법회

한국불교의 대승적 화합과 대중속의 불교 생활화를 기치로 내건 (사)'한국불교회(준비위원장 정각)' 창립법회가 지난 9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개최됐다.

'한국불교회'는 이날 "작금의 사바세계는 온갖 반목과 질시로 갈수록 냉담해져가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런 난국의 시대를 풀어나갈 지혜를 모으고 몸소 실천함이 오늘을 사는 승가들의 진정한 사명이요, 참수행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국불교회'는 종파를 초월한 전국 각 지역의 스님 2백여명과 불교단체장 1백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제6차 전국승가학인대회에서 학인들이 서도대회를 벌이고 있다.

"청년 학인스님 화합도모"

직지사 학인대회에 500여명 참석

청년 학인승가의 화합도모 및 수행자세 정립을 위한 제6차 전국승가대학 학인대회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김천 직지사에서 열렸다.

전승련(의장 각원스님)이 주최하고 15개 승가대학 학인 5백여명이 참석해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대회는 예년과 달리 설법대회, 법고경연, 서도대회, 꽃꽂이, 역경대회 서화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관응스님(직지사 조실)은 법어를 통해 "아집과 법집을 녹여 진여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각원스님은 개회사에서 "이번 대회에서 젊은 청년승가가 이 사회에 환원해야 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토론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신세대 스님들의 행사답게 시종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나, 회향식 때까지 참가 대학수와 인원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등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용주사 정현스님 구속 신도회 부회장 고소로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주지 정현스님이 횡령혐의로 지난 4일 경기 경찰청에 구속됐다.

정현스님은 지난 2월초 화산효행교육원 신축공사를 벌이면서 신도들로부터 받은 공사기금중 2억원가량을 무단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찰 신도부회장 심용진씨는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며 정현스님이 받고 있는 혐의가 사실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신도회측은 "심용진씨가 효행교육원불사 건립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각종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신축공사 과정에서 제멋대로 임의계약을 맺는등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다"며 맞고소할 방침을 밝히고 있어 당분간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본동복지관 두달째 '행정공백'

동작구청 무자격자 관장임명등 재계약 횡포

동작구청이 퇴직공무원의 직무연장의 일환으로 무자격자인 공무원을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임명하려 하고 있어 교계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 협회등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재단법인 태고원이 동작구청으로 부터 위탁받아 지난 90년 10월부터 운영해 온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선례)은 지난 8월 말로 5년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신청했으나 동작구청(구청장 김기옥)이 관장임용권을 운영권자가 아닌 구청측에 위임한다는 수정된 약정서를 법인측에 강요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이로인해 본동복지관은 두달이 넘도록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지원금 또한 받지 못하는 행정공백상태에 처해있다.

동작구청측은 운영권자인 본동복지관측이 새로 작성한 약정서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복지관을 구청에서 직영할 수 밖에 없다며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현 복지관계법에는 복지관 관장임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이같은 부당한 조처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측은 법적인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복지관 측은 시청민원실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조처만을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 진신사리 35과 봉안

해인사 길상암, 불광보탑 제막식 봉행

해인사 길상암(주지 명진)은 지난 4일 사부대중 1천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처님 진신사리 35과를 봉안한 불광보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날 봉안된 불광보탑은 신라 오운리 5층석탑을 본떠 만든 것으로 보탑안에는 불사리 35과를 비롯 77개의 3층 도자기탑,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전, 목향등이 봉안됐다.

지난 68년 원력을 세워 26년간의 노력끝에 불사를 마친 명진스님은 "앞으로 이 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래서 보다 평화로운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길상암은 불광보탑 제막식에 이어 미륵전 봉불 점안식과 53불 불조전 건립 회향식도 함께 봉행했다.

한편 이날 제막식에는 혜암스님(해인사 방장)과 미얀마 종정 및 부종정스님, 미얀마 종교성 직원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이 명성여고 5백24명에게 불제자가 된 수계첩을 내리고 있다.

명성여고 524명 수계법회 현장

"향과 꽃으로 청하옵고, 향과 꽃으로 맞이합니다."

종립 명성여고 5백24명의 학생들은 지난 8일 불제자가 되기위해 구룡사 만불보전을 찾아 부처님전에 향과 촛불을 사르고 합장했다.

계를 받기위해 새벽이슬을 머금고 갓 피어난 연꽃처럼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한 여학생들은 구룡사를 찾아 저마다 그동안 거짓말하고 다투고 했던 온갖 번뇌들을 소멸코자 발원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는 입동을 맞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초발심은 법당 가득 피어오르는 향내만큼 엄숙했다.

명성여고 개교이래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계식에 동참한 이날 추계수계대법회는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을 계사로 청해 삼귀의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저희 수계자들은 대덕법사님을 의지하여 삼귀의를 행하며 오계를 받아 참된 불자가 되기를 다짐하오니 어여삐 여겨주소서'라고 5백여 청신녀들은 또박또박 큰소리로 읊조린 후 삼배를 올리고 마른 풀을 불태우듯이 모든 죄업을 소멸하는 참회진언을 염송했다.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입술을 굳게 다물고 팔목을 걷어부친 학생들은 뜨거운 향불이 살갗에 닿는 순간 모든 업장을 소멸키 위해 더욱더 큰소리로 참회진언을 염송했다. 이렇게 5백24명 청신녀들이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참회진언을 염송하는 모습은 엄숙하다 못해 출가수행자들의 수계의식을 연상할 정도로 장엄했다.

이날 처음 수계를 받은 이동림(2년, 법명:무상행)양은 "오늘 수계법회를 계기로 참다운 불자가 된 것 같다"며 "녹원스님이 말씀하신 다섯가지의 계율을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김형중교법사는 "5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윤리관·종교관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과제"라며 "오늘 수계법회를 계기로 학생들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명랑하게 생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근〉

"초발심 여학생 한 목소리로 참회진언 염송"

일제강탈 문화재 135점 반환

山口여대서 백월선사비 탁본등 경남대에 기증

지난 94년 9월 일본의 개인 소장가인 하치우마 타다스(八馬 理)씨가 우리나라 유물 383점을 중앙박물관에 기증한데 이어 일본 야마구치(山口)여자대학이 한국의 희귀 고전적을 경남대에 기증키로 해 해외로부터의 문화재 환수작업에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경남대(총장 박재규)는 "야마구치여대와 '한국관련 주요자료 기증 조인식'을 맺고 이 대학 문고에 보관중인 총 98종 1백35점의 희귀본 자료를 기증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되는 자료는 일제시대 초대총독을 지낸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 正毅)가 수집해 그동안 야마구치여대 '테라우치 문고'에 소장돼 오던 것으로 추사 김정희의 〈완당법첩위눌인서(阮堂法帖謂訥人書)〉와 〈신라 백월선사비(白月禪師碑)탁본〉 〈고려자등(慈燈)탑비탁본〉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지에서 이 자료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임창순 문화재위원장은 "국내에서 발견된 희귀자료들이 많아 당시의 생활상과 문화수준을 가늠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로 유출된 우리문화재는 세계 17개국에 모두 6만4천8백52점에 달하며, 이중 일본은 거의 절반에 이르는 2만9천6백37점을 보유하고 있다.

虛씨 사찰행 결사저지 대불련, 진상조사 촉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곽상인)는 지난 5일 전국지부장단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찰행 가능성에 대한 불가입장을 천명했다.

대불련은 이날 회의에서 노태우 전 태통령의 제2 백담사 음모를 결사 저지하기로 결의하고, 김영삼 정부의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생명공양실천본부 내달 사단법인 설립

생명공양실천본부가 생명나눔실천본부(본부장 법장스님)로 명칭을 바꾸고 오는 12월경 사단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오는 16일 관훈동 본부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마무리 작업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최종 이사 13명을 확정했다. 태응스님, 광우스님, 법장스님, 각현스님, 본각스님, 성운스님, 자광스님, 종립스님, 도원스님, 경원스님, 성광스님, 박선영교수, 박광서 교수 등이다.

신·편입생 요강 확정 중앙승가대학

중앙승가대학(학장 송산)이 96학년도 신·편입학 시험요강을 확정했다.

중앙승가대학은 선발 전형일자를 96년 1월24일로 확정하고, 내달 11일부터 19일까지 원서를 교부키로 했다. 또 신·편입생은 고교내신성적(신입) 전적학교성적(편입)과 불교교리 시험, 면접 및 인성검사 결과로 선발한다.

복지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

조계종 익명 독지가 1억원 기탁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은 교계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11월말까지 양로원, 고아원, 재활원 등 관련복지기관에 운영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계종 복지재단은 오는 16일까지 무의탁 노인, 아동 보호시설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해온 복지단체의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아 전문위원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보조금 지원은 익명의 독지가가 복지재단에 1억원을 기탁함으로써 이뤄지게 됐다.

자연보호 등반대회 5일 대불청 대각청년회

대불청 부산지구 대각불교청년회(회장 임천)는 지난 5일 경남 언양 신불산에서 자연보호 등반·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회원들은 신불산을 등반하면서 등산로 곳곳에 버려져 있는 오물을 수거하고 등산객들을 상대로 자연보호 홍보운동을 펼쳤다.



그림이 있는 불교에세이

우주는 너와 나 없는 조화의 세계

어우러짐

수미단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천상중생, 수증중생, 허공중생, 불법수호신장 등 모든 것이 어우러진 화엄의 세계라고. 그 속에서는 꽃도 새도 물고기도 짐승도 사람과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어우러짐이라는 주제를 가진 그림을 그리며 온 우주의 중심인 수미산을 두고 옷감을 짤때 날줄과 씨줄이 서로 만나듯이 개체들은 다 연관을 갖고 필연적으로 만난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인연의 소중함, 만남의 소중함을 항상 느낀다.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을 예사롭지않게 생각한다.

모든 사물이 존재계의 필요에 의하여 그 자리에 있다고 보면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필요한 것이된다.

바닷가에서 눈에 띈 예쁘고 작은 돌멩이도 전과 같으면 주머니에 넣어 와서 눈에 띄는 곳에 놓고 나 혼자 즐겼을테지만 그 돌멩이가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원래의 자리에 그냥 놔 두는 것이 돌멩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해인사에서 저녁 예불시간 전에 울리는 법고, 범종, 운판, 목어 소리의 어우러짐을 들으며 사람뿐만 아니라 축생, 물고기, 새를 제도하기 위해 울린다는 깊은 뜻을 생각하니 곧 우주법계가 하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나무, 새, 미물들, 사람들, 이 모든것이 남이 아니고 나 일수 있다고도 생각했다.

윤회란 어찌보면 삶을 공평하게 해주는 것은 아닌지.

라즈니쉬의 금강경에 나오는 alone이란 단어의 해석은 무척이나 경이롭다.

alone은 all one이라는 의미로 모두(all)와 하나(one)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홀로 있음안에 우주만물과 하나라는 해석을 보면서 alone이라는 단어에 매력을 느꼈다. 하나가 전체, 전체가 하나. 너와 내가 없는 不二의 경지를 모두 느낀다면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인정해주고 자기 본래의 자리에 만족해하는 이 모든것들이 서로 어우러진다면 이 세상에서도 수미산에서 볼 수 있는 화엄의 세계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해 본다.

이 인 옥 〈서양화가〉

거친 파도를 넘어서 ④·〈끝〉

주부신행담

그런 남편의 방황은 생각보다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얼마간 집을 나갔다온 남편은 "다시 한 번 힘을 내 열심히 살아보자"고 내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수도공 일자리를 얻어 일할 때 나는 조계사에 다니며 부처님께 눈물로 지성을 드렸습니다. 제발 내 남편과 아이에게 더이상의 불행이 없게 해 달라고.

그러던 어느날 우리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도자기 장사를 권유하는 어느 노인의 친절한 배려로 남편은 손수레를 준비하고 도자기 장사에 나섰습니다.

오후부터 새벽 1시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려 집에 두고 다닐 수 없기에 손수레 속에 아이가 누워 잘 수 있는 공간을 꾸미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덕분에 수입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정말로 세상사는 기분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심해서 번 돈을 푼푼히 모아 그동안 진 빚도 다 갚고 전세방과 화물자동차도 한 대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유가 생긴 우리 부부는 조계사 일요법회에 참석해 스님의 법문을 열심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어린이회에 들게 했고 저는 따로 자모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래도 위험한 상황에서 이처럼 그럭저럭 살 수 있게 된 것이 모두 부처님의 은덕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조금 먹고 살만 하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가정불화로 자신의 남편과 이혼할 각오를 한 어느 여자가 남편과 뜻이 맞아 더 이상 뭘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과보를 잘 받고 싶으면 피하려 말고 남편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남편과 그 여자에게로부터 만나자는 청이 들어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분명한 것은 바로 그런 사실이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는 예상했던 것처럼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무진 고생을 무릅쓰고 살아 왔는데 또다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서럽고 억울했습니다.

자모회 총무를 찾아 나섰습니다. 무언가 방법이 있을거라는 생각과 내 전생의 과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생각이 교차하면서 내사정을 눈물로 하소연하니 총무는 저를 데리고 홍제동 정토포교원으로 갔습니다.

포교원 어느 보살님이 제 사정을 아는지 아무 걱정 말라고 하며 법문 테이프를 틀어주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마음을 가다듬고 집으로 돌아와 평상시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요아니룻다회를 마치고 법륜스님을 만난 것은 실로 큰 인연이었습니다. 내 처지를 듣고 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보를 받는 다는 것이 떡 먹듯이 쉬운 일은 아니오. 정말로 과보를 잘 받고 싶으면 어디로 떠나 피하려 하지말고 이미 인연지어진 남편과 그 여자를 그자리에 그대로 두고 남편에게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보세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고 무엇을 따라 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 계기였습니다.

괴로움이란 바로 모든 것을 좁게 보고 수동적이며 피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생기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업에 묶여 있어 조그마한 경계에 부딪치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는데 이 경계를 풀어야 진정한 자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느 순간 지은 인연을 딱 깨달으면서 아차하며 한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법륜스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깊이 믿고 실천에 옮기려 애쓰고 있습니다.

지나온 날을 생각하면 회한도 눈물도 많았던 곡절의 세월이었지만 아직도 내게는 보다 희망찬 세상이 남아 있다는 위안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글을 쓰기전에 남편과 그 여자분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두분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신 부처님과 스승님께 진심으로 귀의합니다.

오 정 숙 〈홍제동 정토포교원〉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⑯

♦ Having thrown behind(himself bodily) pleasure and pain, and preiously (mental) joy and distress, having acquired equanimity, tranquility, purity,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쾌락과 고통을 버려라. 기쁨과 근심도 버려라. 그리고 맑고 편안하고 순수한 마음만으로 저 광야를 가고 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Strenuous for obtaining the supreme good (Nibbana), with a mind free from attachment, not living in idleness, being firm, endowed with bodily and mental strength,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라. 마음의 안일을 물리치고 수행에 게으르지 말며 용맹정진하여 체력과 지혜를 두루 갖추며 저 광야를 가고 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Not abandoning seclusion and meditation, always wandering in (accordance with) the Dhammas seeing misery in the existences,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홀로 있어 선정을 버리지 말고, 모든 일에 항상 이치와 법도에 맞도록 행동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근심인지를 분명히 알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Having abandoned both passion and hatred and folly, having rent the ties, not trembling in the loss of life,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 그리고 뒤얽힌 번뇌의 매듭을 끊어 버려라. 목숨을 잃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abandon 포기하다, 단념하다.
*seclusion 호젓한 곳, 은둔
*attachment (마음의)애착
*equanimity (마음, 기질의)평정, 침온

한명우 기자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화려했던 낮만큼이나 소중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으로 다가서는 이름—그랜드
우아한 분위기,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늘 사랑이 넘치는 공간! 그랜드로 오십시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침대전문 회사 2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한길만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좋은 품질, 편안한 가격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체폭에 25mm 강선을 사용한 하트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 매트 리스 사용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력을 바로 전달 수 있으며, 수명이 2.5배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다양한 모델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GRAND FANTASIA

꿈의 나래를 펀다 그랜드침대

• 본사: 경기 파주군 광탄면 마장2리 180-18
• 전화: 0348-945-2233 / 팩스: 0348-945-9607

생활 속의 불교 ㊾

나만을 위해 복을 짓는다는 보시행



의·식·주를 해결하고 남는 재물의 사용방법에 따라 개인이나 국가나 삶의 형태·의미는 판이해진다. 쾌락을 좇는 사람, 내일에 투자하는 사람, 남을 돕는 사람이 있고, 군비확충에 주력하는 나라, 교육에 비중을 두는 나라, 복지를 우선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어느 것이 바람직하냐 할 때 불가에서는 남을 돕는 일, 다 함께 잘 사는 길을"으뜸으로 삼는다. 보시의 실천이다.

불자들은 흔히 보시를 개인 차원의 '복 짓는 일'로 받아 들인다. 비유하자면 자신의 내일을 위해 은행에 예금하는 행위와 비슷하게 여긴다. 보시를 하고 복을 구하는 것—건강, 승진, 합격, 재물, 명예 등을 바라는 것은 조금도 어색한 일이 아니며, 가게에서 돈 주고 물건을 사듯이 너무도 당연한 일처럼 여긴다. 그래서인지 방방곡곡의 대작불사엔 자신의 이름 석자를 새긴 보시행렬이 줄을 잇는다. 다음 생을 위한 연례적인 보시 행사도 늘 성황이다.

불교의 업(業)사상은 한 치의 빈 틈도 없다는 인과(因果)법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내가 뿌린 대로 내가 거둔다'는 이 철칙은 '보시란 곧 복을 짓는 일'로 강력히 암시한다. 고로 불자들은 은연 중 '내가 이렇게 보시했노라'를 공개하고 싶어한다. 타종교에 비해 유독 불교계에서만 얼굴 없는 보시가 발달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보시가 곧 내 복을 위한 것이라면 구태여 이름 석자를 밝혀야 할 까닭은 무엇인가. 내가 나를 위해 한 일을 남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 예금할 때처럼 복 짓는 일도 실명제인가.

가르침은 무주상(無住相)보시를 말보시라고 한다. 기독교에선 '오른 손이 한 일을 왼 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고 불가에선 마음으로라도 내가 했다는 생각을 짓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내가 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 또한 업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업이 남아 있는 한 해탈은 어렵기 때문이다.

한 편 이 세계가 상대세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된, 오로지 개별적인 업보란 가능하지 않다. 내 돈이라 해도 1백프로 내 힘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대가 있기에 돈도 벌었고 상대가 있기에 재물도 권력도 가능했다. 고로 비록 내 돈이라고, 나만의 복을 위해 보시했다 해도 이미 거기엔 다른 이의 조력이 포함되어 있을 터이니 어찌 혼자만 복을 차지하려 하겠는가.

우리의 삶은 좁게는 내 가족, 내 이웃과 연계되어 있고 넓게는 국민, 인류, 나아가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고로 나의 행위 하나하나는 개별적인 업이 아니라 공동의 업일 수밖에 없다. 나의 선행, 나의 악행은 곧 선의 공업, 악의 공업으로 연결된다. 예컨대 나의 환경파괴 행위가 공동체의 삶을 위협하는 인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한 개인의 엄청난 도둑질이 온 국민을 슬프게 만드는 것도 공업의 산물일 수이다.

나의 보시행이 나만의 복이 아닌 까닭에 보살의 서원이 가능하고 자비 정신의 귀감이 된다. 불자라면 부처님께서 무주상보시를 강조하신 까닭을 생활 속에서 깊이 음미해보고 실천할 일이다.

협찬: 신 선 필